

중국의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수출확대방안

2005. 12

주문배 · 정명화

□ 보고서 집필 내역

◆ 연구책임자

- 주 문 배 : 제1장 ~ 제6장

◆ 연구진

- 정 명 화 : 제4장, 제6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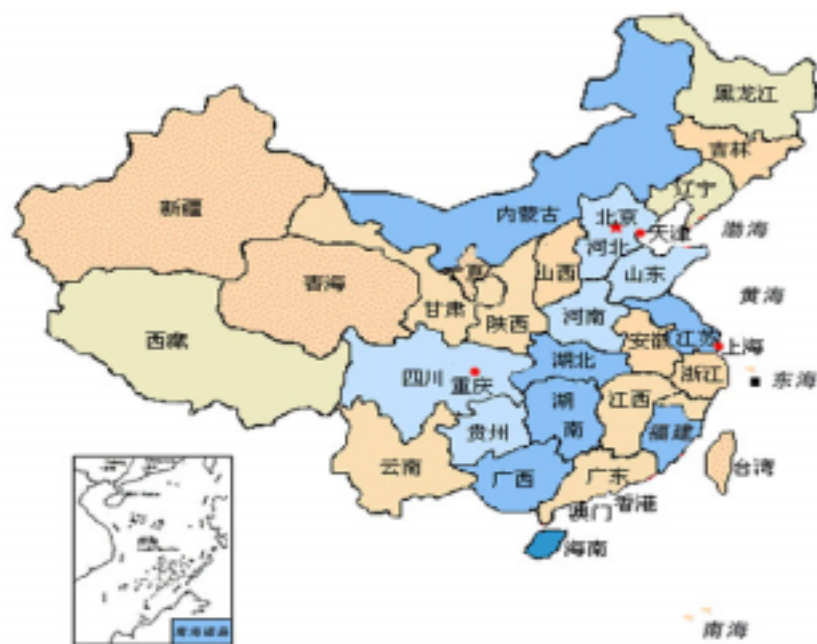
- 류 동 규 : 제3장, 제4장, 제6장

□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 김 시 호 (삼호 F&G 무역부문장)

◆ 명 노 헌 (해양수산부 무역진흥담당관실 사무관)

◆ 윤 형 석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 상무)



머 리 말

WTO체제의 강화와 소지역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을 바탕으로 세계의 수산물 교역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시장의 자유화, 개방화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 또는 완전철폐를 통하여 무역을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회원국 상호간의 이익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 최대의 수산물 수출입국이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수산물 무역에 있어서 우리의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과 중국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자국 수산물의 수출확대와 연관시키기 위해 민간과 정부는 공동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수산물 수입국으로서만 인식되어 오던 일본이 범정부 차원에서 종래의 수입억제정책에서 공격적인 수출촉진정책으로 전환하여, 우리나라 및 중국을 비롯한 세계의 수산물 시장을 겨냥하여 수출확대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산물 수출촉진정책의 행동계획으로 2004년 4월에 농림수산물성 장관 직속기관으로 수출촉진실을 설치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27일에는 고이즈미(小泉) 일본수상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관계자가 대거 참석하여 범정부 차원의 ‘농림수산물수출촉진전국협의회’를 설립하였으며, 이 협의회를 중심으로 “수비에서 공격으로”라는 농림수산물수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주의 체제의 장점을 접목시켜 국가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정부도 수산물 수출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2년 중국은 세계 수산물 수출 1위에 올라섰으며, 우리나라에도 수산물 수출을 매년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산업도 한 때는 일본과 중국에 열등하지 않는 수출산업으로서 한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2001년을 기점으로 유

사 이래 처음으로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나라의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폭은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금년 2005년도에는 수산물 수입이 상반기에 벌써 12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나, 수출은 6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금년도에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일본으로부터 수산물 수입이 늘어나고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 추세도 멈추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수입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WTO 체제의 강화, FTA의 확산을 중심으로 한 세계시장의 개방화, 자유화라는 시대의 흐름은 보호무역주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그 동안 수출축진보다는 수입억제를 위해 정책적인 공리를 많이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수산물 수출에 대한 정책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중국은 세계의 수산물 생산량에서 3할 이상을 차지하는 생산대국이지만, 늘어나는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국내생산의 촉진뿐만 아니라 주변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3년간 약 20%라는 놀랄 만한 중국의 수산물 수입 증가추세는 그러한 예상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중국은 머지않은 시기에 수산물 수출국가에서 수산물 주요 수입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과제는 중국을 수산물 생산대국이자 수출대국으로서가 아니라 미래의 수산물 거대 수입국으로 간주하여 향후 수산물 수입 초과 시에 대비하여 대중국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된 과제입니다.

아무쪼록 이 연구결과가 우리나라의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폭의 조정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산물 거대 수입국으로서 중국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산물 수출정책의 이정표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이 연구결과가 정책 입안자 및 수산물 생산업계, 수출업계의 종사자들에게도 의사결정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05년 12월

韓國海洋水產開發院
院長 李 正 煥

목 차

ABSTRACT	i
----------	---

요 약	iii
-----	-----

제1장 서 론	1
---------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4
3. 연구의 대상과 방법	6

제2장 중국의 수산물 시장개방화 동향	9
----------------------	---

1. 수산물 시장개방화 논의동향과 쟁점	9
1) WTO 수산물 시장개방화 논의동향 / 9	
2) 자유무역협정 확산과 수산물 시장개방화 / 13	
2. 중국의 수산물 시장개방정책 동향	16
1) 중국의 WTO 가입과 수산업 / 16	
2) WTO 가입과 중국의 수산물 시장개방정책 변화 / 20	

제3장 중국의 수산물 수급현황과 유통구조	25
------------------------	----

1. 중국의 수산물 수급현황과 특징	27
1) 중국의 수산물 공급측면 / 27	

2) 중국의 수산물 수요 측면 / 37	
2. 중국 수산물 수요전망	45
1) 수산물 수요 분석방법 / 45	
2) 수산물 수요분석 결과 / 48	
3. 중국의 수산물 유통과 가공	51
1) 중국의 수산물 유통구조 / 51	
2) 중국의 지역별 수산물 유통현황 / 55	
3) 중국의 수산물 가공현황 / 68	

제4장 중국의 수산물 수출입구조와 경쟁관계 ————— 74

1. 중국의 수산물 수출입 구조	74
1) 세계 수산물 시장에서 중국의 위치 / 74	
2) 중국의 수산물 수출입 구조 / 77	
2. 중국의 수산물 무역장벽	86
1) 중국의 수산물 관세장벽 / 87	
2) 중국의 수산물 비관세 장벽 / 93	
3. 중국의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국별 경쟁관계 분석	96
1) 중국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수산물 위치 / 97	
2) 국별 품목별 수입점유율 분석 / 103	

제5장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산물 수출확대방안 ————— 109

1. 중국의 수산물 수입확대요인	109
1) 국제적 요인 / 109	
2) 경제적 요인과 도시화 요인 / 110	
3) 국내생산 요인 / 111	
4) 국내소비 요인 / 113	

5) 수산물 수입구조적 요인 / 116	
2. 대 중국 수산물 수출확대방안	117
1) 기본방향 / 117	
2)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지역 선정 / 120	
3)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대책 / 122	
4) 기타 전략적 지원 / 128	
 제 6 장 결론 및 정책건의	131
1. 총괄	131
2. 정책건의	134
 부 록 - 중국시장에서의 품목별(HS 4단위) 국별 경쟁도	139
 참 고 문 헌	143

표목차

〈표 1-1〉 선행연구의 유형별 사례	5
〈표 2-1〉 중국의 FTA 추진 주요 대상국별 추진 단계	15
〈표 2-2〉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관세율 변화	19
〈표 2-3〉 중국의 WTO가입 전후의 대한민국 주요 수입수산물 관세율 비교	23
〈표 3-1〉 중국의 수산물 수급구조	25
〈표 3-2〉 중국의 수산물 생산량	28
〈표 3-3〉 중국의 수산물 수출입 물량	28
〈표 3-4〉 중국의 어업별 수산물 생산량	29
〈표 3-5〉 중국의 어업별 류별 수산물 생산량	30
〈표 3-6〉 중국의 주요 지역별(省別) 연도별 수산물 생산량	31
〈표 3-7〉 중국의 지역별 어업생산량(2003년 기준)	32
〈표 3-8〉 중국 해면어업 생산의 주요품목별 생산량 추이	34
〈표 3-9〉 총생산량 대비 양식생산량 및 비중	35
〈표 3-10〉 중국의 양식생산량, 면적 및 단위 생산량	36
〈표 3-11〉 중국의 수산물 소비량 증감 추이	40
〈표 3-12〉 중국의 1인당 어패류 소비량 증감 추이	41
〈표 3-13〉 중국의 연간 1인당 주요 부식품 소비량	42
〈표 3-14〉 중국의 수산물 소비량과 1인당 GDP	43
〈표 3-15〉 중국의 소비지수와 농축수산물 구매지수	44
〈표 3-16〉 중국의 농축산물 구매지수	46
〈표 3-17〉 중국의 수산물 소비량	47
〈표 3-18〉 중국의 국내총생산	47
〈표 3-19〉 연도별 수산물 수요 추정량	51

〈표 3-20〉 중국의 시장 현황	53
〈표 3-21〉 중국의 연도별 식품별 거래금액	53
〈표 3-22〉 중국 수산물 소비자 가격지수	54
〈표 3-23〉 중국의 수산물 도매 물가지수	55
〈표 3-24〉 상해시 어류 공급유형 및 물량(2000년 기준)	58
〈표 3-25〉 상해시민 소득현황	62
〈표 3-26〉 시구 대중형 도소매거래의 주요상품매출 및 재고총액	65
〈표 3-27〉 상품거래시장의 교역량	65
〈표 3-28〉 중국수산가공품구조의 변화	71
〈표 4-1〉 세계의 수산물 수출 현황	75
〈표 4-2〉 수산물 수입현황	76
〈표 4-3〉 중국의 수산물 무역수지 추이	78
〈표 4-4〉 중국의 상위20개국 수산물 수출실적 추이	79
〈표 4-5〉 중국의 대한국·일본 수산물 수출현황(2002년)	80
〈표 4-6〉 중국의 수산물 수입실적: 상위 20개국 추이	82
〈표 4-7〉 중국의 주요 수산물 수입실적(상위 20개 품목, 2002년)	83
〈표 4-8〉 중국의 대한·대일 수산물 수입실적(2002년 기준)	84
〈표 4-9〉 중국의 수산물 실행관세율 구조	89
〈표 4-10〉 중국의 수산물 HS 4단위 03류 실행관세율 구조	91
〈표 4-11〉 중국의 대한국 주요 수입수산물 관세율 구조	92
〈표 4-12〉 WTO의 비관세 장벽 분류	93
〈표 4-13〉 중국의 주요 비관세 조치 유형	94
〈표 4-14〉 한국의 대 중국 수산물 교역현황	97
〈표 4-15〉 중국의 국별 수산물 수입동향(HS 03류 기준)	98
〈표 4-16〉 주요국의 중국수산물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99
〈표 4-17〉 국가별 HS 4단위 분류별 중국시장 점유율(2004년)	100
〈표 4-18〉 한국의 대중국 수출 수산물의 구성비 변화추이	102

〈표 4-19〉 중국시장내 6대 경쟁국과 한국 수산물간의 경쟁도	105
〈표 4-20〉 중국시장내 우리나라가 류별 경쟁해야 하는 최대 경쟁국 ...	108
〈표 5-1〉 수산물 소비와 소득간의 상관관계	115
〈표 5-2〉 양식수산물의 전략적 분류 및 수출전략품목 육성	125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8
〈그림 3-1〉 중국 수산물 생산의 세계적 위상	26
〈그림 3-2〉 중국의 어업별 수산물 생산량 추이	29
〈그림 3-3〉 중국의 전년대비 소비량의 증감률과 1인당 GDP의 증감률	43
〈그림 3-4〉 중국의 소비지수와 농축수산물 구매지수	44
〈그림 4-1〉 최근 3년간 각국의 수산물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	76
〈그림 4-2〉 최근 3년간 각국의 수산물 수입 연평균 증가율	77
〈그림 4-3〉 중국의 HS 03류의 수입 추이	86
〈그림 4-4〉 중국의 1604류와 1605류의 수입 추이	86
〈그림 4-5〉 대중 수출의 비관세 장벽 유형별 실제 경험 사례	95
〈그림 4-6〉 중국시장내 6대 경쟁국과 한국수산물의 경쟁도 추이	106
〈그림 5-1〉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산관연 협력체계	119
〈그림 5-2〉 대 중국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기본방향	119
〈그림 5-3〉 중국의 주요 성시별 1인당 GDP 비교	120
〈그림 5-4〉 대 중국 수산물 수출확대를 전략지역(사례)	121

ABSTRACT

Changes in the world seafood market is accelerating due to market openness and the free movement of seafood. In a swirl of change, major fisheries countries have been reforming their fisheries trade policies so they can adjust themselves in accordance with the fisheries market situation in order to get more benefits from open trade policies. Korean, Japanese and Chinese governments are also looking to expand seafood exports.

In order to expand seafood export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search for a country that is expected to have an imbalance of seafood supply and demand. Simultaneously, the information gathered from research is reflected in developing policies for seafood free trade. The Korean government also supports decision-making by local seafood industries.

Chinese fisheries production accounts for 30 percent of the world total production. Facing radical economic growth and increase in seafood demand, China is expected to accelerate local seafood production and import seafood from neighbor countries when its supply is not enough to meet domestic demand. The fact that seafood imports in China have increased by approximately 20 percents in the past 3 years supports the above expectation. In other words, if the import trend continues, the status of Chinas fishery in the world will be transformed to an import country. In the sense, this study is suggesting a policy of expanding seafood exports to the Chinese market.

Accounting for a purchasing power of 1.3 billion people, geographical adjacency to Korean and cultural similarity, we need to thoroughly prepare

to penetrate Chinese fisheries markets. Promoting seafood exports to China will lead to enlivening Korea's domestic fishery industry.

Despite expectations for an increase in seafood demand, there has not been a study on the Chinese seafood market till now. It is necessary to conduct systematic research of how to make inroads into the Chinese seafood market.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set up a seafood trade policy based on practical and scientific research, not rough estimates.

China is a geographically huge expanse. Provinces in China show different seafood consumption patterns in accordance to economic developments. Therefore analysing china as a whole country is inefficient and can lead to unreliable conclusions.

Firstly, this study will review a picture of the whole chinese seafood market and then conducts research by province. Finally it suggest guidelines for exporting domestic seafood to Chinese markets.

To obtain these objectives, chapter 2 will analyse Chinese policies on seafood market openness by examining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documents. Chapter 3 is about Chinese fishery production, streaming of seafood distribution, and seafood consumption patterns and also explores chinese seafood demand. Chapter 4 analyses Chinese seafood export and import structures including examination of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This is accomplished through interviewing credible chinese seafood experts and local business practitioners. Finally, Chapter 4 analyses competition in relation to major countries exporting to Chinese markets, and compare it with Korea. We try to assess competitor country potential seafood to Chinese seafood markets.

With the above analysis, Chapter 5 identifies primary factors for China to import seafood gradually and suggests alternative policies to expand exports to China.

제1장 서론

- 중국은 세계의 수산물 생산량에서 약 3할을 차지하는 생산대국이지만, 늘어나는 수산물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국내생산의 촉진뿐만 아니라 주변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최근 3년간 약 20%라는 놀랄 만한 중국의 수산물 수입증가 추세는 그러한 예상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즉, 중국은 머지않은 장래에 세계 수산물 무역시장에서 주요 수입국가의 전환을 예상할 수 있으며, 13억 인구의 거대국가인 중국이 지닌 시장 잠재력과 우리나라가 지닌 지리적·문화적 근접성을 고려할 때, 국내산 수산물의 수출촉진과 자유시장권 형성으로 국내 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수산물 시장에 대한 사전 대비가 시급함
- 이와 같이 중국의 수산물 수입확대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수산물 수출확대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는 한 번도 수행되지 않았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수산물 시장개방정책, 수산물 수급현황과 특징, 수산물 수출입 구조, 수산물 수요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수산물 시장에 있어서 수입확대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수산물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본방향과 수출확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임

제2장 중국의 수산물 시장개방화 동향

- 중국은 1950년 GATT 탈퇴 후 회원국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1986년 7월 GATT로의 복귀를 신청한 이후, 1999년 11월 15일 WTO 가입을 위한 중·미 양국 협상이 타결, 2000년 5월 25일 미국 하원, 9월 19일 상원에서의 중국 PNTR 법안 통과, 이로써 1986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GATT/WTO 가입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1979년 미·중 수교이후 양국 관계의 새로운 역사적 시대가 도래함
- 장기간 중국의 지도부는 전략적 득실을 고려하여 반드시 WTO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지를 굳히고 국내외의 반발을 물리치며 가입을 꾸준히 추진하였음. 그리하여 WTO 가입으로 중국이 이행해야 할 협상조항은 일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자주적으로 이행하게 될 내용임
- 중국의 WTO 가입으로 변화되는 몇 가지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WTO 가입을 위해 중국정부는 우선 수입 관세를 낮추고 WTO의 규범에 맞추어 수입수량 제한이나 기타 비관세 장벽을 점차 철폐하는데 동의했는데, 이는 불가피하게 수입품의 증가를 통해 중국내의 가격경쟁을 심화시킬 것임
 - 1999년 말 현재 중국의 공산품(수산물, 임산물 포함) 평균관세율은 16.8% 정도임.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2005년까지 9.4%로 낮추는 데 동의하였음
 - 수산물 적용관세는 20% 수준에서 10% 수준으로의 인하에 동의하였음. 또한 정부가 수입허가 등 비관세수단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상품품목에 대해서도 수량제한을 해제하고 점차 WTO 규범에 따라 관세화하는데 동의하였음
- 그러나 중국 정부는 WTO 가입을 전제로 오랫동안 관세인하를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관세인하로 인한 중국의 수입을 증대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제3장 중국의 수산물 수급현황과 유통구조

- 중국의 수산물 생산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 1990년 14,779천 톤이었던 생산량이 2001년에는 43,613천 톤으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 중국의 수급현황은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양식어업의 발전과 유통체계의 개선으로 공급이 수요를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중장기 중국의 수산물 수요를 추정해 보면 가까운 미래에 수요가 공급을 압도할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됨
 - 아래의 표의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추정치를 보면 그 증가세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2002년 기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중·일 「식품수급표」에는 연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한국 58.8kg, 일본 66.4kg이지만 중국은 25.6kg 정도로 절반 수준에도 아직 못 미치나, 아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앞으로 10년 후인 2015년에는 1인당 수산물의 연간 소비가 46.1kg으로 한국, 일본과 비슷한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중국의 연도별 수산물 수요 추정량〉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인당 소비량 (Kg)	31.7	33.1	34.5	35.9	37.5	39.1	40.7	42.4	44.2	46.1

- 중국의 수산물 유통체계를 살펴보면, 1985년부터 정부 주도의 수산물 일괄구매 일괄판매 방식을 포기하였으며, 1992년부터는 수산물시장을 완전 개방하여 국유업체, 단체 및 합작업체, 개별업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국유업체는 국유 수산물 판매기업과 산하 수산물 가공공장 및 국유 부식상점 등을 포괄하여 자금, 인력, 기술, 신뢰성 등에서 수산물 유통의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여 오랫동안 수산물 유통의 주요 경로가

되어왔으나, 수산물 시장개방 이후 이들 국유업체들은 수산물 유통체계에서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

- 단체 및 합작업체는 주식회사 형태로서 통일된 경영과 재무관리 및 손실에 대한 주주부담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이러한 시장 중심의 경영형태는 수산물 유통에 있어서 그 역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
 - 마지막으로 개별업체는 개별적으로 가공, 운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상인과 자급자족을 하는 상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국유기업 혹은 대기업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어 시장점유율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강도 높은 노동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며 일의 규모가 비교적 작아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신선할어 유통분야에는 다른 형태의 업체보다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중국의 전통적인 수산물 유통시스템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중간도매상에 의한 거래, 자가소비 등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나, 최근에 생산과 판매를 연합한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유통시장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
- 이러한 형태의 유통은 생산, 가공, 소매(판매)의 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서 국유 수산가공기업과 생산자, 도·소매 영업조직의 연합 방식 또는 농촌기업과 사기업, 그리고 해당 농촌기업의 수산물 생산자 및 어업공사가 연합한 방식이 있으며, 수산물 생산자와 가공기업, 도매시장이 계약을 통해 연합하는 방식이 있음

제4장 중국의 수산물 수출입 구조와 경쟁관계

- 중국은 국토가 광대한 까닭에 수산물의 수출입은 지역적으로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으며, 특히, 수산물 수출지역과 수입지역의 구분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음
 - 북경과 상해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매년 수산물 소비 증가에 따라 인근 해관을 통하여 수입되는 수산물이 증가하는데 반하여, 수산물 주요 생산지인 산둥, 요녕, 관동 지역에서는 해면 어로어업과 해면 양식 및 내수면 양식의 증가로 인하여 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산물의 수출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음
- 중국의 수산부문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2003년 기준 수산물 수출은 약 5,237백만 달러이고 수산물 수입은 1,861백만 달러로 3,376백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수산물 무역수지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추세와 함께 수입금액도 1999년 약 9억 달러에서 2003년에는 약 19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활어(0301류)의 경우 중국 시장내 우리나라의 최대 경쟁 국가는 일본이며, 0302류 역시 일본이 우리나라 최대 경쟁국가임. 따라서 우리나라가 활어(0301류)와 신선·냉장어류(0302류)를 중국에 수출할 때 일본상품과 경합을 벌일 것으로 추정됨
 - 0303류 냉동어류의 대중국 수출 최대 경쟁국은 러시아이며, 0304류의 어류 피렛트 상품은 미국으로 분석되었음
 - 0305류와 0306류에 대해서는 모두 캐나다가 우리나라의 최대 경쟁국으로 나타났으며, 연체동물과 수생무척추동물에 해당하는 0307류의 경우 최대 경쟁국은 미국으로 나타났음
 - 1604류의 경우에는 러시아와 미국이 동시에 중국시장내 우리나라의 최대 경쟁국으로 분석되었으며, 1605류는 캐나다, 2301류는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최대 경쟁국으로 분석되었음

제5장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산물 수출확대방안

1) 기본방향

- 대중국 수산물 수출확대방안에 대한 기본방향으로서 첫째, 산-관-학 연 체제의 구축과 기능분담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중장기 계획, 이른바 수산물 수출배증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소지역 별 시장조사를 통하여 전략품목을 발굴하고, 발굴한 전략품목의 수출확대방안을 모색해 나감

2)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지역 선정

- 중국의 수산물 수급분석에서 중국인의 지속적인 수요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역별 소비자의 선호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음. 또한 전체적으로 중국의 경제발전 및 수송수단의 현대화, 수많은 수산물 도매시장의 건설,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냉장, 냉동시설의 증가 등으로 수산물 소비에 대한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아직도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수산물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매우 큼
 - 특히, 중국은 개혁개방의 진전과 함께 각 권역 경제의 중요성이 변화되어 왔으며, 외자유치 및 수출입 규모, 대외개방 정도 등의 차이로 각 지역간 경제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수산물 대 중국 수출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각 권역별 경제 특징과 발전 현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즉, 중국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소득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으며, 특히, 상해의 경우 2003년 1인당 GDP는 5,642 달러로(중국내 성단위 1위) 중국 전체 평균치(1,090달러)의 5배를 상회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은 지방정부별로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뿐만 아니라 수산물 소비형태도 크게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또는 도시별), 계층별, 연령별 소비형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
 - 즉, 북부 지방의 소비자는 주로 가공 또는 냉동품을 선호하며 요리하기를 즐기지 않는 성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부 지방의 소비자들은 활선어를 선호하며, 주부들은 가정에서 요리하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따라서 중국을 대상으로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 및 계층뿐만 아니라 시간적 변수도 고려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중국 수산물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및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임
 - 그러므로 중국시장을 목표로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동부 지역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동부 지역에서도 단기적으로 북부는 냉동, 가공품을, 그리고 남부는 활선어, 고급 활패류, 갑각류 등을, 장기적으로는 북부에는 냉동, 가공품 및 활선어를, 남부는 활선어를 포함한 고차가공 및 기능성 수산물을 전략품목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3)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대책

- 제도적 지원 및 개선 : 중국을 대상으로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으로 수산물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예를 들면 「(가칭)수산물무역진흥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수출수산업의 경영안정과 수출수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함
 - 그리고 수출에 방해가 되는 각국의 수산물 수입에 관한 여러 제도 등의 개선을 꾀하기 위해 각 나라별 수출 저해 요인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과 함께 통상교섭 등에서 수출확대가 기대되는 품목의 시장접근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또한 수출 상대국의 요구에 맞은 검역조

건 등의 준비를 추진해야 함

- 지역의 특산물과 연계 지원 : 대중 수출전략품목의 산지 육성하여 지역의 특산물과 연계시켜 효율적인 추진이 되도록 하여야 함. 중국의 소비자 선호도를 우선 조사하고, 소비자의 선호에 맞는 수산물을 생산, 가공하는 업체에 대해 지원하도록 해야 함. 이와 더불어 수산가공의 신기술이나 신품종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국 수출수산물 기지 조성, 수출촉진을 위한 가공식품의 창출이나 기술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수산식품산업대책, 그리고 품질유지를 위한 기술개발이나 품목의 특성에 따른 수출촉진방법 강구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상품성 제고를 위한 수출수산물의 공급기반 구축 지원 : 연근해 어로어업부문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부문에서 생산된 상품은 수출공급의 가장 큰 결정력을 지니고 있음
 - 안정적·지속적 어업생산을 통한 수산물 수출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 자원관리 체제를 구축, 상품성 제고를 위한 어업 생산기술 개발 고도화, 자원의 합리적 관리·이용을 위한 정책수단의 강구가 필요함
- 환경친화적 양식수산물의 지원 : 국내 양식수산물의 중국시장내 점유율 유지와 비교우위 확보를 위해 첫째, 양식품목의 전략적 분류와 선별적 육성, 둘째, 지역별 특화양식 품목의 조정 및 단지화, 셋째, 어장이용의 적정화와 우량어장 확보, 넷째,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안정성 및 품질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을 통하여 중국과 일본의 양식수산물과 차별화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지역브랜드 수산물의 수출 상품화 지원 : 어장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양식어업의 능률화 및 품목별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비교우위에 입각한 양식품목의 지역별 재조정을 통한 특화품목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특정 지역의 특정 수산자원을 활용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저차가 공품을 수입하여 고차가공품으로 개발하는 등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도록 해야 함

- 한류-한식-수산물 지역브랜드=수출브랜드의 지속적 홍보 지원 : 지역 브랜드 수산물을 한류 붐과 연계시키고, 지역의 브랜드가 국제적으로도 수출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사후관리가 필요함. 또한 브랜드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후관리방안으로 (가칭)우수수산물제도 (GFP)를 도입하여 종합적으로 연계시켜 추진해나가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수출자금지원제도의 개선 : 경쟁력 우위 또는 그 유지가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생산설비의 확충, 원재료의 안정적 확보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산·관·학·연 공동연구의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수출품목 개발 지원 : 오늘날과 같은 무한 경쟁시대에 있어 사업의 사활은 제품의 경쟁력 제고에 달려있는데, 이러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산·학·연·관 협동연구의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음. 특히, 당해 지역 소재 수산계 대학과 연계한 산·학·연·관 지역컨소시엄을 우선적으로 구성해야 함

4) 기타 전략적 지원

- 1997년 1호점 개설 후, 지금까지 3호점을 개설한 한국산 대형유통업체인 이마트와 연계하여 수산물 수출을 추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수산물-한식문화-한류를 하나의 상품으로 연계시켜 정부의 지원하에 정부-업계-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수산물 수출확대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공유하고, 수산물 수출확대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관계부처를 비롯한 지방자치체나 민간단체 등을 포괄하는 (가칭)전국수산물수출확대추진

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1. 총괄

- 중국의 수산물 수입확대요인을 요약하면, 첫째, 지속적인 수산물 수요 증가 예상 : 10년 후인 2015년의 중국의 1인당 수산물의 연간 소비가 46.1kg으로 2002년의 한국(58.8kg)과 일본(66.4kg)에 약간 못 미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중국의 인구를 고려한 수산물 수요를 분석한 결과는 수산물 소비시장으로써의 중국의 발전가능성을 충분히 예상 가능케 함
- 둘째, 중국은 WTO 가입으로 수산물 관세양허 일정에 따라 수산물 관세 인하에 병행하여 수입수량제한이나 기타 비관세 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중국으로의 수산물 수입을 불가피하게 증가시키게 될 것이며, 이는 중국내의 가격경쟁 및 품질경쟁을 심화시키게 될 것임
- 셋째,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경제발전의 효과는 동부 연안 전역으로 빠르게 과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서서히 내륙으로도 전파되고 있음. 경제발전은 중국인의 식문화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새로운 외식문화 및 새로운 식품유통 문화를 요구함
- 넷째, 중국은 세계 제1위의 어업생산국이지만, 과잉어획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수산물 생산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중국 정부는 수산물 수급에 대한 불균형을 크게 우려함
- 다섯째, 중국의 1인당 어패류 소비량은 1980년에 세계 평균치의 반이 되지 않는 5.2kg이었던 것이 1990년에 11.5kg, 2000년에는 25kg으로

증가, 세계평균치 16kg의 1.5배 일본의 평균치 63.2kg의 약 4할에 달함. 이러한 수산동물성 단백질의 섭취 증가는 소득과 생산수준의 향상을 전제로 한 식생활의 구조적 변화를 크게 반영함. 최근에 도시주민의 수산물 소비성향은 담수어에서 해산어로, 대중어에서 고급어로, 그리고 건어물·가공품에서 선아·냉동품으로 변화하고 있음

- 여섯째, 최근 3년 동안의 수산물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중국은 매년 수산물 수입이 약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음. 중국의 HS 4단위별 수산물 수입추이를 보면, 1605류, 0302류, 1604류, 0303류 순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정책건의

- 전체적으로 중국은 수산물 소비시장으로써 잠재력은 대단히 큰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지역별 선호도에 있어서도 동부와 서부, 동부에서도 북부와 남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도 확인되었음
 - 이에 따라 현시점에서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수산물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매우 큼
- 중국진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수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한 단계적 수출확대가 바람직하며, 이와 병행하여 중국 수출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 중국진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1단계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의 연구기관에 의한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 2단계로 부경대, 한국식품연구원 등에 의한 수출전략품목의 개발 및 업계의 해외시장개척을 추진하고,
 - 3단계로 본격적인 수출마케팅을 추진하는 단계별 전략이 효율적일 것임
 - 대중국 수산물 수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중장기 수산물 수출확대정책 수립 필요 : 중국을 대상으로 수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수산물 수출을 추진한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너무 큼. 따라서 새로운 시장개척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차원의 중장기 수산물 수출확대정책 수립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임
- 둘째, 산관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의 공유추진(중국해양수산물센터) : 중국의 수산업 및 수산물 소비형태(지역별, 계층별), 유통구조, 선호도, 결제시스템, 거래제도, 유통관행, 수입관리장치 등에 대한 자료가 매우 부족하며, 자료수집도 곤란한 상황이므로 산-관-학-연을 연계시킨 중국의 수산물수출지원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보의 공유를 서둘러야 함.
- 셋째, 지역별(성(省) 또는 대도시별) 수출확대방안 수립 필요 : 중국은 광활한 국가로서 지방정부별로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뿐만 아니라 수산물 소비형태도 크게 다르기 때문에 「중장기수산물수출확대정책」에 의거하여 대중국 수산물 수출촉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별(省別)로 공략할 수 있는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 넷째, 중국의 동부연안지역을 전략수출지역으로 한정 필요 :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동부지역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동부지역에서도 단기적으로는 북부는 냉동, 가공품을 그리고 남부는 활선어, 고급 활패류, 갑각류 등, 장기적으로는 북부에는 냉동, 가공품 및 활선어를, 남부는 활선어를 포함한 고차가공 및 기능성 수산물을 전략품목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섯째,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 및 전문협의회 설치 필요 : ‘수비에서 공격으로’ 라는 수산물 무역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

하기 위해서는 「(가칭)수산물무역진흥에관한법률」 제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또한 수산물 수출확대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공유하고, 수산물 수출확대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관계부처를 비롯한 지방자치체나 민간단체 등을 포괄하는 (가칭)전국수산물수출확대추진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수산물 지역브랜드=수출브랜드 홍보에 한류 활용 필요 : 지역 브랜드로 수산물을 한류 붐과 연계시키고, 지역의 브랜드가 국제적으로도 수출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사후관리가 필요함. 또한 브랜드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후관리방안으로 (가칭)우수수산물(GFP)과 연계시켜 추진해나가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곱째, 국산 유통업체(중국 이마트)와의 연계를 통한 수출확대 : 1997년 1호점 개설 후, 지금까지 3호점을 개설한 한국산 대형유통업체인 이마트와 연계하여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마트와 연계하여 수산물-한식문화-한류를 하나의 상품으로 연계시켜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세계의 수산물 교역시장은 과거와는 달리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수산물 수출입국들은 이러한 빠른 변화를 자국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주변국가들도 세계시장의 자유화 흐름에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동안 세계 최대의 수산물 수입국이었던 일본이 범정부 차원에서 종래의 수입억제정책에서 공격적인 수출촉진정책으로 전환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세계의 수산물 시장을 겨냥하여 수출확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4년에 농림수산성 장관 직속기관으로 '수출촉진실'을 설치하여 수출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금년도 4월 27일에는 고이즈미(小泉) 일본 수상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관계자가 대거 참석하여 범정부 차원의 '농림수산물수출촉진전국협의회'를 설립하였으며, 이 협의회를 중심으로 일본은 '수비에서 공격으로'라는 농림수산물 수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수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도 수산물 수출을 통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수산물 수출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2004년에 처음으로 세계 수산물 수출 1위에 올라섰다. 그러나 중국은 수산물 수출증가에 못지않게 수입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며, 경제발전의 영향에 따라 건강식품인 수산물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의 건설과 수산물 냉동·냉장 시설의 현대화,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등은 소득증대에 따른 중국 소비자의 수산물 소비를 빠르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산업도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는 수출산업으로서 한국경제를 부흥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2001년을 기점으로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국으로 전락하였다. 그 이후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입 현상은 수입증가, 수출감소라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고 수산물의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우리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일본으로부터 역으로 수산물 수입이 늘어나고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 추세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산업계 및 정부도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결과는 긍정적이지 않다. 더욱이 금년도 전반기에만 벌써 12억 달러의 수산물 수입을 기록하였으며, 수입에 비해 수출은 6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금년도에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전략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수비에서 공격으로’라는 수산물 무역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수산물 수출확대 문제는 우선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하에 지역별 또는 국가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국가별로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수산물을 비롯한 식품수출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소비행태 및 선호도에 따라 수출품목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대상 선정에 있어서 시·공간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수산물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지리상으로 인접하고 있는 중국을 우선 대상국가로 선정하였다.

중국은 세계의 수산물 생산량에서 약 3할을 차지하는 생산대국이지만, 늘어

나는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국내생산의 촉진뿐만 아니라 주변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간 약 20%라는 놀랄만한 중국의 수산물 수입증가 추세는 그러한 예상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 다시 말하면 중국은 머지않은 시기에 세계 수산물 무역 시장에서 수산물 주요 수입국가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13억 인구의 거대 국가인 중국이 지닌 시장 잠재력과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지리적·문화적 근접성을 고려할 때, 국내산 수산물의 수출촉진과 자유시장권 형성으로 국내 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수산물 시장에 대한 사전대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수산물 수입확대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수산물 수출확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는 한 번도 수행되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은 공간적으로 광활한 국가로서 지방정부별로 사회경제적 발전정도뿐만 아니라 수산물 소비형태도 크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에 병행하여 지방정부별(省別)로 연차별 단계적으로 별도의 조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수산물 시장개방정책, 수산물 수급현황과 특징, 수산물 수출입 구조, 수산물 수요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수산물 시장에 있어서 수입확대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13억 인구의 중국 수산물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본전략과 수출확대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 중국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수산물 수입액이 평균 21.6% 증가하였으며, 수입수산물을 중량으로 살펴보면 1992년 44만 톤에 불과하던 것이 1999년 131만 톤(중국농업부통계)으로 7년 사이에 약300%의 수입이 늘어났다는 것임.

2.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부 또는 학계에서는 중국이 수산물 생산대국이자 수출대국으로서의 위치로 말미암아 중국에 대한 수출촉진 또는 확대를 위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의 조사는 수산물 수출업체에 의한 기업차원의 간헐적인 조사에 불과하였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수산물 수출입과 관련하여 발간되었던 연구보고서 또는 일반 간행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 김정봉 등(1996)은 「중국 수산업의 조사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수산물 교역, 어업협력 분야에 대한 대중국 수산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하여, 중국경제에서 수산업의 위치 파악, 어업분야별 자료수집, 중국의 수산물 수급전망(1995-2005), 중국의 수산업 발전과 한중 어업협력방안 등 시기적으로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다음 해에 김정봉(1997)은 “중국의 어업발전과 수산물 수급 분석”이라는 석사논문에서 중국수산물의 수급전망과 한·중 수산물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하였다. 그런데 전자와 후자의 논문은 대중국 수산물 수출확대방안에 관한 연구가 아니므로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수산물 소비형태 및 수출확대방안에 대한 연구대상과 구별된다. 또한 각 자료가 대상으로 하는 시점이 1995년 이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및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등을 고려한 새로운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해양수산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1999)는 「중국수산물시장동향」이라는 간행물에서 중국의 수산물 시장동향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후, 발해지역, 청도지역, 상해지역, 광주지역에 대해 출장보고서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대중국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 않다. 특히, 1998년 기준의 일반개황을 중심으로만 다루고 있어 6~7년이 지난 현재로서 정책담당자 또는 수출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는 가치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주문배(2004)는 「한·중·일 수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시장개방 대응

〈표 1-1〉 선행연구의 유형별 사례

연구제목	연구자	발행 연도	주요연구내용
중국 수산업의 조사연구	김정봉 외	1996	- 이 조사연구는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수산물 교역, 어업협력 분야에 대한 대중국 수산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중국 경제에서 수산업의 위치 파악, 어업분야별 자료 수집, 중국의 수산물 수급 전망(1995-2005), 중국의 수산업 발전과 한중 어업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임
중국 수산물 시장 동향	농수산물유통 공사	1999	-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중국의 문헌자료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중국의 수산물 시장동향을 정리한 자료이며, 발해, 청도, 상해, 광주지역에 대해 출장보고서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대중국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 않음. - 특히, 1998년 기준의 일반개황을 중심으로만 다루고 있어 6~7년이 지난 현재로서 정책담당자 또는 수출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는 가치가 낮음.
한·중·일 수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시장개방 대응방안	주문배	2004	- 이 연구는 한중일 3국간 수산업의 국제경쟁력과 수산업 구조분석을 통하여 경쟁관계를 명확히 하고, 시장개방화시대에 있어서 우리 수산업이 취해야 할 정책적 대응방안과 세계 수산물 교역시장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수출입 관리방안을 제시한 것이며, - 대중국 수출을 대상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본 연구와는 연구대상 및 목적이 다름.
계량경제모델 에 의한 중국의 수산물 수급구조에 관한 연구	包 特力根 白乙	2004	- 이 논문은 일반적인 수산물수요의 이론 모델을 토대로 종속변수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으로 독립변수를 1인당 소비지출, 수산물과 육류의 실질가격지수 설정하여 수산물 수요의 소득탄력성, 가격탄력성과 교차탄력성을 분석하여 중국에서 수산물이 정상재임을 밝혔음.

방안」에서 한중일 3국간 수산업의 국제경쟁력과 수산업 구조분석을 통하여 경쟁관계를 명확히 하고, 시장개방화시대에 있어서 우리 수산업이 취해야 할 정책적 대응방안과 세계 수산물 교역시장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수출입 관리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대중국 수출을 대상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하는 본 연구와는 연구대상 및 목적이 다르다.

넷째, 파오(包 特力根 白乙, 2004)는 「계량경제모델에 의한 중국의 수산물 수급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일반적인 수산물 수요의 이론 모델을 토대로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을 독립변수로, 1인당 소비지출, 수산물과 육류의 실질가격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수산물 수요의 소득탄력성, 가격탄력성과 교차탄력성을 분석하여 중국에서 수산물이 정상재임을 밝혔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국을 미래의 수산물 주요 수입국으로 가정하여 검토한 연구는 지금까지 전무한 실정이며, 관련되는 보고서 또는 간행물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이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정책자료로서는 활용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연구의 대상과 방법

중국은 수산물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세계 수산물 시장에서 머지않아 주요 수입국의 위치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수산물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단지 우리에게 대한 거대수출국으로서의 중국만을 간주해왔다.

미래의 수산물 주요 수입국으로서 중국,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수산물 주요 수출국으로서 중국에 대해 수산물 수출전략을 어떻게 수립하여 추진할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검토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공간적으로 광활한 국가로서 지방정부별로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뿐만 아니라 수산물 소비형태도 크게 다르기 때문에, 중국을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하여 검토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에 대한 실효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국을 하나의 국가로 간주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에 병행

하여 지방정부별(省別)로 연차별 단계적으로 별도의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을 대상으로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기본방향과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기초연구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선 제2장에서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한 중국의 수산물 시장개방화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FAO 통계자료, 중국정부의 공식통계자료, 중국 수산물의 생산, 유통통계 등 각종 통계자료 및 관련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중국의 수산물 생산, 유통가공 및 소비구조를 분석하였고, 또한 계량적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중국의 수산물 수요를 전망하였다.²⁾

제4장에서는 중국의 수출입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현지 전문가 면접조사를 통하여 소비형태 등에 대한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중국이 수입수산물에 대해 적용하는 무역장벽(관세, 비관세장벽)과 국내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요인 즉,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대 중국 수산물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제도적, 비제도적 요인을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비관세 장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2004, 주문배)와 관련 법제 분석을 통하여 대 중국 수산물 수출장애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수산물 수입시장에서의 수출국간 경쟁관계를 분석하여 대 중국 수산물 수출에서 경쟁이 되는 국가 및 품목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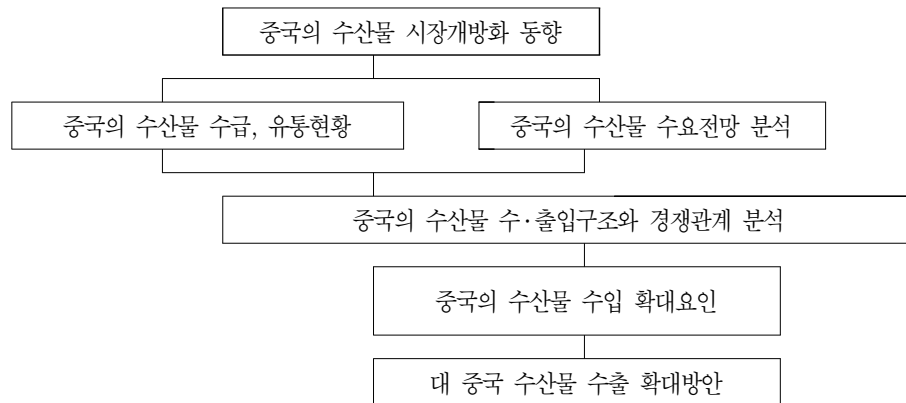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규범적인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제5장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수산물 수입확대요인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향후 대중국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수출확대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총괄하고, 중국의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수산물 수출확대방안으로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

2) 중국의 수산물 수급분석 모형은 김정봉, 고재모 외, 「중국의 수산업 조사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와 김정봉, 「중국의 어업발전과 수산물 수급분석」(한국외국어대학교석사학위청구논문, 1997)을 참조.

고자 하였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는 중국에 대한 지방정부별 수출유망품목을 구체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수산물 거대 수입국으로 중국을 간주하여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한정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추진체계와 흐름을 요약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제 2 장

중국의 수산물 시장개방화 동향

여기서는 중국의 수산물 시장개방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중국의 수산물 시장개방정책은 WTO와 FTA을 둘러싼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며,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 가입한 기점을 전후하여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WTO 및 FTA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세계 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논의동향을 간략하게 고찰하고, 그 다음으로 중국의 WTO 회원국 가입 배경과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 가입한 시점을 전후하여 중국의 수산물 시장 개방정책에 대한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미래의 수산물 수입확대요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1. 수산물 시장개방화 논의동향과 쟁점

1) WTO 수산물 시장개방화 논의동향

2001년 11월 확정된 DDA(Doha Development Agenda) 즉, 도하개발아젠다는 WTO체제 하에서의 이루어낸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 아젠다로 수산분야에서는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거나 무역을 왜곡하는 일부 수산보조금의 규제 문제와 수산물 관세 인하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2003년 9월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칸쿤 각료회의)에서 소기

의 협상결과를 달성하지 못하여 도하개발아젠다를 바탕으로 한 실행계획의 합의 및 이 합의에 의한 실행은 크게 지연되고 있다. 하여간에 수산물 관세인하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수산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수산보조금과 관련하여, 2002년에는 총 5차례의 협상(회의)이 스위스 제네바의 WTO 본부에서 개최되었는데, 수산보조금을 현행 체제대로 제조업, 임업 등 기타 산업의 보조금과 같이 다룰 것인지(general approach) 또는 별도로 다룰 것인지(sectoral approach)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미국, 뉴질랜드, 아이슬랜드 등을 주축으로 한 소위 'Fish Friends Group'은 수산보조금이 무역을 왜곡하고 자원을 고갈시키며, 현행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SCM)으로는 이러한 수산보조금의 부정적인 영향을 규제할 수 없으므로 수산보조금을 다른 보조금과 따로 분리하여 논의하고 별도의 규범을 제정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현행 SCM 협정으로 수산보조금의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다룰 수 있으며, 수산보조금은 제조업, 임업 등 기타 산업의 보조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2003년에는 미국, 칠레 등이 수산보조금 분류방식을 제시하는 등 수산보조금 문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규범 제7차 회의(3월 19일~21일)'시 미국은 제안서를 제출하여 직접적으로 과잉어획을 유발하거나 직접적인 무역왜곡효과를 가지는 수산보조금을 '금지보조금(red category)'에 포함시키고, 보조금 지급 국가가 동 보조금이 환경이나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규제대상이 되는 이른바 'dark-amber category'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으며, '규범 제8차 회의(5월 6일~8일)'시에는 EU가 제안서를 제출하여 어선건조 지원 및 제3국으로의 어선 수출 지원 등 어획능력을 증강시키는 보조금을 금지하고 어업인 전직 지원, 어업능력 감축 등은 '허용보조금(green category)'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5차 각료회의(2003년 9월)'가 각료선언문이 채택되지 못하고 폐막되었으나, 수산보조금은 의제 파악 단계에서 해결방법 모색 단계로 전환기로 상당부

분 의견수렴이 이루어졌으며, 수산보조금 분류(금지, 허용) 및 규제방법(폐지,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 개정협상을 예정하였다.

2005년 11월 논의된 수산보조금 협상은 지난 7월 패키지 합의 이후 WTO 규범 협상그룹에서 수산보조금 규율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6개국 공동으로 수산보조금에 대한 새로운 규율방안으로 포괄적 금지를 제안(TN/RL/W/166)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수산업에 혜택을 주는 보조금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금지에 대한 예외를 정하자는 것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접근 방식은 수산보조금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므로 수산보조금 협상의 기본 틀이 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수산보조금이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서 무역을 왜곡한다고 하는 바는 아직 성립되지 않으며, 긍정적인 수산보조금도 많이 존재한다. 특히, 수산보조금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어업 구조조정, 지속가능 어업 실현, 어업인의 생계확보, 식량 안보를 비롯한 각국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사전에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미래의 불확실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수산 보조금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금지할 경우, 보조금의 무역왜곡효과에 의해 규율되는 제조업 보조금과 현저하게 균형을 잃게 되며, SCM 협정의 기본 틀 내에서 수산보조금을 규율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규율은 수산보조금이 야기하는 부정적 효과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우리나라는 주장하였다.

금년 12월에 개최되는 제5차 WTO 각료회의(홍콩 각료회의)에서는 그 동안 공식,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WTO/DDA 협상의 성과물을 확인하고, 아울러 향후 협상진행 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수산보조금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수산물 주요 수출국가인 노르웨이, 뉴질랜드의 전면적 보조금 금지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우리나라, 일본, 대만의 팽팽한 대립으로 큰 진전은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물 시장접근과 관련해서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 결과, 수산물 시장접근 협상은 공산품, 임산물과 함께 비농산물 시장 접근분야에서 이루어지도록 결정되었다.

2002년도에는 관세인하방식 타결을 위하여 미국, 일본 등이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특히 미국은 2010년까지는 스위스 공식을 사용하여 전 품목의 관세를 8%이하로 인하하고, 수산물 등 국제거래가 많은 17개 품목은 무세화하는 한편, 2015년까지는 비농산물 전 품목을 연차별 균등감축을 통해 무세화하자는 제안을 하여, 캐나다·뉴질랜드·칠레 등이 동조하였으며 이에 우리나라와 일본은 반대하였다.

2003년 5월 16일 ‘Girard’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그룹의 의장은 협상방식 결정 타결시한인 5월 31일을 앞두고 의장초안을 배포하였다. 동 초안은 200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i)관세감축 공식(formula), ii)분야별 무세화(sectorial tariff elimination), iii)개도국 특별 고려(S&D), iv) WTO 신규 가입국 배려, v) 저율관세(low duties)철폐 등을 주요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관세감축의 경우, 의장초안은 첫째, 모든 품목을 감축 대상으로 하되, 높은 관세율은 감축 폭을 크게 하고 낮은 관세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하는 변형된 ‘스위스 공식’을 제안하면서, 둘째, 개도국 및 최빈국의 수출관심분야인 수산물, 전자와 전기, 신발류, 자동차부품, 가죽제품, 광석과 보석, 섬유·의류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무관세화를 제시함에 따라 초안대로 협상이 타결될 경우 국내 수산업계에는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앞으로 의장초안을 중심으로 ‘협상 세부원칙(modalities)’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계속될 예정이지만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각료회의’에서는 ‘Girard’ 의장초안은 협상의 기초가 아닌 ‘참조(reference)’로 완화되고, 무세화 대상품목 등은 추후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므로 이후 협상안에 대한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품목별 양허 여부, 관세 인하 폭, 이행기간 등 구체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12월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도 수산물 관세는 일정 수준 인하하는 것이 불가피한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다. 칸쿤 각료회의 이후, 수산물 관세가 속해있는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그룹에서 그간 주요국들의 협상진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또한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은 농업 협상과 맞물려 진행되므로 농업협상의 핵심요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큰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각료회의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으며, 주요국가의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주요쟁점에 대한 협상이 가속화 될 경우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 자유무역협정 확산과 수산물 시장개방화

자유무역주의의 확산 추세에 따라 지금까지 소지역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국가들도 세계의 경제블록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동시에 세계경제의 통합에 대비하여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FTA 확산이 전세계적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5년 11월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전세계 지역무역협정(RTA)의 체결 건수는 186건이다. 지역무역협정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이 12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서비스 협정이 33건, 개도국간 협정이 22건, 관세동맹이 11건으로 집계돼 FTA를 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과 비교해서 FTA는 멕시코-니카라과 FTA, 터키-튀니지 FTA, 크로아티아-세르비아몬테네그로 FTA, 터키-PLO FTA 등 4건이 추가됐으며, 서비스협정 1건, 개도국간 협정인 ECOWAS(서아프리카 제국 경제 공동체)도 1건 추가됐다.

지역무역협정의 지역별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주의가 활발한 유럽에서의 체결 건수가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시아의 경우 지역주의의 태동이 타 대륙에 비해 늦었지만 최근 지역무역협정 체결 추진이 가속화돼 27건을 기록

했으며, 미주지역은 22건, 아프리카는 6건, 대양주 지역은 4건으로 집계됐다. 지역주의 흐름은 같은 대륙내에서만 아니라 서로 다른 대륙간에서도 활발해져서 대륙간 지역무역협정의 체결도 59건이나 기록됐다.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시기별 추이를 살펴보면, 지역주의 흐름이 대두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그 건수가 급증했다. 현재 집계되고 있는 186건의 지역무역협정 가운데 전체의 67%에 해당하는 126건이 90년대 후반에 체결됐다

따라서 FT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출주도형인 우리 경제는 고립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년내 세계에는 대륙차원의 2개의 거대한 무역블럭(EU 동진, 범미주 34개국의 FTAA)이 출현하고, 타 대륙간 FTA에 EU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인도, 태국, 미국, 멕시코, 칠레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ASEAN과 FTA 조기 체결을 위해 중국, 일본, 미국, 인도 등이 물밑으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FTA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NAFTA, EU 등의 경험에서 볼 때 협정 범위가 확대되고 심화됨에 따라 관세철폐 효과에 그치지 않고 시장확대에 따른 무역창출과 외국인 투자유치, 개방과 경쟁에 따른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FTA에 의해 확대된 경제협력이나 정치경제관계 강화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도 ASEAN과 2010~2015년까지 FTA를 맺기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한중일은 FTA 체결을 목표로 2003년도 3국 공동 연구과제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중국은 2002년 아세안 국가와의 FTA 협상을 시작으로 18개국과 FTA 협상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은 관세자유화 카테고리별 조기 관세자유화 분야, 일반 분야, 민감 분야로 구분하고 대부분의 수산물 즉, 03류에 대해서는 조기에 자유화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조기관세화 품목에 대하여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을 WTO 가입국과 WTO 비가입국으로 구분하여 WTO 가입국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 WTO 비가입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대해서는 늦어도 2009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도록 합의하였다.

〈표 2-1〉 중국의 FTA 추진 주요 대상국별 추진 단계(2005년 10월기준)

대상국	주요 추진 경과
아세안	FTA체결 기본협정 서명으로 FTA 체결 공식화 - 중국-ASEAN 경제협력에 위한 연구협력 제안(2000. 11) - 중-아세안 10년내 FTA협정 발효 합의(2001. 11) - FTA 체결을 위한 기본협정 서명(2002. 11) - FTA 상품협상 최종 합의(2004. 11) - FTA 발효(2005. 7)
한국	연구·논의 단계 - 한중일 FTA 공동연구 제의 (2002. 11) 국무원발전연구중심 내 한중일 경제협력 연구팀 구성 - 한·중 FTA 민간 공동연구 합의(2005.3)
호주	- ‘중국·호주 공동무역경제체제’ 결성(2003.10) - 1차 협상(2005.5); 2차 협상(2005.8)
칠레	중국·칠레 FTA 협상 중 - 1차 협상(2005.1); 2차 협상(2005.4); 3차 협상(2005.6)
뉴질랜드	중국·뉴질랜드 FTA 협상 중 - 1차 협상(2004.12); 2차 협상(2005.3) 3차 협상(2005.5); 4차 협상(2005.7)
파키스탄	중국·파키스탄 FTA 협상 중 - ‘중국·파키스탄 조기관세자유화조치’ 체결(2005.4) - 1차 협상(2005.8)
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 (GCC)	GCC 중국·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GCC) FTA 협상 중 - 1차 협상(2005.4); 2차 협상(2005.6)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SACU 중국·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SACU) FTA 협상 합의(2004.6)
아세안+3	연구·논의 단계
인도	연구·논의 단계
카자흐스탄	연구·논의 단계
미국, EU 등	기초 논의 단계

중-아세안 양측은 2005년 7월 20일부터 관세율 인하가 시작된다. 아세안 6개 선발국은 2010년까지, 후발 4개국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게 된다.³⁾ 500개 상품(주로 농산물)에 한해서는 조기에 관세 인하를 실시하여(2004년부터 관세인하 개시), 2006년부터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기수확(Early Harvest)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중-아세안 FTA 체결로 중국의 GDP는 0.3%(22억 달러), 대아세안 수출은 5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자료: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그러나 중국은 캄보디아와 미얀마 같은 WTO 비회원국에 대하여 일부 수산물을 조기관세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미얀마 같은 경우 대부분의 수산가공품(HS코드 16류 수산가공품 14종)에 대하여 양국이 현재로서는 전혀 교역이 없으나 예외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바, 이는 미얀마가 아직 관련 상품을 생산하고 있지는 않으나 추후 개발할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어 자국의 입장에서 조기 관세철폐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 중국의 수산물 시장개방정책 동향

1) 중국의 WTO 가입과 수산업

중국은 1950년 GATT 탈퇴 후 회원국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1986년 7월 GATT로의 복귀를 신청한 이후, 13년간 WTO 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미국과의 현저한 입장 차이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중국의 WTO 가입 논의의 진전은 주로 미중관계에 따라 좌우되어온 바 천안문사태로 중단되었던 가입협상은 1992년 이후 급진전되어 GATT 가입의 지위와 조건, 의정

3) ASEAN 기존 6개국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태국이며, ASEAN 후발 가입 4개국은 CMLV국가, 즉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을 말함.

서 초안의 내용 등이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여 1994년말까지 GATT복귀를 통해 WTO의 창립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하려던 중국의 계획은 무산되었다.

1999년 4월 주용기 총리의 미국 방문시 양국간 현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최대 현안이었던 중국의 WTO 가입문제는 다시 유보되었다. 주용기 총리의 방미는 중국내 인권문제, 중국의 미국 핵기술 절도의혹 사건, 1996년 미국 대선시 불법 선거자금 제공 혐의 등으로 미국내 반중국 정서가 고조된 가운데 이루어졌다. 양국간 경제적 문제는 어느 정도 타결을 보았으며 이로써 향후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미중간 협상의 중요한 진전을 이루는 계기는 충분히 마련되었다.

1999년 11월 15일 WTO 가입을 위한 중·미 양국의 협상 타결, 2000년 5월 25일 미국 하원, 9월 19일 상원에서의 중국 PNTR 법안 통과, 이로써 1986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GATT/WTO 가입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1979년 미·중 수교이후 양국 관계의 새로운 역사적 시대가 도래하였다.

중국과 EU간의 협상 타결 및 앞으로 WTO 총회에서 중국의 회원국 자격 투표 가결 등은 다만 의례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중국의 WTO 가입은 사실상 미국 PNTR 법안 통과에 따라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었다. 중국 WTO가입 문제의 실질은 중국이 국제사회(주로 미국)와 두 가지를 서로 주고받은 데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중국이 시장개방을 대가로 경제적 안전을 보장 받았다는 데 있으며, 1990년 대 이후 미국시장은 줄곧 중국 수출의 30% 이상을 점하고 거액의 무역흑자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중국이 PNTR 자격을 가지지 못하는 한 중국경제는 언제든지 중국에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미국 국회의원들에 의해 하루 아침에 붕괴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중국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미 수출의 안정적인 발전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법적인 보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 것이 바로 PNTR 법안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미국 내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중국

이 WTO에 가입한다는 명분이 있어야 했다. PNTR 자격을 얻어 경제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시장 개방이라는 양보를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제기한 여러 가지 부대적인 조건을 받아들였다.

미국은 반덤핑과 보조금 판정 문제에서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도 15년간 계속 중국을 '비시장 경제 국가'로 분류하고 덤핑 판정 방식을 보류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감세 등 조치에 대해 중국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 여하를 판정하며, 미국은 자국 시장에 대한 교란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12년 동안 중국 제품에 대해 특별 세이프 가드를 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미국은 2005년 MFA(섬유 쿼터 협정)이 폐지된 후에도 2008년까지 중국 섬유제품 수출에 한에서만 감시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하나는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 시장경제체제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통해 경제개혁과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받게 되었다는 데 있다.

장기간 중국의 지도부는 전략적 득실을 고려하여 반드시 WTO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지를 굳히고 국내외의 반발을 물리치며 가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히 국내에서 WTO의 가입에 대비한 여론 준비와 경제구조 조정 준비를 해왔으며,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GATT/WTO 가입을 “늑대가 온다”고 하면서 불가피한 것으로 선전해왔기 때문에 국민들과 기업들이 이미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WTO 가입으로 중국이 이행해야 할 협상조항은 일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자주적으로 이행하게 될 내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중국 WTO 가입의 구체적 시점에서 일어나는 변화보다는 장기적인 추세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변화되는 몇 가지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WTO 가입을 위해 중국 정부는 우선 수입 관세를 낮추고 WTO의 규범에 맞추어 수입수량 제한이나 기타 비관세 장벽을 점차 철폐하는데 동의했는

데 이는 불가피하게 수입품의 증가를 통해 중국내의 가격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다. 1999년 말 현재 중국의 공산품(수산물, 임산물 포함) 평균관세율은 16.8% 정도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2005년까지 9.4%로 낮추는 데 동의하였다. 수산물은 20%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인하할 것으로 동의하였다. 또한 정부가 수입허가 등 비관세수단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상당 품목에 대해서도 수량제한을 해제하고 점차 WTO 규범에 따라 관세화하는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WTO 가입을 전제로 오랫동안 관세인하를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관세인하가 중국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효과에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평균 공식 관세율은 1990년대 초의 40% 이상의 수준에서 이미 1999년 말에 17% 미만까지 낮추었으며, WTO 가입과는 상관없이 원래 2005년까지 10%로 낮출 계획이었다. 또한 그 동안 중국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관세 인하 효과 외에 주로 중국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자본재에 대한 수입수요가 활발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2-2〉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관세율 변화

단위 : %

	1999년	2005년	비고
평균 관세율	16.8	9.4	
미국 관심품목 평균 관세율	~	7.1	
정보통신제품	20~25	0	
목재, 종이	12~18	5~7.5	
화학제품	35	5.5~6.5	
자동차	80~100	25	2006년까지
수산물	20	10	
고순도 알코올	61	10	

2) WTO 가입과 중국의 수산물 시장개방정책 변화

중국은 1970년까지 자국내 식량부족 해결과 도시거주민의 생활비를 낮게 유지하기 위한 수산물 저가 가격기조를 위한 생산증대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1970년대 말부터 연근해 자원의 감소와 과잉어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자원이용, 양식 산업의 발전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정책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이후 1980년대 중반에는 해면어획의 생산조절과 자원보호 및 자원증식 방법 개선과 함께 양식업의 발전을 꾀하였다. 이러한 결과, 중국은 전 세계 양식 생산량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양식어업 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해면 어족자원의 고갈로 인한 수산물 공급 부족을 해소하게 함과 동시에 수산물 소비의 대중화에 대한 기여,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수산업의 구조 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수산물 수출에 있어서는 2003년 2,100천 톤을 수출하여 전년보다 1%의 성장세를 나타내었으나, 수출금액에 있어서는 54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보다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 전체 수출량에서 수산물 가공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 수출량 중 약 35.6%로 약 67만 톤을 나타내고 있으나, 단순가공 형태와 브랜드화를 구축하지 못한 것이 약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산물 가격은 농산물 가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낮은 내수가격으로 인하여 수산물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수산정책 중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기조는 내수면 양식 어업의 개발 촉진에 들 수 있다. 1978년 중국의 내수면 어로 생산량이 전체 내수면 생산량 1,058천 톤의 약 28%인 264천 톤을 나타냈으나, 2001년에는 내수

4) 中國漁網, 2004. 7. 12.

면 어획어업이 2,150천 톤으로, 전체 내수면 생산량 18,220천 톤의 11.8%로 하락하였다. 절대량 면에서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생산구조 측면에서는 내수면 양식어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3년 현재, 중국은 세계 150여 개국(지역)에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그 중 일본, 미국, 한국과 EU시장으로의 수출이 전체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 기준).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은 일본으로 2003년도 대일 수출량은 63만 톤, 수출액은 22억 달러이었으며, 대미 수출은 31.8만 톤, 10억 달러에 이르렀고, 대 EU 수출은 19.3만 톤, 4.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중국의 냉동 수산물 수출의 주요시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역별 성별 수산물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연해지역은 전국 수산물 수출액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 수출액 상위 5위까지를 보면, 산둥(山東), 광둥(廣東), 랴오닝(遼寧), 저지양(浙江), 푸지엔(福建) 순이다.

중국 국내 식용수산물 공급을 위한 수입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어분(魚粉)은 여전히 주요 수입품목 중의 하나이다. 2003년 수입수산물은 233만 톤이며 그 중에서 국내 재가공용으로 사용된 원료가 105만 톤으로 2002년 대비 12% 이상 증가했고, 수입총량의 45%를 차지하였다. 수출가공품 원재료와 어분수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중국 국내에서 소비하기 위해 수입된 수산물은 48만 톤으로 2002년에 비해 12만 톤 정도 감소하였다. 주요 수입품목은 갈치, 냉동오징어, 냉동새우, 냉동게류 등이다.

2003년도 수입수산물 평균가격은 톤당 1,100달러로 전년도 대비 17% 상승했다. 그 중에서 수출용 가공원료의 수입가격은 8.7% 상승하여 톤당 1,300달러였으며, 국내에서 식용으로 소비하기 위해 수입하는 수산물인 갈치, 병어와 새우류의 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중국은 수산물 수출을 통해 외화를 가득하기 위해 수출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약간의 부침은 있다. 중국 정부는 수산물 수출에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출품목구조를 조정하고, 상품 가공도를 높이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WTO 체제의 강화와 FTA 체제의 확산으로 인한 무역환경의 변화를 바탕으로 수산물 수출확대를 통하여 무역수지 흑자정책기조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개방화의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가 해결해야 할 몇가지 과제가 있다.⁵⁾

첫째, 수출수산물에 잔류하는 항생제 등 투입약품은 수산물 수출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소이다. 약품의 잔류량 초과로 인해 수입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장벽에 부딪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조정 메커니즘이 열악하다. 중국의 수산가공업은 유효한 업무제휴와 무역 분쟁 조정 메커니즘이 부족하여 효율적으로 거래처와 협력하지 못하여 업무 전체적인 발전을 저해시킨다. 셋째, 수출은 아직도 기초산물(初級產品), 원어 또는 단순가공품 중심의 수출이 중심이 되고 있다. 넷째, 수산물 수출의 절대량이 적다는 점이다. 2003년 중국 수산물은 비록 210만 톤, 54.9억 달러어치를 수출했지만, 수입한 가공원료를 제외하면 국내 수산물의 실제 수출은 단지 140만 톤, 35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은 수산물 수출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WTO 가입과 함께 의무적으로 완화할 수밖에 없는 관세 및 비관세 양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다양한 보호장치를 재정비하는 시점이다. 수입측면에 있어서도 수출 가공원료 수입을 통하여 재수출로 외화를 가득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내수용 수산물의 적극적인 수입관리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01년 12월 중국이 WTO에 정식 가입함에 따라 중국은 2004년까지 평균관세율을 22.1%에서 17%로 인하하게 되었다.

중국 관세제도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중국과 함께 최혜국대우조항을 적용받는 WTO 회원국 및 지역이 원산지인 수입품목에 대해 적용하는 세율과 중국과 관세우대조항을 포함하는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원산지인 수입품목에

5) 中國農業出版社, 2004 中國漁業年鑑(2004) 참조.

적용하는 협정세율이 존재하여, 최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국가의 상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통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표 2-3〉 중국의 WTO가입 전·후의 대 한국 주요 수입수산물 관세율 비교

품목명	WTO가입 전 관세율(2000년 기준)				WTO 가입 후 관세율(2003년 기준)				
	HS분류	최혜국 대우 세율	증치 세	종합 세율	HS분류	최혜국 대우 세율	증치 세	방콕 협정 세율	종합 세율
	중국(8단위)				중국(8단위)				
오징어(냉동)	03074900	25	17	42	03074900	12	13	-	25
기타어류(냉동)	03037990	20	17	37	03037990	12	13	8	21
기타연체동물 (냉동)	03079990	30	17	47	03079990	16.7	13	-	29.7
갑오징어(냉동)	03074900	25	17	42	03074900	12	13	-	25
대구(냉동)	03036000	20	17	37	03036000	12	13	8	21
새꼬리민태 (냉동)	03037990	20	17	37	03037990	12	13	8	21
임연수어(냉동)	03037990	20	17	37	03037990	12	13	8	21
피조개(산것/ 신선,냉장)	03079199	30	17	47	03079199	17.2	13	-	30.2
기타넙치류 (냉동)	03033900	20	17	37	03033900	10	13	8	21

주 : 1) 중국의 증치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목으로서, 94년도 세계개혁시 본격 시행되어 재화의 판매, 가공·수리 및 교체 용역, 재화의 수입에 과세되고 있음.

2) '방콕협정'은 1975년 유엔 지도하에 개도국간의 무역확대를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며, 현재는 한국, 중국, 인도 외에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가 가입해 있고 관세의 감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2001년 5월에 가입하였음.

3) 한국수산물이 중국으로부터 적용받는 세율은 최혜국대우세율(MFN)(또는 방콕협정세율)+증치세임. 즉, 방콕협정세율이 있는 품목은 최혜국대우세율과 증치세의 합이 종합세율이 되고 방콕협정세율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세율과 증치세의 합이 종합세율이 됨. 여기서 종합세율은 실행관세를 말함.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00 중국관세율 및 수출입 요령」, 「2003 중국관세율 및 수출입 요령」.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의 WTO 가입과 동시에 과거 한·중간 체결된 관세호혜협정(1994년 9월)에 의거 모든 수출상품에 대해 우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현재는 최혜국대우세율을 적용 받고 있으며, 또한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방콕협정가맹국 3개국이 원산지인 739개의 세 번 수입품목에 한해서 방콕협정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주요품목들을 대상으로 WTO 가입 전·후의 관세를 비교해 보면 중국이 WTO 가입 전에는 최혜국대우세율을 20~30%, 증치세는 17%를 적용하였다. 반면 WTO 가입 후에는 최혜국대우세율을 12~17%, 증치세는 13%로 관세율이 대폭 인하되었다. 또한 2001년 5월 중국이 방콕협정에 가입함에 따라 한국은 방콕협정세율(약 8%)을 적용받게 되었다.

품목별로 세분화해서 WTO 가입 전·후의 관세율을 비교해보면, 우선 방콕협정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품목의 경우 냉동오징어는 종합세율이 42%에서 25%, 냉동기타연체동물은 47%에서 29.7%로, 냉동갑오징어는 42%에서 25%, 피조개는 47%에서 30.2%로 적용 관세율이 대폭 인하되었다. 반면 방콕협정세율 적용받는 품목의 경우는 종합세율이 냉동기타어류는 37%에서 21%, 냉동대구는 37%에서 21%, 냉동새꼬리민태는 37%에서 21%, 냉동임연수어는 37%에서 21%, 냉동기타넙치류는 37%에서 21%로 관세율 인하 폭이 더욱 큼을 알 수 있다.

제3장

중국의 수산물 수급현황과 유통구조

중국의 수산물 생산과 소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도에 생산이 14,779천 톤, 소비(식용)가 13,349톤 이었던 것이 2001년에는 각각 43,613천 톤, 33,321천 톤으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양식어업의 발전으로 공급이 수요를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유통체제의 개선으로 수산물의 지역간 이동이

<표 3-1> 중국의 수산물 수급구조

단위 : 천 톤

연도	생산	수입	재고	수출	국내 총 공급	사료	종묘	가공	기타	소비 (식용)
1990	14,779	4,043	4	1,533	17,293	3,742	1	0	201	13,349
1991	15,697	6,096	19	1,560	20,251	5,716	1	0	1,000	13,534
1992	17,896	6,308	5	1,740	22,468	5,708	1	0	1,200	15,558
1993	21,213	5,937	5	1,871	25,283	5,333	1	0	1,450	18,498
1994	25,185	7,096	4	2,097	30,187	6,553	1	-86	1,860	21,858
1995	29,720	7,070	5	2,197	34,598	6,871	1	-164	2,351	25,539
1996	33,020	7,586	9	2,276	38,338	8,186	1	-108	2,440	27,819
1997	36,081	7,866	-5	2,385	41,557	9,305	1	-176	2,701	29,727
1998	39,047	4,348	-18	2,648	40,729	6,349	1	-265	3,210	31,434
1999	41,028	5,957	23	3,107	43,901	8,163	1	-294	3,900	32,131
2000	42,637	9,660	-10	3,675	48,611	11,482	1	-333	4,500	32,961
2001	43,613	8,272	18	4,339	47,564	9,579	1	-337	5,000	33,321

주 : 국내 총 공급은 사료, 종묘, 가공, 기타, 식용 등을 합산한 수치이므로, 실제 중국내 수산물 소비는 식용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 : FAO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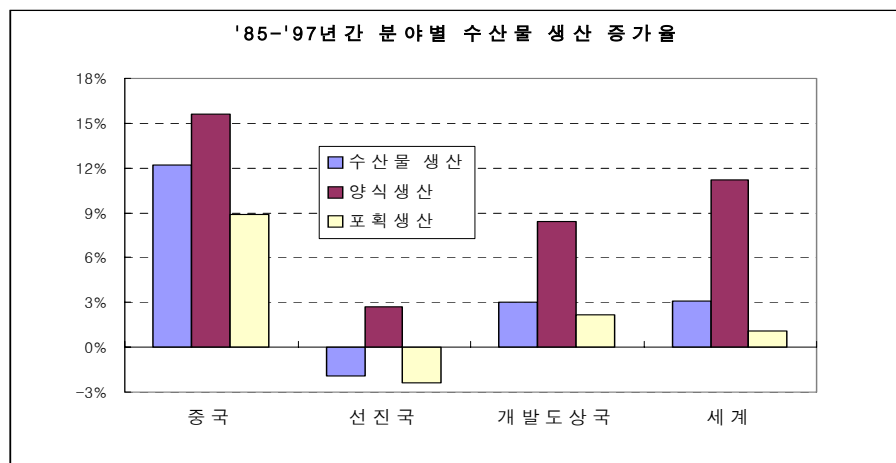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산물가공, 보관 기술 등이 낙후되어 지역별 수산물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부지역의 수산물 생산점유율이 약 80%에 육박하였는데 반해 중부지역은 18%, 서부지역은 단 2%만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중국의 동해, 황해 및 남해 해역에 실시하고 있는 휴어제도 수산물 수요공급의 계절적 불균형문제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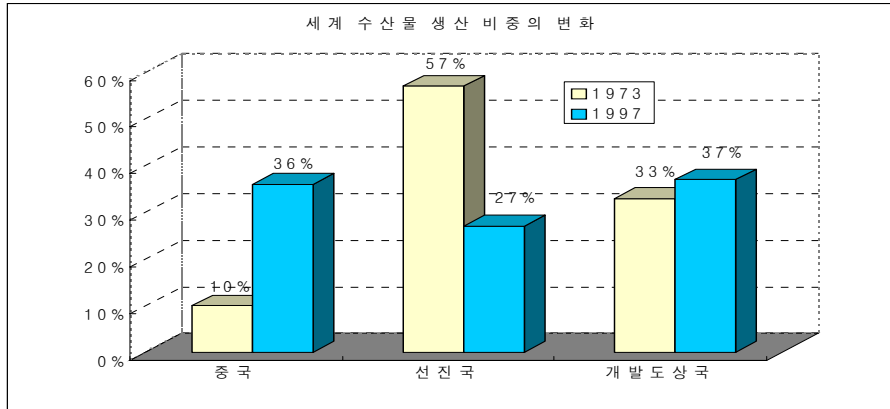
중국의 수산물 수요는 1995년 이후 급격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수산물 수출 수요 급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990년에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였으나 수산물 생산 증가로 1999년에는 수산물 재고량도 1천만 톤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기준 중국의 수산물 생산량은 전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 수출도 전세계 수출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거대 수산업 국가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⁶⁾

〈그림 3-1〉 중국 수산물 생산의 세계적 위상



6) FAO, Fishery Statistics(2001) 기준임.



자료 : IFPRI: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및 WorldFish Center, 2003. 10.

1. 중국의 수산물 수급현황과 특징

1) 중국의 수산물 공급측면

(1) 중국의 수산물 공급량

중국의 수산물 생산량을 보면 1992년부터 1996년까지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의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표 3-2>를 보면, 이런 증가세는 1997년 이후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전년대비 증감률은 꾸준히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지만, 실제 생산량은 미미하나마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중국의 수산물 생산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중국의 연 10%에 가까운 경제성장에 바탕을 둔 국내수산물 소비의 확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수산물 소비시장의 확대에 대한 증거로 <표 3-3>의 중국의 수산물 수출입 물량을 보면 수입물량이 수출물량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중국의 수산물 생산량

단위 : 천 톤, %

연도	생산 (천 톤)	전년대비 증감률
1992	17,896	14
1993	21,213	19
1994	25,185	19
1995	29,720	18
1996	33,020	11
1997	36,081	9
1998	39,047	8
1999	41,028	5
2000	42,637	4
2001	43,613	2
2002	45,652	5
2003	47,061	3

자료 : FAO 통계자료, 2004년 중국어업연감, 2003년 중국어업연감.

〈표 3-3〉 중국의 수산물 수출입 물량

단위 : 톤, %

연도	수입 (Mt)	전년대비 증감률 (%)	수출 (Mt)	전년대비 증감률 (%)
1991	6,095,785		1,560,332	
1992	6,307,939	3	1,740,256	12
1993	5,936,637	-6	1,871,441	8
1994	7,095,755	20	2,097,441	12
1995	7,070,004	0	2,196,716	5
1996	7,585,960	7	2,276,449	4
1997	7,865,543	4	2,385,225	5
1998	4,347,908	-45	2,647,871	11
1999	5,957,156	37	3,107,085	17
2000	9,659,928	62	3,675,162	18
2001	8,272,262	-14	4,339,395	18

자료 : FAO 통계자료 참조.

(2) 중국의 수산물 생산구조

가) 중국의 수산물 생산량 추이

중국의 2003년도 수산물 총 생산량은 47,061천 톤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4%씩 성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총 생산량 가운데 해면어업은 26,857천 톤이고, 내수면 어업은 20,205천 톤으로 해면어업이 약 6,600천 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면어업과 내수면 어업의 생산량을 3년간의 연평균 증가율로 살펴보면 해면어업은 2% 증가한 반면, 내수면 어업은 6%의 성장세를 보여, 최근 중국의 어업생산은 해면어업보다 내수면어업에서 강세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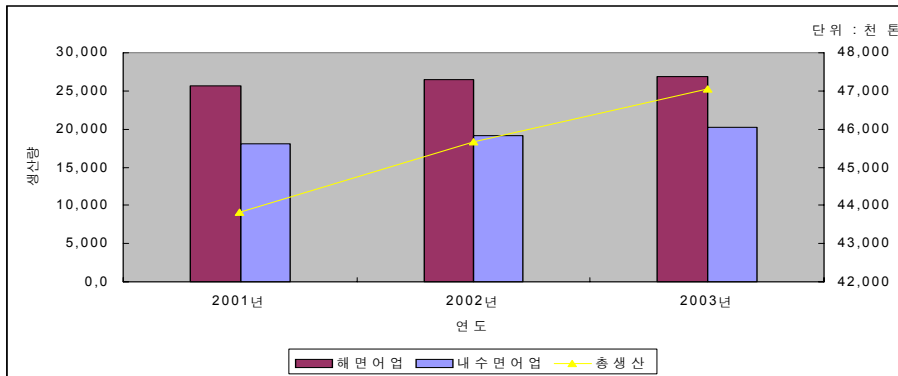
〈표 3-4〉 중국의 어업별 수산물 생산량

단위 : 천 톤, %

	2003년	2002년	2001년	연평균증가율
해면어업	26,856	26,463	25,721	2%
내수면어업	20,205	19,188	18,100	6%
총생산	47,061	45,652	43,821	4%

자료 : 2004 중국어업연감, 2003 중국어업연감.

〈그림 3-2〉 중국의 어업별 수산물 생산량 추이



자료 : 2004 중국어업연감, 2003 중국어업연감.

수산물 류별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해면어업의 경우에는 2003년 기준 패류의 생산량이 10,659천 톤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어류, 갑각류, 해조류, 연체동물,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01년 10,822톤이었던 패류의 생산량이 최근 3년간 연평균 -1%의 성장세를 보인 반면, 어류는 1%, 해조류는 7%의 성장률을 보였다.

내수면 어업의 경우에는 2003년 기준 어류의 생산량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해조류 순으로 나타났다. 내수면 어업의 경우에는 해면어업과는 달리 어류의 생산량이 연평균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참조).

<표 3-5> 중국의 어업별 류별 수산물 생산량

단위 : 천 톤, %

구분		2003년	2002년	2001년
수산물 총생산량(A=B+C)		47,061	45,652	43,821
해면어업생산량(B)		26,856 (57)	26,463 (58)	25,721 (59)
- 해면어로어업		14,323	14,335	14,406
- 해면양식		12,533	12,128	11,315
내수면생산량(C)		20,205 (43)	19,188 (42)	18,100 (41)
- 내수면어로어업		2,462	2,248	2,150
- 내수면양식		17,743	16,940	15,950
해면어업 생산량	어류	10,251	10,205	10,127
	갑각류	2,981	3,098	3,022
	패류	10,659	11,324	10,822
	해조류	1,413	1,331	1,241
	연체동물	0,902	1,673	
	기타	0,650	0,504	0,508
내수면어업 생산량	어류	17,942	17,102	16,305
	갑각류	1,389	1,226	-
	패류	0,537	0,551	0,530
	해조류	0,6	-	-
	연체동물	0,330	0,309	0,264

주 : ()은 수산물총생산 대비 비중을 나타냄.

자료: 2004 중국어업연감, 2003 중국어업연감.

나) 중국의 지역별 수산물 생산 현황

중국의 지역별 수산물 생산량을 살펴보면 <표 3-6>과 같다. 주요 11개 수산물 생산지역의 총생산이 전체 수산물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해면어업과 내수면어업의 비중은 각각 1998년에 60%, 40%를 차지하였으나, 2003년에는 각각 57%, 43%로 해면어업의 비중이 약간 감소하고 내수면 어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기준, 중국의 수산물 생산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산둥성이 7,063천 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광둥, 복건, 절강, 요녕성 순으로 산둥성을 비롯한 10개 지역의 생산량이 중국 전체 생산량의 80%를 차지하였다.

<표 3-6> 중국의 주요 지역별(省別) 연도별 수산물 생산량

단위 : 천톤

구 분	1999		2000		2001		2003		
합계	41,224		42,790		43,821		47,061		
	해면	내수	해면	내수	해면	내수	소계	해면	내수
	24,719	16,505	25,387	17,403	25,721	18,100	47,061	26,856	20,205
산둥	6,950		6,980		6,860		7,063	6,042	1,021
광둥	5,759		5,930		6,100		6,485	3,792	2,693
복건	5,023		5,280		5,420		5,728	5,079	649
절강	4,427		4,700		4,730		4,828	4,060	768
요녕	3,338		3,390		3,510		3,818	3,308	510
강소	2,968		3,090		3,210		3,430	982	2,448
광서	2,309		2,400		2,480		2,646	1,687	959
호북	2,290		2,340		2,420		2,871	0	2,871
안휘	1,539		1,600		1,600		1,653	0	1,653
호남	1,245		1,340		1,410		1,572	0	1,572
강서	1,221		1,270		1,320		1,461	0	1,461
기타	4,155		4,465		4,580		5,506	1,906	3,600

자료 : 國家統計局, 「中國農業統計資料」, 1998~2001, 2004 중국어업연감.

또한 중국의 수산물 생산량을 지역별 어업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면어업의 경우 산둥성 6,042천 톤, 복건성 5,079천 톤, 절강성 4,060 천톤, 광둥성 3,792천 톤, 요녕성 3,308천 톤 순이다. 해면어업 생산량 중에서 어로어업의 생산은 절강성, 산둥성, 복건성, 광둥성, 요녕성의 순이며, 해면 양식어업은 산둥성, 복건성, 광둥성, 요녕성, 절강성 순으로 나타났다.

내수면 어업의 경우에는 광둥성이 2,693천 톤, 강서성이 2,448천 톤, 안휘성이 1,653천 톤, 호북성이 1,572천 톤 순으로 나타났다. 내수면 어업의 경우에는 양식어업에 의한 생산이 8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광둥성, 강서성, 호북성, 산둥성, 광서성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 중국의 지역별 어업생산량(2003년 기준)

단위 : 천 톤, %

구분	총생산량 (1+2)	1. 해면 어업	어로 (a)	양식 (b)	2. 내수면 어업	어로 (a)	양식 (b)
전국	47,061 (100)	26,856	14,323	12,533	20,205	2,462	17,743
북경	71 (0)	0	0	0	71	0	71
톈진	297 (1)	50	41	9	247	11	237
요녕	3,819 (8)	3,308	1,480	1,829	510	31	480
강서	3,429 (7)	982	572	409	2,448	361	2,086
절강	4,828 (10)	4,060	3,142	919	768	86	683
안휘	1,653 (4)	0	0	0	1,653	405	1,248
복건	5,728 (12)	5,079	2,212	2,867	649	84	565
산둥	7,062 (15)	6,042	2,681	3,361	1,021	101	920

(〈표 3-7〉 계속)

구분	총생산량 (1+2)	1. 해면 어업	어로 (a)	양식 (b)	2. 내수면	어로 (a)	양식 (b)
호북	1,572 (3)	0	0	0	1,572	171	1,401
광둥	6,485 (14)	3,792	1,819	1,973	2,693	131	2,563
광서	2,646 (6)	1,687	851	836	959	105	853
기타	9,470 (20)	1,857	1,526	331	7,614	977	6,637

주 : ()은 비중을 나타냄.
 자료 : 2004 중국어업연감.

중국의 수산물 최대 생산지라고 할 수 있는 산둥성에서는 해면어업의 비중이 85%이고, 내수면 어업은 약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둥 외에 해면어업의 생산량이 많은 곳은 복건, 절강, 요녕이었으며, 내수면어업 생산량이 많은 곳은 강서, 광서, 안휘, 호북 등이었다. 즉, 산둥, 복건, 절강 지역 등 최대 수산물 생산지역에서는 해면어업의 생산량이 많은 반면, 안휘를 비롯한 생산량이 적은 지역에서는 내수면 어업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중국의 수산물 주요품목별 생산 추이

해면어업 생산 수산물의 주요 품목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3-8〉과 같다. 2001년도 생산량 순위를 보면 갈치와 멸치가 가장 많이 생산되었고, 뒤를 이어 가리비, 다시마, 홍합, 보리새우, 가라지 등이 50만 톤 이상 생산되었다.

〈표 3-8〉 중국 해면어업 생산의 주요품목별 생산량 추이

단위 : 천톤

품목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합계	8,959	10,268	12,489	21,764	23,567	24,719	25,387	25,721
부세	69	67	80	70	71	66	123	76
참조기	103	153	253	143	192	243	282	245
갈치	878	1,040	1,072	1,015	1,223	1,223	1,286	1,283
준치	33	47	51	77	84	110	108	101
삼치	203	227	284	340	518	566	497	477
병어	138	209	220	243	303	338	339	353
도미	57	59	56	71	75	78	106	126
고등어	336	372	374	409	385	403	351	382
가라지	431	515	608	506	533	503	502	545
멸치	439	489	671	1,202	1,373	1,097	1,143	1,261
정어리	-	-	-	-	121	147	154	161
말쥐치	196	122	210	297	236	240	222	202
대하	-	-	-	-	221	241	302	401
닭새우	167	152	163	175	176	401	312	244
보리새우	326	390	442	480	571	579	625	566
꽃게	13	292	243	283	238	267	-	-
오징어	193	214	166	236	222	-	-	-
갯장어	142	155	177	185	240	-	-	-
바닷게	113	172	265	400	431	-	-	-
홍합	-	-	-	398	541	608	535	568
가리비	-	-	-	1,000	629	712	920	960
다시마	-	-	-	787	793	895	830	798
김	-	-	-	-	36	41	48	45

주 : 빈 칸은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음을 표시함.
 자료 : 中國農業出版社, 「中國漁業年鑑」각연도.

갈치의 경우 1995년도를 기점으로 1백만 톤 이상 생산하기 시작하여 2001년
 도에 약 1,283천 톤을 생산하였고, 멸치는 1997년을 기점으로 1,000천 톤 이상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밖에 주요 생산품종으로 삼치, 고등어, 병어, 참조기, 닭새우, 말쥐치 등이 있는데, 고등어, 닭새우, 말쥐치 등은 최근 들어 연근해 자원감소로 인하여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라) 중국의 수산물 양식생산 현황

중국의 어업 생산량 가운데 양식 생산량의 비중은 <표 3-9>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001년 해면양식과 내수면양식을 더한 양식 총 생산량은 27,265천 톤으로 중국 전체 생산량의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3년에는 수산물 전체 생산량에서 양식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보다 2% 증가한 64%로 나타났다. 양식 가운데 해면양식 생산량은 2001년 기준 연평균 생산량이 5.24%씩 증가한 반면, 내수면양식 생산량은 5.4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해면양식보다는 내수면양식 생산량의 증가세가 약간 앞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9> 총생산량 대비 양식생산량 및 비중

단위 : 천 톤, %

구분	2003년	2002년	2001년
수산물총생산	47,061	45,652	43,821
양식총생산	30,276 (64)	29,068 (63)	27,265 (62)
해면양식	12,533	12,128	11,315
내수면양식	17,743	16,940	15,950

주 : ()은 수산물 총생산 대비 양식생산량을 비중으로 나타냄.

자료 : 「2004년 중국어업연감, 2003년 중국어업연감」의 통계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중국 양식업 발전의 특징은 지역별 비교우위 품종 형성, 양식업 투자 확대 및 투자주체 다양화, 무공해 수산양식 부문의 급속한 발전, 어업시설 부문의 발전, 환경 친화적 어업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양식업 정책은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완비를 목표로 양식업자의 합법적 권리 보호와 농어촌 지역의 단결, 그리고 양식업 성장을 유도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양식수산물의 가공 유통체계의 낙후성, 수산종묘의 품질 안정성 문제, 법 집행 혹은 관리감독의 비효율성, 양식권에 대한 권한 침해, 밀식관련 문제 등이 중국의 양식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표 3-10〉 중국의 양식생산량, 면적 및 단위 생산량

단위 : 생산량=톤, 면적=ha, 단위생산량=kg/ha

구분	2002			2003		
	생산량	면적	단위 생산량	생산량	면적	단위 생산량
해면양식	12,128,437	1,344,754	9,019	11,315,323	1,286,458	8,796
내수면양식	16,940,493	5,469,883	3,097	15,949,588	5,362,302	2,974
못양식	12,150,110	2,356,842	5,155	11,451,923	2,286,079	5,009
하천호수양식	982,919	873,936	1,125	923,611	874,854	1,056
저수지양식	1,687,257	1,643,984	1,026	1,617,583	1,630,517	992
독양식	659,414	382,532	1,818	671,789	392,420	1,712
기타	376,734	212,589	1,772	435,627	5,183,870	2,441
전답양성어	1,048,059	1,618,242	648	849,055	178,432	556
총계	29,068,930	6,814,637	4,266	27,264,911	6,648,760	4,101

자료 : 중국양식업 실태조사 보고서(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2003).

중국의 양식기술은 국가기관인 중국수산과학연구원 및 산하 3개 해역별 연구소와 국가 어업기계의기연구소에서 주로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제1위의 수산물 생산국이자 양식대국으로 전반적인 양식기술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높지 않지만 굴 등 패류 인공종묘 생산기술이나 해삼의 양식 생산기술 등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해면 양식어장 면적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양

식면적은 1998년 대비 28% 증가한 1,286천 ha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패류 양식면적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어류 양식면적은 6%를 약간 상회하는 79천 ha를 차지하고 있다.

2) 중국의 수산물 수요 측면

(1) 중국의 시대별 수산물 소비변화와 특징

중국의 수산물 소비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⁷⁾ 제1단계(1961~1983)는 수산물 소비의 저성장기이다. 이 시기에는 고도집약적 계획경제체제 아래 수산물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의 모든 것이 정부의 통제 관리 하에 놓여 있었다. 이런 통제제도는 기본적으로 시장 메카니즘 대신에 정부의 계획행정에 의해 농수산물의 수급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면에서는 생산자가 일정량의 공급을 행하도록 매입가격을 설정하는 한편, 수요면에서는 소비자의 생활 안정과 임금의 억제를 달성시키는 것과 같은 배급가격을 설정하여 어느 쪽이든 모두 달성될 수 있도록 저수준으로 억제하였다. 물론, 이것은 시장메카니즘으로 정해진 가격은 아니었다.

매입가격의 저위성은 어업자의 이익의 감소를 가져왔다. 그리고 장기간 동안 반강제적으로 수산물을 낮은 가격으로 정부에 매도하도록 해 어업자의 생산의욕을 저하시키고 생산기반을 약화시켰다. 또한, 수산물의 공급계획은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강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원조건에 일치하고 있는지 아닌지, 경제효율이 높은지 아닌지는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생산의무가 결정되기에 합리적인 어업생산구조는 형성되지 않으며 어업생산의 발전도 매우 제한되었다. 그리하여 어업생산이 저조하여 수산물 공급 부족이 심각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도시부에서는 주요소비재의 공급은 배급표에 의해 정량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이 도시주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한편, 경직적인 제도가

7) 包特力根 白之, 中國の水産物需給特性と消費形態, 世界市場の自由化と韓中日の水産物輸出入政策 国際セミナー 發表論文(韓國海洋水産開發院), 2005.

소비선택의 다양성과 모순되어 소비수준의 성장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였다. 그 결과, 수산물 총 소비량은 1961년의 316만 톤에서 1983년 597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즉, 연평균 수산물 소비량은 2.9% 정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산물 생산량의 성장률 4.1%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제2단계(1984~1998)는 수산물 소비의 급성장기라고 할 수 있다. 제1단계에서 존속해 온 농수산물의 통제유통제도는 일정한 정책적 고려에 기준하여 공정계획가격을 정하여 그것을 농수산물의 매입과 판매에 활용하였다. 하지만 공정 가격 수준을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였기 때문에, 수산물의 수급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수산물 유통의 각 단계 또는 각종 가격간의 유기적 관련을 원칙적으로 단절시켰다. 이것이 동 제도의 경직화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거기서 1978년에 시작한 개혁개방에 의해 1979년부터 1983년에 걸쳐 통제유통제도의 재검토가 실시됐다. 자유시장의 재개가 통제완화의 계기로 되었다. 그로부터 통제범위의 축소, 시장 메카니즘의 확대, 유통 루트의 다양화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통제적인 유통시스템을 대신하는 자유시장 유통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농촌개혁 5개년」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산물의 유통 다양화와 가격 자유화는 1980년대 중반 및 1990년대 전반기의 고도 경제성장에 의한 국민의 소득 상승과 더불어 수산물의 수요를 환기, 국내 소비시장의 확대를 초래하였다.

한편, 수산물 유통체제의 개혁에 의해 다양한 유통 루트가 탄생하였으나, 집하단계부터 소매단계에 이르는 유통기구 특히, 핵심기관인 수산물 도매시장의 미정비, 유통주체의 영세성과 미발달 때문에 유통의 비효율과 가격의 상승이 생겨났다. 이것이 생산체제의 후진성과 더불어 1980년대 중반부터 양적 증가와 질적 향상이 크게 진행되고 있는 수산물 수요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수산물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의 급등이 발생했다. 1985년과 1988년을 정점으로 한 수산물 가격의 급등은 국민의 생활을 직격하였다.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프로젝트가 1989년 1월에 발족, 1994년에 걸쳐 확립되었다. 이 프로젝트 실시 후, 수산물 공급은 기본적으로 확보되었으며, 수산

물 소비는 도시부를 중심으로 크게 촉진되었다. 그 결과, 수산물 식용 총 소비량은 1984년의 679만 톤에서 1998년 3,108만 톤으로 증가했다. 이와 같이 제2단계에서는 수산물 공급은 매우 개선됨과 동시에 수산물 수요도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단계(1999~2000)는 수산물 소비의 정체기이다. 수산물 소비가 정체한 배경에는 농촌주민의 소득증가 둔화와 물류 인프라의 미정비 등을 들 수 있다. 수산물 식용 총 소비량은 1999년 3,173만 톤에서 2000년 3,165만 톤으로 감소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수산물 생산은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 시기에 수산물이 집중적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계절적, 지역적, 구조적인 과잉 상태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비식용 소비를 포함한 수산물 내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수산물의 국내 수요량은 1978년에 587만 톤이었던 것이 1988년에 1,169만 톤으로 증가, 더욱이 1997년에는 3,914만 톤에 달하고 있다. 수산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국내 수요량의 점유율은 약 97~98%이다. 그 중에서 식용소비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71~85%이며, 오히려 비식용 소비량이 상승했다. 이것은 1985년 이래 양식어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어분의 수요와 육류생산에 따른 가금가축용 복합사료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수산물 내수는 국내생산량에 근접하고 있고, 양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이후의 세계 식량수급문제는 바야흐로 중국의 내수와 수출의 영향을 무시하고는 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수산물도 그 예외는 아니다. 중국의 수산물의 국내수요가 대단히 왕성하여 앞으로도 일정시기에 걸쳐 계속 늘어날 것임에 틀림없다.⁸⁾

8) 上掲論文.

(2) 중국의 수산물 수요량

중국의 수산물 소비량(〈표 3-11〉을 참조)을 보면, 1993년도는 전년대비 19%의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1996년에는 전년대비 증감률이 9% 정도로 그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비량이 감소하였다고 보기보다는 2001년의 수산물 소비량이 1992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에 비해 소비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증감률이 감소추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표 3-11〉 중국의 수산물 소비량 증감 추이

연도	소비량 (Mt)	전년대비 소비량의 증감률(%)
1992	15,558,176	15
1993	18,498,200	19
1994	21,858,059	18
1995	25,539,325	17
1996	27,819,334	9
1997	29,726,592	7
1998	31,433,913	6
1999	32,131,040	2
2000	32,960,740	3
2001	33,320,793	1

주 : 소비량의 경우 식용으로 공급되는 수산물량을 표기함.

자료 :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의 통계자료를 참조.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12〉에서 1993년 수산물의 1인당 소비량이 15.4kg으로 나타나지만 2001년에는 25.8kg으로 채 10년도 못되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소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수산물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여 현재는 본래의 수산물 증감추세로 돌아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표 3-12〉 중국의 1인당 어패류 소비량 증감 추이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수산물의 1인 1년당 소비량(Kg)	15.4	18	20.8	22.5	23.8	24.9	25.3	25.7	25.8
전년대비증감률 (%)	18	17	16	8	6	5	2	2	0

자료 :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의 통계자료를 참조.

(3) 중국의 수산물 소비구조

중국의 수산물 소비는 식용·수출·원료 소비 등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식용소비는 도시와 농촌의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소비와 식당과 호텔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소비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총 식용소비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른 소비성향의 변화가 외식산업의 발전을 주도하여 사회소비부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은 도·농간 소득, 생활수준 격차 등에 따라 수산물 소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최근 농촌주민의 소득수준 성장세가 둔화되어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에 놓여있다. 통계에 따르면, 1998년 농촌주민의 1인당 평균수입은 2,162위안으로 도시주민의 5,425위안의 약 40% 수준에 불과하다.

1998년 부식비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주민의 경우 1인당 1,927위안인데 반해 농촌주민의 경우에는 850위안으로 도시주민의 약 44% 정도에 그치고 있다. 농촌주민의 낮은 부식비 지출은 육류, 계란류, 가금류, 수산물 등 동물성 식품에 대한 소비를 제한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수준에 머무르게 하고 있다.

1998년 농촌주민의 평균 곡류소비량은 249.3kg으로 도시주민의 평균 소비량 86.6kg보다 약 162.5kg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⁹⁾ 기타 육류, 란류, 가금류, 수산물 소비량을 살펴보면, 농촌주민이 23.3kg으로 도시주민 소비량

9) 譚向 등, 상계서.

44.5kg의 약 52.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수산물 소비량과 연간 1인당 GDP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3-1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수산물 소비량과 연간 1인당 GDP는 비례관계에 있을 수 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전년대비 소비량의 증감률의 변화추세와 전년대비 1인당 GDP의 증감률의 추세가 비슷한 곡선을 그리며 변동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림 3-3〉를 참조). 이는 중국에서 수산물의 소비는 소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13〉 중국의 연간 1인당 주요 부식품 소비량

단위 : kg

연 도	소득(위안)		수산물		육란가금류		채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1980	1,510.2	686.3	7.69	2.13	30.41	15.01	138.7	134.0
1991	1,700.6	708.6	8.02	2.21	34.86	16.22	132.18	126.97
1992	2,026.6	784.0	8.19	2.25	35.94	16.17	124.91	129.12
1993	2,577.4	921.6	8.02	2.47	33.32	16.18	120.64	107.43
1994	3,496.2	1,221.0	8.53	2.68	34.03	15.66	120.74	107.86
1995	4,283.0	1,577.7	9.20	3.06	33.39	16.34	116.47	104.62
1996	4,838.9	1,926.1	9.25	3.37	33.97	18.18	118.51	106.26
1997	5,160.3	2,090.1	9.30	3.75	35.11	19.16	113.34	107.0
1998	5,425.1	2,162.0	9.84	3.66	34.63	19.64	113.76	109.0

자료 :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1996-2000. 中國農業部, 「中國農業年鑑」, 1989-2000.

다음으로 중국의 농축수산물 구매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3-4〉에서 농축수산물의 구매지수의 변동 폭은 크게 나타나는 데 반해 소비지수의 변동 폭은 완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이할 만한 것은 1996년을 기점으로 농축수산물구매지수의 전년대비 증감률이 소비지수의 전년대비 증감률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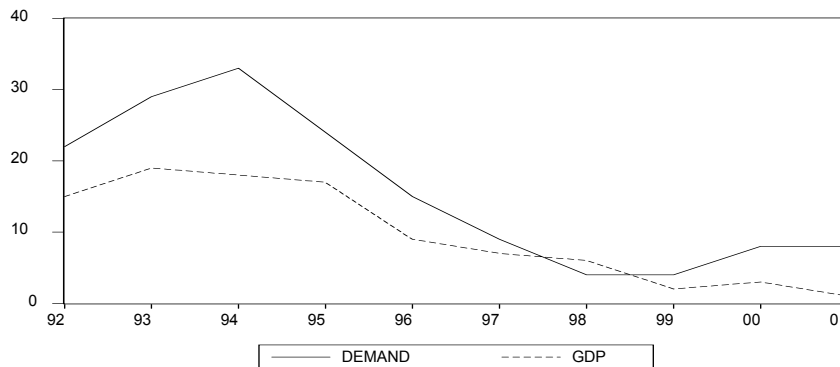
〈표 3-14〉 중국의 수산물 소비량과 1인당 GDP

연도	소비량 (Mt)	1인당 GDP (yuan/person)	전년대비 소비량의 증감률	전년대비 1인당 GDP의 증감률
1992	15,558,176	2,287	15	22
1993	18,498,200	2,939	19	29
1994	21,858,059	3,923	18	33
1995	25,539,325	4,854	17	24
1996	27,819,334	5,576	9	15
1997	29,726,592	6,054	7	9
1998	31,433,913	6,308	6	4
1999	32,131,040	6,551	2	4
2000	32,960,740	7,086	3	8
2001	33,320,793	7,651	1	8

주 : 소비량의 경우 식용으로 공급되는 수산물량을 표기함.

자료 :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의 통계자료를 참조.

〈그림 3-3〉 중국의 전년대비 소비량의 증감률과 1인당 GDP의 증감률



주 : DEMAND는 소비량 증감률, GDP는 1인당 GDP 증감률.

하로 떨어지다가 2000년에 가까이 오면서 다시 상승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에서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다른 재화에 비해 농수

축산물 소비의 증가가 다소 주춤하다가 2000년에 가까이 오면서 다시 소비의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수산물의 소비는 다른 농축산물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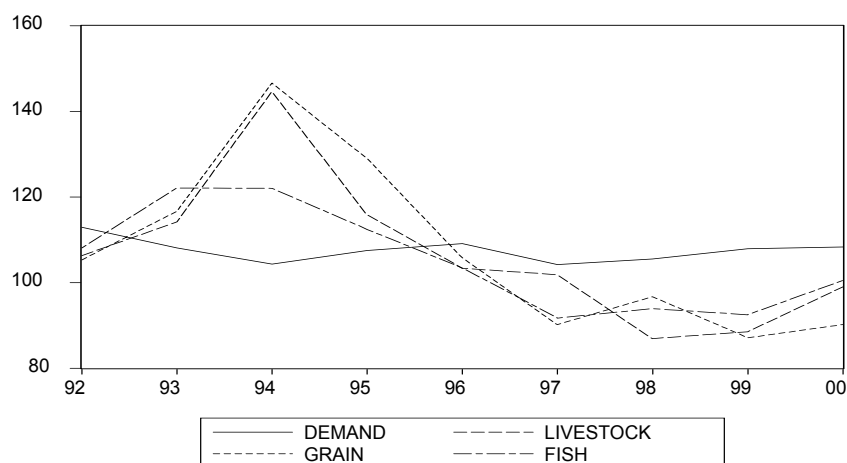
〈표 3-15〉 중국의 소비지수와 농축수산물 구매지수

전년도 = 100

연도	소비지수	곡물구매지수	육류구매지수	수산물구매지수
1992	112.9	105.3	106.3	108.1
1993	108.1	116.7	114.2	122.1
1994	104.3	146.6	144.6	122.0
1995	107.5	129.0	115.8	112.4
1996	109.1	105.8	103.3	103.4
1997	104.2	90.2	101.8	91.7
1998	105.5	96.7	86.9	93.9
1999	107.9	87.1	88.5	92.5
2000	108.3	90.2	99.0	100.5

자료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그림 3-4〉 중국의 소비지수와 농축수산물 구매지수



주 : DEMAND는 소비지수, LIVESTOCK는 육류구매지수, GRAIN은 곡류구매지수, FISH는 수산물 구매지수를 나타냄.

2. 중국 수산물 수요전망

1) 수산물 수요 분석방법

중국에서의 수산물 소비가 소득, 가격, 대체가격 등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계량분석방법¹⁰⁾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중국의 수산물 수요는 단일방정식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수요이론에 따라 아래의 식과 같이 수산물 소비량을 종속변수로, 그리고 자체가격, 소득, 대체재가격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D_t = f(Y_t, P_t, M_t, \epsilon_t) \text{-----} \textcircled{1}$$

여기서, D_t : 수산물소비량, Y_t : 소득(1인당 GDP), P_t : 수산물구매지수, M_t : 대체재(육류)구매지수, ϵ_t : 오차항이다. 연간 소비량은 이들 독립변수에 대하여 선형함수 관계에 있다고 가정하고 식 ①을 단일방정식의 함수형태로 나타내면 식 ②와 같다.

$$D_t = \beta_1 + \beta_2 Y_t + \beta_3 P_t + \beta_4 M_t + \epsilon_t \text{-----} \textcircled{2}$$

그리고 추정을 위하여 식 ②의 각 변수에 log를 취한 양대수 함수로 변환하면 식 ③과 같다.

$$\ln D_t = \beta_1 + \beta_2 \ln Y_t + \beta_3 \ln P_t + \beta_4 \ln M_t + \epsilon_t \text{---} \textcircled{3}$$

10) 중국의 수산물 수급분석 모형은 包 特力根白乙, 「중국의 수산물 수급특성과 소비형태」(중국대련수산학원, 2005), 김정봉·고재모 외, 「중국의 수산업 조사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김정봉, 「중국의 어업발전과 수산물 수급분석」(한국외국어대학교석사학위청구논문, 1997)을 참조.

분석에 이용된 각 변수의 자료기간은 1990~2000년의 11년간이다. 그러나 통계자료 중 상당한 부분은 분석하고자 하는 각 변수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없거나 수집이 곤란하여 각 변수와 관련된 자료를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각 변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통계자료와 이들 변수와 연관된 경제현상의 고찰을 통하여 자료상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함수의 파라메타 추정은 최소자승법(OLS)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수산물 소비량, 소득(1인당 GDP), 수산물구매지수(1990년 기준), 육류구매지수(1990년 기준)의 연별자료를 데이터로써 사용하였다. 수산물 소비량은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의 통계자료에서 중국의 국내 수산물 이용량을 참고하였고, 소득(1인당 GDP)과 나머지 변수들은 중국통계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3-16〉 중국의 농축산물 구매지수

1990 = 100

연도	곡물구매지수	육류구매지수	수산물구매지수
1990	100	100	100
1991	93.8	97.4	104.7
1992	98.8	103.5	113.2
1993	115.3	118.2	138.2
1994	169	171	168.6
1995	217.9	198	189.5
1996	230.6	204.5	195.9
1997	208	208.2	179.7
1998	201.1	180.9	168.1
1999	175.2	160.1	156.1
2000	158	158.5	156.8

자료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표 3-17〉 중국의 수산물 소비량

연도	총 국내수산물 공급량(Mt)	어패류의 국내공급량 (Mt)	수산물, 해조류의 국내공급량(Mt)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Kg)
1990	18,913,354	17,293,164	1,620,190	11.5
1991	22,688,180	20,251,422	2,436,758	11.5
1992	25,860,478	22,468,048	3,392,430	13.1
1993	29,325,947	25,283,108	4,042,839	15.4
1994	34,485,724	30,187,148	4,298,576	18.0
1995	38,987,221	34,598,441	4,388,780	20.8
1996	43,217,255	38,338,132	4,879,123	22.5
1997	46,844,551	41,556,970	5,287,581	23.8
1998	47,617,961	40,729,120	6,888,841	24.9
1999	51,802,274	43,901,253	7,901,021	25.3
2000	57,064,422	48,611,376	8,453,046	25.7
2001	56,392,689	47,563,698	8,828,991	25.8

주 : 총 국내수산물 공급량은 생산량, 채고, 수입물량에서 수출물량을 감산한 물량임.
자료 :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의 통계자료를 참조.

〈표 3-18〉 중국의 국내총생산

단위 : 억 위안, 억 명

연도	국민총생산 (GNP)	국내총생산 (GDP)	1인당 GDP (yuan)	인구 (억 명)	전년대비 GDP 증감률(%)
1990	18,598	18,548	1,634	11.4	10
1991	21,663	21,618	1,879	11.5	17
1992	26,652	26,638	2,287	11.6	23
1993	34,561	34,634	2,939	11.8	30
1994	46,670	46,759	3,923	11.9	35
1995	57,495	58,478	4,854	12.0	25
1996	66,851	67,885	5,576	12.2	16
1997	73,143	74,463	6,054	12.3	10
1998	76,967	78,345	6,308	12.4	5
1999	80,579	82,068	6,551	12.5	5
2000	88,254	89,468	7,086	12.6	9
2001	95,728	97,315	7,651	12.7	9
2002	103,935	105,172	8,214	12.8	8
2003	116,603	117,252	9,101	12.9	11

자료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2) 수산물 수요분석 결과

수산물 소비를 종속변수로 두고, 소득변수(1인당 GDP), 수산물가격(수산물 구매지수), 육류가격(육류구매지수)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변수들 간의 관계가 선형임을 가정하여 단순선형회귀모형(OLS)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각 변수들에 자연로그를 취하였는데, 이를 통해 탄력성 및 증감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각 설명변수들의 추정계수의 값이 1%, 5% 유의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이는 각 변수들에 대해 수산물 소비가 유의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수산물 소비에 대한 이들 변수의 결정계수(R^2)는 높게 나왔는데, 이를 통해 설명변수에 의한 모형의 설명력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추정결과 함수식인 식 ④를 보면, 중국의 1인당 GDP가 1%로 증가할 때 수산물의 수요량이 약 0.59%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득이 수산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연 7%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로 성장한다면 향후 수산물 수요 또한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중국의 1인당 GDP가 1%로 증가할 때 수산물의 수요량이 약 0.59%로 증가하고, 가격이 1% 상승할 때 소비는 -0.3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과 소비 중에서 소득이 수산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을 반영한다. 즉, 소득의 증가가 수산물 수요증에 따른 가격의 인상분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체가격인 육류구매지수의 계수를 보면 0.30으로, 수산물구매지수는 -0.37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중국의 경우 수산물과 육류가 서로 대체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파오(包 特力根白乙)의 「중국의 수산물 수급특성과 소비형태」에서는 본 연

구에서 사용된 계량모형과 유사형태로 중국의 수산물 소비와 소득, 대체가격(육란류가격) 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중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의 소득탄성치는 0.0651, 가격탄성치는 -0.5973, 수산물 교차탄력치는 0.4535 라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물론 사용된 변수와 변수의 기간이 다르므로 그 결과치는 본 연구의 결과치와는 달리 나타났다. 그러나 식 ④를 보면, 변수들간의 관계는 包 特力根白乙이 도출한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결과가 본 연구에서도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ln D_t = -1.444771 + 0.590249 \ln Y_t^{**} - 0.371286 \ln P_t^{**} + 0.299970 \ln M_t^{**}$$

(552.5881) (-32.03572) (26.12413)

$$R^2 = 1.0 \quad DW = 1.930899 \quad \text{-----} \text{④}$$

여기서, ()안은 t값이며, **, *는 각각 1%, 5% 수준에서의 유의함을 나타내고 있다. 위의 분석은 이분산성을 고려한 분석이며 원자료에 대한 분석보다 표준오차나 p-value가 모두 감소하였다. 또한 White 이분산성 검정에서는 이분산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정도의 유의한 검정치가 도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이분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자기 상관계수로 사용되는 더빈-왓슨 통계량은 1.930899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관측년도가 23년이고 설명변수가 4개일 때, 자기 상관계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앞의 분석에서 중국의 수산물 소비가 소득과 가격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앞의 분석 결과만으로는 향후 중국의 수산물 소비의 추이를 알 수가 없으므로, 다음 ⑤의 함수식¹¹⁾을 이용하여 향후 중국의 수산물 수요를 전망하고자 한다.

수요량 전망을 분석하기 위한 외생변수로는 변화에 대한 예측이 비교적 가능하고 예측치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소득증가율과 인구성장

11) 상계자료 참조.

률을 설정하였다.

식 ⑤의 외생변수에 대한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중국 국무원의 발전연구중심(DRC)은 2003년 초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하여 2006-2015년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7.1%로 설정한 기준을 본 분석에 이용하였고, 인구증가율의 경우는 Asian Demographics Ltd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중국의 평균 인구증가율은 0.04%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본 분석에도 사용하였다¹²⁾. 단, 수요에 대한 소득의 탄성치는 앞에서 구한 “0.590249”을 사용하였다.

중장기 수요를 추정하기 위한 함수형태는 식 ⑤와 같다.

$$D_t = D_{t-1} \left(1 + \frac{\dot{L}}{L}\right) \left(1 + \eta \cdot \frac{\dot{Y}}{Y}\right) \text{----- ⑤}$$

(D_{t-1} : t-1기의 수요량, $\frac{\dot{L}}{L}$: 인구증가율, η : 소득탄성치, $\frac{\dot{Y}}{Y}$: 소득

증가율)

식 ⑤에 의한 수산물 수요예측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19〉에서 연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추정치를 보면 그 증가세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 기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중·일 「식품수급표」에는 연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한국 58.8kg, 일본 66.4kg이지만 중국은 25.6kg 정도로 절반 수준에도 아직 못 미친다. 그러나 〈표 3-19〉에서와 같이 앞으로 10년 후인 2015년에는 중국의 1인당 수산물의 연간 소비가 46.1kg으로 현재의 한국, 일본과 비슷한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경제」, 2004 중국경제연보.

〈표 3-19〉 연도별 수산물 수요 추정량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인당 소비량 (Kg)	31.7	33.1	34.5	35.9	37.5	39.1	40.7	42.4	44.2	46.1

3. 중국의 수산물 유통과 가공

1) 중국의 수산물 유통구조

중국은 1985년부터 정부주도의 수산물 일괄구매 일괄판매 방식을 포기하였으며, 1992년부터는 수산물시장을 완전 개방하여 국유업체, 단체 및 합작업체, 개별업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유업체는 국유 수산물 판매기업과 산하 수산물 가공공장 및 국유 부식상점 등을 포괄하여 자금, 인력, 기술, 신뢰성 등에서 수산물 유통의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여 오랫동안 수산물 유통의 주요 경로가 되어왔다. 그러나 수산물 시장개방 이후 이들 국유업체들은 수산물 유통체계에서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단체 및 합작업체는 주식회사 형태로서 통일된 경영과 재무관리 및 손실에 대한 주주부담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이러한 시장중심의 경영형태는 수산물 유통에 있어서 그 역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개별업체란 개별적으로 가공, 운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상인과 자급자족을 하는 상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데 국유기업 혹은 대기업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어 시장점유율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별업체들은 강도 높은 노동과 풍부한 경험을 필요로 하며 일의 규모가 비교적 작아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신선할어 유통분야에는 다른 형태의 업체보다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의 전통적인 수산물 유통시스템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중간도매 상에 의한 거래, 자가소비 등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생산과

판매를 연합한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유통시장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유통은 생산, 가공, 소매(판매)의 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서 ① 국유 수산가공기업과 생산자 그리고 도소매 영업조직의 연합방식, ② 농촌기업과 사기업 그리고 해당 농촌기업의 수산물 생산자 혹은 어업공사가 연합한 방식이 있으며, ③ 수산생산자와 가공기업, 도매시장이 계약을 통해 연합하는 방식이 있다.

중국의 수산도매시장은 수산물 시장개방 이후 생겨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수산물 생산량 증가에 따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연안의 항구에 위치한 도시 이외에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해당지역 수산물에 맞는 전문 도매시장이 건립되었다. 1999년 현재 중국의 수산물 전문도매시장은 333개(도시 169개, 농촌 164개)가 개설되어 있으며 거래량은 329만 톤(도시 218만 톤, 농촌 11만 톤), 거래액은 379억위안(도시 256억 위안, 농촌 123억 위안)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거래량 25.4%, 거래액 23.8%의 증가율을 보였다.¹³⁾

도매시장 수의 증가와 수산물거래량의 급속한 증가뿐만 아니라 수산물시장에 대한 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생산자와 경영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국 수산정보망, 연안 국유 해양 어획 어업 정보망, 양쯔강유역 주요도시 수산 정보망, 14개 대형도시 수산정보망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처럼 수산물도매시장이 건설되어 수산물유통 발전에 공헌하고 있지만 시설물의 집산(集散)능력, 가격기능, 계산기능과 정보처리능력 등에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수산물의 소비시장은 국유 부식품상점과 개별 수산상점 및 생산기업의 직판을 제외하고는 주로 각 지역의 집하시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8년 소비시장의 수는 거의 9만 개소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도시 소재가 2.4만 개소, 농촌 소재가 6.5만 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표 3-21>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집하시장에서 취급하는 수산물 거래량은 해마다 증가하여 1999년

13) 國家統計局, 「中國市場統計年鑑」, 1999, 2000.

도에 1,801억 위안에 달하여 전체의 약 8%를 차지하였다.

〈표 3-20〉 중국의 시장 현황

단위 : 개, 억 위안

연 도	시 장 수			거래금액		
		도시	농촌		도시	농촌
1995	82,892	19,892	63,000	11,590.1	6,176.4	5,413.7
1996	85,391	20,832	64,559	14,694.9	7,882.5	6,812.4
1997	87,105	22,352	64,753	17,424.5	9,468.8	7,955.7
1998	89,177	24,127	65,050	19,835.5	11,042.8	8,792.7
1999	88,576	24,983	63,593	21,707.9	12,325.5	9,382.1

자료 :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2000.

〈표 3-21〉 중국의 연도별 식품별 거래금액

단위: 억 위안, %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합 계	11,590.1 (100.0)	14,694.9 (100.0)	17,424.5 (100.0)	19,835.5 (100.0)	21,707.9 (100.0)
곡식류	602.5 (5.2)	774.6 (5.3)	895.5 (5.1)	930.5 (4.7)	1,003.9 (4.6)
유지류	301.5 (2.6)	366.5 (2.5)	465.1 (2.7)	534.3 (2.7)	587.2 (2.7)
목화·마류	85.4 (0.7)	75.7 (0.5)	90.8 (0.5)	110.9 (0.6)	90.1 (0.4)
육·가금류	2,221.4 (19.2)	2,754.0 (8.7)	3,338.2 (19.2)	3,557.4 (17.9)	3,802.1 (17.5)
수산물류	870.1 (7.5)	1,134.7 (7.7)	1,386.1 (8.0)	1,659.0 (8.4)	1,800.7 (8.3)
채소류	1,202.8 (10.4)	1,590.0 (0.8)	1,944.6 (11.2)	2,207.0 (11.1)	2,425.5 (11.2)
과일류	781.9 (6.7)	980.4 (6.7)	1,106.4 (6.3)	1,234.7 (6.2)	1,398.2 (6.4)
기 타	5,524.5 (47.7)	7,019.0 (47.8)	8,197.8 (47.0)	9,601.7 (48.4)	10,600.2 (48.8)

자료 :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2000.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수산물 시장은 기본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수산정책이 바뀌면서 양식어업의 발전과 수입량의 증가로 인하여 공급이 수요를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수산물 유통체제의 개선으로 수산물의 지역간 이동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수산물 가공·보관에 관한 기술이 낙후되어 지역별 수산물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부지역의 수산물 생산점유율이 약 80%에 육박하였는데 반해 중부지역은 18%, 서부지역은 단 2%만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중국의 동해, 황해 및 남해 해역에 실시하고 있는 휴어제는 수산물 수요공급의 계절적 불균형문제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전체대비 해면 어획량의 생산 비중을 고려할 때, 휴어제의 실시는 해면 수산물 생산량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해면 어획량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양식생산량 증가에 기인한 수산물 생산량의 증가는 과잉공급을 초래하고 동시에 전반적인 물가의 하락과 더불어 수산물 가격의 상승세를 둔화시키다가 1998년 이후 도매물가와 소매물가를 동시에 하락시켰다.

〈표 3-22〉 중국 수산물 소비자 가격지수

전년=100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총지수		124.1	117.1	108.3	102.8	99.2	98.6
식 품	곡류	150.7	136.8	106.5	91.1	96.9	96.9
	유지	161.3	116.0	92.1	101.5	100.0	94.5
	육류,가금류	141.6	126.4	104.5	105.5	90.9	90.7
	란류	115.0	114.6	116.5	79.3	100.9	91.6
	수산물	120.3	114.4	106.0	100.2	93.9	93.3
	채소	133.3	127.3	119.1	100.0	99.6	101.0

자료 :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2000.

14) 譚向 등, 상게서.

〈표 3-23〉 중국의 수산물 도매 물가지수

전년=100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총지수		121.7	114.8	106.1	100.8	97.4	97.0
식품	곡류	148.7	134.4	107.5	92.1	96.9	96.4
	유지	161.4	116.3	92.1	101.6	100.7	94.4
	육류,란류 가금류	137.2	124.2	106.4	101.3	92.6	91.1
	수산물	120.7	114.2	105.6	101.2	94.2	93.6
	채소	138.2	129.3	118.4	99.5	100.3	100.4

자료 :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2000.

2) 중국의 지역별 수산물 유통현황

중국의 식품유통은 1979년의 개혁·개방 이전과 그 이후로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개혁·개방 이전은 정부의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가격뿐만 아니라 상품의 생산·유통·소비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수산물 시장 기능이 왜곡되고 자원배분 및 수급 불균형이 만성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에는 생산체제가 국가, 집단, 개인 등 다양한 소유체제로 바뀌면서 본격적인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었다. 특히 각종 시장을 포함한 유통기구의 소유는 국가소유에서 집체, 합자, 개체, 자영, 합작, 주식회사 등으로 다원화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시장 유통체계의 개혁이 급속히 진행되어 다양한 경영방식이 도입되고 다원화된 유통체계가 형성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유통에서 시장기능에 의한 상품가격의 결정이 전체 거래에서 95%에 이르고, 국가가 공식가격을 결정하는 비중은 특정 상품에 대해 전체의 5%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수산물시장에서 다양한 가격대와 품질의 상품 거래가 활성화되었고, 수급에 의한 가격형성은 생산자의 생산의욕

을 고취시키고 소비자의 선택 폭을 제고시켰다. 이와 함께 산지와 소비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유통주체가 형성되어 시장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완전경쟁구조로 전환되어 시장 기능이 급속히 활성화되었다.

중국경제는 대외개방과 함께 적극적인 외자도입정책을 추진하였다. 1995년 외국기업의 연쇄점 진출을 허가한 이후 다국적 유통업체의 등장과 함께 전통적인 백화점 외에 슈퍼마켓, 편의점, 할인점, 창고형상점, 쇼핑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소매 유통기구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중국의 수산물 유통체계 변화를 주도하였다. 특히 대형 슈퍼마켓인 외국계 유통기업의 대형할인점들이 상해 등 대도시에 점포를 확장하면서 농수산물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대도시 수산물 도매시장이나 전형적인 소매시장인 집무시장에서의 수산물 유통은 여전히 산물 형태로 거래되고 시장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어 물류표준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으나, 중국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대형 슈퍼마켓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포장규격이나 품질을 산지상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산지 유통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한편 산지 및 소비지 유통구조 변화와 동시에 소비자의 식품소비 및 수산물 구매 패턴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특히 동부연안 공업지대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소득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식품소비는 색(色), 향(香), 미(味)뿐만 아니라 소비의 편의성, 다양성, 안전성 등을 추구하는 추세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또한 도시 중산층과 월급생활자들의 의식 변화로 수산물 소비, 특히 활어의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수산물 유통에 참여하는 각종 유통기구가 새롭게 조직화되고, 다양한 상인이 출현하고 있다. 중국 수산물 유통의 경우 현재 수많은 종류의 중간업자들이 산지와 소비지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집출 하역업자, 도매업자, 중간도매업자, 소매업자 등과 같이 그 역할이나 기능이 뚜렷이 구분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유통업자들이 조직화되지 못하고 그 기능이 매우 단순하다. 그 결과 유통마진이 매우 높은 단계로 어가 수취율이

낮고 소비자 지불가격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농업의 개방·개혁 이후 1990년대에 농수산물 도소매 유통에서 국유 및 집체상점의 급속한 비중감소에 대신하는 유통조직이나 기구가 육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1) 상해 수산물 유통

상해시는 중국의 가장 큰 소비시장으로 인근 연안의 절강성, 강소성과 청도 등의 황해산과 남부의 해남도산 수산물을 반입하여 유통시키고 있다. 주로 호주, 동남아, 북미 등으로부터 활어 등을 수입하며, 자국적선의 원양산을 반입하여 일반 내수 또는 가공을 위해 여타 지역에 분배하기도 한다. 또한 자국산과 외국산을 중개하여 다른 지역에 공급하거나 대외 수출을 하기도 한다.

상해의 도매시장은 도매 유통업체가 입주하고 있는데 수입산 냉동 수산물은 거의 차량 단위 또는 박스 단위로 거래되는 편이다. 소매 거래는 슈퍼마켓,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소포장 위주로 판매된다. 중국 동해, 태평양, 대서양, 북태평양 등에서 어획하여 주로 주산항으로 반입된 수산물은 냉동 보관 및 가공, 포장되어 슈퍼 등에 공급하거나 상해항으로 반입하여 가공 공장에서 가공되기도 한다.

상해시의 수산물 유통경로는 연안산과 수입산으로 구입된다. 연안산은 생산지(어획, 양식) → 중개인 → 소매상(시장)의 단계를 거치는데, 여기서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형태는 거의 없다.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업자 → 창고 → 도매 형태의 유통시스템을 거친다. 유통경로는 ① 복주 → 상해항 → 직구매, ② 복주 → 상해항 → 도매상 → 구입, ③ 복주 → 상해항 (중계) → 북방항구, ④ 수입품은 수입상을 통해 유통된다. 이 같은 유통경로를 거치는 수산물은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폴 박스에 포장되어 20ft 컨테이너 크기로 순중량 15~18톤의 운반용 냉동차에 적재된다. 연안물은 주로 주산이나, 영파로부터 반입되는데 선박이나 항공편을 이용해 상해로 유입된다. 트럭 이용은 드문 편이고 활어는 항공 또는 활어선을 이용하여 운반된다. 황해, 동해 연안 어획물은 30~40톤 정도의 소형 어선으로 운송하여 거리가 가까운 소비시장인 상해로

반입되는데, 주요 품목으로는 갈치, 조기, 새우 등으로 비교적 크기가 작은 것이며 큰 것은 한국 등에 수출된다.

상해시장에 유입된 해산물은 주로 상해 시내에서 소비되며 다른 내륙지방으로 다시 유통되는 경우는 드문 편인데 유입량이 많을 경우는 냉동 처리한다. 상해는 슈퍼체인점, 대형할인점, 국영백화점 등 국내의 유통업체가 많아 해산물을 가공·소포장한 제품을 선호하며 통조림은 선호도가 낮아 거의 소비되지 않는 편이다. 상해의 수산물 유통시장은 수입, 도매, 유통, 소매 등의 명확한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있으며 슈퍼마켓은 2~3년 전에 출현되었는데 최근에 국영백화점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2~3개가 파산되었을 정도로 유통업의 경쟁이 치열하다.

〈표 3-24〉 상해시 어류 공급유형 및 물량(2000년 기준)

공 급 유 형	물 량(천톤/년)
전 체	600
상해시 생산물	300
대외 수입	80
인근성시로부터 유입	100
항공(활어 등 외국산)	30
기 타	90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자료실.

상해에는 수입된 산(활)해산물 사업이 2~3년 전에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4개의 주요 해산물 도매시장이 있다. 그 중 2개는 국내 활해산물 위주인데 비해 2개는 수입산 활해산물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① 통쉈엔(동천 Tongchuan) 도매시장

통쉈엔 도매시장은 1996년 10월에 설립된 상해에서 가장 큰 시장이며 현재 350개 점포를 가지고 있고 일일 거래규모가 약 60만 달러 정도로 수입산 활해산물 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근 주변지역의 도매업자, 호텔,

레스토랑에서 수입품을 사기 위해 이 시장에 나오기도 하는데 쓰핑(사핑)시장과 함께 상해지역 수입산 해산물의 분배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통쥬엔 도매시장의 특징은 약 20~30평 단위의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되어 형성된 시장으로 민물, 해산물 등 부류별 구분이 없는 시장으로, 대부분 각 점포들은 물품반입, 도매, 소매 및 거래알선 등 겸업형태이나 도매거래가 위주이다. 저녁 시간대에는 물품반입 및 도매거래를 주로 하고, 낮 시간대는 점포정비 및 일부 소매거래를 하는데, 해산물과 민물어류의 비중은 3:7 정도로 민물어류의 거래가 많은 시장이다. 총 거래량 대비 활어 90%, 선어 5%, 냉동 5% 정도로 활어 중심의 시장이다. 활어 중 약 80%가 민물게이고, 바다새우, 민물새우, 민물장어, 패류 등도 있다. 패류는 비브리�균 등으로 하절기는 소비가 적은 편이다. 동종 품목의 경우 선어의 시세는 활어의 30% 이하로 형성된다. 중량 단위로 판매되며 크기가 클수록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특징이 있다. 냉동류와 선어류는 출하품목이 극소수이며, 전반적으로 거래가 부진하다.

② 쓰핑(사핑 Siping)수산물시장

1995년 5월 18일에 개설되었으며, 1999년도에 2단계 확장공사를 거쳤으며 최근에는 수입 해산물도 취급하고 있다. 상해시 제1의 수산물 시장으로 국내외 수산물의 집산지이다. 면적 16천㎡, 점포 300여개, 숙소겸 사무실 148칸, 주차장 3,000㎡를 겸비하고 있다. 2000년 기준 1일 출하량 100~200톤, 월 평균 거래액 5~6천만 위안이고 최대 1억 위안이다.

쓰핑수산물시장은 비교적 소규모 점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주 등 시장질서 유지와 관리 등은 시장관리공사에서 담당(관리비 : 입주점포당 미화 100달러)하고 있고, 물품 반입, 판매 등은 입주상인에 의한 자율경영체제이다. 수입품을 다수 취급하며 중국 여타 지역산 수산물도 거래된다. 관리공사 조사원이 매일 아침에 품목별 가격을 실사하여 시장입구에 가격표를 게시하여 거래시 참고가격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경쟁 자율조

정제이나 최근 이윤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거래품목은 어류, 새우류, 계류, 패류 등이 있는데, 담수어에는 농어, 연어, 자라, 대갑해, 장어, 초하, 죽절하 등이며, 해양어에는 도루묵, 조기, 우럭, 황병어, 참돔, 넙치 등이다. 수입수산물의 경우에는 호주산 왕새우, 캐나다 말조개, 노르웨이 연어, 미국의 대게, 동남아의 뱀장어가 주를 이룬다.

③웨이찬청(수산성)시장

양포구 강포로에 소재한 수산물 도소매시장으로, 거래규모는 1일 100여 톤이며 연간 매출액은 약 15억 위안 정도이다. 면적은 동천시장이 크나 개장 역사가 더 오래 되었으며, 거래규모가 제일 크다. 여타 도매시장과 마찬가지로 산지반입, 도매, 거래알선 등을 겸업하고 있다. 해산물은 영파항을 비롯하여 인근 항구로부터 유입되는데, 여타 시장에 비해 냉동해산어류 도매, 중개 영업의 비중이 높다. 개장은 오후 8시에서 아침까지 도매가 이뤄지고 낮 시간대는 주로 소매거래가 이뤄진다. 소매는 저녁시간대의 도매 잔량을 일반가게 등에 소량 판매하는 형식이다. 주 고객은 호텔, 요식업소이며 가정소비는 주당 1~2회 정도 구매한다. 주요 거래품목은 민물게, 새우, 로어(루위)¹⁵⁾, 계어, 갑어, 만어 등이다. 해산 냉동어류로는 갈치, 오징어, 조기, 명태, 삼치 등을 주로 거래하고 있으나 소비량이 많지 않아 거래가 미흡한 편이다.

④ 장닝(장녕) 종합시장

장닝(장녕) 종합시장은 주택가에 소재한 농수산물 일반잡화 도소매시장으로 규모가 작다. 수산물은 민물어류가 약 90%, 해산물이 10%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거래품목은 민물장어, 민물게, 잉어, 붕어, 뱀(양식), 꽃게류, 바다 새우류 등이다.

15) 로어(루위)는 강, 바다 회유 어종으로 농어의 일종임.

⑤ 까르푸(대형할인매장)

냉동, 선어, 가공품은 거의 소포장되어 판매되며 활어는 대형 수족관에서 판매된다. 소포장품은 중량에 비례한 바코드 가격과 중량, 가격을 표기하여 판매된다. 소포장 실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갈치(400g), 새우(200g), 새우살(250g), 콩치(300g), 오징어(400g), 설어(350g), 게맛살(200g), 목어(200g), 조기(소/420g)등이다. 판매가격은 2000년 기준 토막갈치(6.80위안/500g), 미역(4.10위안/372g), 건멸치(5.40위안/154g), 건조김(중국산 5.10위안/80g), 조미김(중국산 5.90위안/12g), 갑오징어(신선, 11.80위안/kg)이다. 활어(RMB/500g)의 경우에는 민물게 78~98위안, 바다가재 200위안, 꽃게 48위안이다.

상해시의 수산물 소비현황을 살펴보면 계절에 관계없이 해산물 소비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활어, 선어, 냉동어, 가공품 순위로 선호하는데 소득향상과 보관기술 제고 등으로 활어 선호도가 점점 추세이다. 상해인이 선호하는 품목으로는 청어, 초어, 런어, 백어 등이다. 대체로 죽은 어류는 맛이 없다는 인식이 있어 선어의 선호도가 낮고 가격면에서도 동종어류 선어가 활어에 비해 약 30% 수준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다. 국내 특수로는 구정(춘절)때 바다장어가 소비되는 관습이 있으나 1마리가 일반가정에서의 1회 소비량으로는 너무 많아 소비가 곤란한 점 등이 있고 전통적 관습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별 수요기는 구정시 봉장어 외에는 거의 없으며 계절별로 많이 생산되는 어류를 소비하게 되며 상해를 비롯한 남방지역에는 경제력이 있어 전반적인 소비증가가 예상된다. 대체로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잡식성이어서 가격이 싸면 모든 품목이 소비가 될 정도이다.

〈표 3-25〉 상해시민 소득현황

1인당 GDP(1998년)	28,200위안
1인당 가처분소득(1998년)	8,773위안(도시 기준)
회사원(위안/월)	하 1,000 내외, 중 1,500~2,000, 고 2,000~3,000, 최고 3,000 이상(최고소득층 년봉 100천위안 이상)
공무원(위안/월)	하 800 이하, 중 800~1,500, 고 1,500~2,000

주 : 1) 사회복지비용 등이 월급의 30~40%로 고용자 부담으로 되어 있고, 지하소득 등을 감안할 때 실제소득은 명목소득의 약 2배 정도로 추정됨.

2) 가계소득은 여성근로자가 많아 가구당 평균 2~3명이 근로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정용품 등에 구매력이 높은 편임.

자료 :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자료실.

(2) 청도 수산물 유통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국영 유통체제가 근간을 이루어 개인유통을 사재기 개념으로 보아 허용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개인 유통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해산물 유통체계의 경우, 어선에서 인수받은 어획물을 일반시장의 소매상이 미리 준비한 스티로폼 상자와 얼음 등으로 간이포장한 후 트럭으로 운송하여 일반시장에서 판매된다. 수산물 판매입찰제도는 과거에 어업회사 소속 어선 어획물을 어업회사 주관으로 실시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선장이 자기 공급선에 반출하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제도 정착이 이뤄지기 전에 없어진 상태이나 대련지역에서는 일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업회사는 대부분 국영기업이며 회사 내 일부 부서를 맡아 개인 사업을 하기도 한다. 항구와 인접하게 위치함으로써 자체 선착장을 보유하여 하역반입이 용이하게 되어 있고 냉동창고를 보유하고 있다. 냉동창고는 비교적 노후화되어 있고 다층식 구조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입출고 작업을 하며 주로 리어카 등으로 수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팔레트에 의한 지게차 사용 등은 미흡한 수준이다.

냉동창고에서 100~200kg의 소포장 단위로 산동성 내에서 유통된다. 단 거리

운송일 경우에는 일반 트럭에 이불 등을 덮어 보냉 유지하지만 장거리 수송일 경우에는 보냉차를 이용한다. 내수 대금결제는 창고판매 방식으로 현찰거래가 위주이나 장거리, 대량 판매시에는 일부 현금과 수표로 결제하기도 한다. 연안 산 수산물이 수입산보다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연안산을 선호하나 금어기 설정으로 조업금지, 단속을 피해 밤에 조업하여 남획이 이뤄지기도 한다.

① 청도시 성양소채도매시장, 수산물 시장

도매위주 거래이나 소매도 가능한 성양소채도매시장은 시장 내 트럭 주차방식에 의한 차상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주로 박스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는데 비교적 대량거래 형태이며 경매입찰방식 거래는 없다. 시장유입 및 판매경로는 어선 → 트럭 → 도매시장 → 중간도매상 → 소매점, 최종소비자이며, 주요 취급 품목은 연안 해산물의 선어류이며 일부 활어, 냉동품, 담수어류도 취급한다. 구체적으로 선어에는 갈치, 가자미, 오징어, 갑오징어, 낙지, 붕장어 등이며, 패류/갑각류에는 꽃게, 피조개, 바지락 등이며, 활어에는 잉어, 붕어, 미꾸라지 등이다.

거래는 중량(근=500g) 단위에 의한 박스 거래 또는 소매 단위로 시장 건물 내 트럭단위 반입, 차상판매 등으로 이뤄진다. 포장용기는 스티로폼박스 60%, 플라스틱 박스 40% 차지하고 있는데, 산지 및 중간선별, 세척과정 없이 시장 내에서 선별작업이 이뤄진다. 선별작업은 크기별 구분, 이물질 제거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선별되어 포장된 출하품은 대부분이 내수용인데, 규격화가 미흡하고 위생상태가 불결하다

② 청도 사방로(사방로) 시장(일반재래시장)

일반 서민위주 소매시장으로 값싸고 다양한 품목이 출하되므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곳이다. 주요거래품목은 민물/활어의 잉어, 붕어, 뱀장어, 가물치, 민물게, 민물가재, 메기, 자라, 개구리, 뱀이며, 해산물/활어에는 꽃게류, 새우류,

돔, 우럭, 전복, 맛조개, 소라, 가리비, 참꼬막 등이다. 해산물/선어에는 갈치, 조기, 오징어, 가자미, 낙지, 병어, 삼치, 곱상어, 새우(타이거) 등이며 해산물/건조에는 붕장어, 조기, 가자미, 삼치, 오징어, 멸치이다. 청도의 건어물은 반건 조품에 가까운 형태로 주로 구이용으로 이용되는데, 냄새가 많이 난다.

③ 대형슈퍼 'PARKSON' / 인도네시아 화교운영

한국의 일반 대형슈퍼 크기정도인 PARKSON은 수산물을 냉장 보관하여 판매하고 있다 수산물 매장에는 건어물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냉동포장품은 소품목 소량이다. 주로 소포장 판매되기 때문에 위생적이고 편리성은 있으나 일반시장에 비해 가격이 월등하게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④ JUSCO/일본계

일본계 상점인 JUSCO는 주로 외국기업 주재원 등 상류층 사람들이 애용하는 곳으로 한국의 대형 슈퍼마켓과 동일한 구조의 판매장 형태를 갖추고 있다. 판매방법은 포장중량(g) 기준 바코드 가격판매이다. 수산물은 발포성 트레이와 랩으로 포장되어 저온 저장되거나 쇼케이스에 보관·진열된다.

(3) 광저우 수산물 유통

광저우 수산물의 유통은 기본적으로 생산자(어획, 수입자)가 반입항 또는 냉동 창고까지 반입하면 판매 단계별 수요자가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직접 구입, 인수하는 방식이다. 수산물 경매제도는 시행하지 않으며 호텔, 개인업자 등과 직접 거래하고 있다.

광저우에 유통되는 대다수의 활어는 홍콩을 경유해 수입되는데 홍콩 공항에 도착하면 트럭으로 운송한 후 배에 실어 광둥성 심수 얀티엔으로 직송된다. 활어가 심수 얀티엔(Yantian) 수산물 도매시장에 도달하는데 2~4시간이 소요되는데 도매시장에의 출하 절차는 등록과 수수료 지불만 하면 된다. 광저우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가격은 밀수품에 시중가격이 좌우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세관이 밀수 단속을 강화할 시에는 시중 유통 물량이 감소해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시기별로 수산물의 가격 급락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수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과 휴가철, 주말에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보인다.

수산물 가격은 활어, 냉장어류, 냉동품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활어는 냉동품보다 4~5배 수준 비싸다. 냉장품은 냉동품 대비 품목에 따라 약 20~30% 내지 2배 높은 가격수준을 나타낸다. 또한 동일 품종을 비교해 보면 연근해산이 수입산 보다 가격이 비싸다. 또한 외식업체의 등급(수준)에 따라 최고 3~4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한다.

〈표 3-26〉 시구 대중형 도소매거래의 주요상품매출 및 재고총액(1998년)

단위 : 만원

구 분	총 매 출	도 매	생산업체도매	수 출	소 매	연말재고
수 산 물	99,572	95,862	31,481	13,258	3,710	2,524

자료 :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자료실.

〈표 3-27〉 상품거래시장의 교역량

단위 : 톤

구 분	1997			1998		
	시 전 체	도 시	농 촌	시 전 체	도 시	농 촌
수산물류	242,450	195,715	46,735	271,987	221,715	50,272

자료 :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자료실.

광저우를 비롯한 광둥성의 수산물 유통비율은 담수어가 60~70%이고, 해수어가 30~40%수준이다. 연근해산은 대부분 활어 또는 냉장(빙선)상태로 유통되며, 원양산은 냉동상태, 수입산은 냉동 및 활·냉장상태로 유통된다. 수산가공품(통조림 등)은 시중 유통량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중국인은 근본적으로 활

선어를 선호하는데, 통조림은 죽은 것으로 제조했기 때문에 기가 빠지고 맛이 떨어지며 심지어 변질된 것으로 인식하는 소비자도 있다. 어류의 보존 상태별 수산물(해수어+담수어) 유통비율은 전체적으로는 냉동 20%, 선어 30%, 활어 50% 수준이다.

① 심수 안티엔(Yantian) 해산물 도매시장

심수 안티엔 도매시장은 1990년대 초 식품의 기본적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계획된 ‘채소바스켓’ 제도 시행의 일환으로 심수시 정부 및 심수수산물공사, 기타 2개회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규모는 1만㎡이고, 6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있으며, 심수시로 수입되는 활해산물의 70%를 취급하고 있다.

점포마다 벽에 붙은 물탱크를 갖추고 있으며, 면적은 약 100㎡ 정도이고 점포의 대다수가 매매나 임대방식으로 입주 한다. 수입산의 분배 중심지이자 소비자들이 매우 다양한 해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훌륭한 장소이기도 하며 비교적 싼 가격으로 모든 종류의 수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통상 이 시장 내에 있는 활해산물 거래업자들은 홍콩에 가서 홍콩공항으로부터 물품을 찾아 선박 편으로 가져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시장의 주거래 시간은 저녁 10시~새벽 4시이고 어떤 해산물은 트럭으로 심수 황티엔(Huangtian)공항으로 이송되어 다른 지역으로 운송되어지는데 광둥성 지역으로 운송되고 가장 먼 곳은 북동부의 하얼빈까지도 운송되기도 한다.

② 황새(황사)시장

주강변에 위치한 도매기능 위주의 시장이나 소매업도 겸하고 있다. 약 10년 전에 설립되었으며, 200개 이상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다. 1일평균 거래규모는 2000년 기준 약 967만 달러이며 그 중 약 1/2이 수입 해산물이다. 주요 고객은 레스토랑, 호텔 및 여타지역에서 온 도매업자들이며, 수입 활어가 전체 거래에서 상당량을 차지하는 수입산 유통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수입산 해산물(활

어)는 심수 안티엔 항구로부터 유입되며 일부는 광주 바이윈(백운) 국제공항으로부터 직접 유입되기도 한다. 황샤 시장은 심수 안티엔 시장과 인근에 많은 레스토랑이 있기 때문에 지역 소비자들은 직접 구입 후 조리비만 지불하면 즉석에서 소비할 수 있다.

해산물 중 일부 냉동품을 제외한 대부분이 활어 상태로 거래하며 보관중에 죽게 되면 버리거나 구입 희망자가 있으면 헐값에 판매된다. 담수어는 거의 활어로 판매되고 해산물의 경우에는 생명력이 긴 꽃게, 봉장어, 넙치류 등이 유통된다. 또한 광주 바이윈공항은 동남아 국가들과 직항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으로부터 많은 활해산물이 수입되며 특히, 산 거북, 새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미국산 바다가재는 Boston종과 소량의 American종이 직항로(광주-LA, 주 6회, 매일 운항)를 통해 수입된다. 광저우의 지역소식(Yangcheng Evening News)에 의하면 매일 공항에 산(활)해산물이 23톤씩 도착하여 광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분배되는데 현재 광주와 미국의 포틀랜드, 오레건과의 직항로 개설을 협의하고 있어 미국산의 수입이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③ 청핑(청평)시장

황샤(황사)시장에서 대로 건너 맞은편에 위치한 청핑시장은 농림수축산 종합재래시장으로 규모가 매우 큰 소매시장이다. 수산물 부문은 약 70%가 민물어류이고 활어가 대부분이다. 소매시 현장에서 다듬어 포장하며 큰 어류는 분할판매, 활어는 비닐봉지에 산소를 주입하여 포장해 주기도 한다. 약 1kg 이상 대형어류는 거의 분할판매이고, 건어물은 반건조(피데기) 상태로 판매된다. 패류는 태국산, 인도네시아산도 있기도 하나 거의 국내산이다. 민물어류에는 게, 새우, 잉어, 붕어, 거북, 자라, 뱀 등이 있다.

④ Trust-Mart('호우다')

슈퍼형태의 대형상점인 Trust-Mart는 국영인 '우의상점'의 상호를 변경하여

현대화한 곳이며, 주로 판매되는 수산물은 갈치, 흑창어, 구운 갈치, 미역 무침 등이다.

⑤ 후덕육채시장

주강 인근 주택가에 위치한 소규모 재래시장으로 농림수축산물을 종합 거래한다. 수산물 중 해산물은 키조개(활), 오징어(냉동) 정도이며 나머지는 민물어종이다.

3) 중국의 수산물 가공현황¹⁶⁾

일반적으로 수산물의 특성과 소비형태가 저장이나 운송 방식을 결정짓는다. 중국 연안에 위치한 성이나 시의 경우 이미 연근해 어선에 대한 열처리·보관·냉장·신선도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확대 보급하였다. 국유 및 단체 기업의 원양어선 대부분도 이러한 냉동·냉장장치를 구비하였고, 어떤 경우에는 냉장운송선도 갖추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연근해 어선의 신선·냉동화(신선·냉동설비의 구비 수준), 원양어선의 신선·냉동화, 수산물의 신선도, 수산물의 품질 등이 현저히 높아졌다.

양식수산물은 주로 해수나 담수 중에 방류·저장되고, 운송의 경우에는 트럭운송, 기차운송, 선박운송과 항공운송에 의해 행해지며, 이 중에서 활어운송은 대부분 트럭운송에 의해 이루어진다.

수산물 운송은 보편적으로 보온상자, 저온장치를 활용하여 신선어류와 냉동어류를 운송하는데, 현재 활어포장기술도 이미 보급되어 수산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산물 손실분을 상당부분 감소시켰다.

16) 상세한 내용은, 譚 向 외, 中國主要農產品市場分析(2001)을 참조.

(1) 수산물 수매 및 가공 규모

1990년부터 중국 수산업의 발전과 함께 가공분야 역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수산물 가공업은 국유 가공기업이 중심이 되고, 단체(주식회사 형태)의 가공소매기업을 기본으로 합자기업과 사기업이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각종 어류, 갑각류, 패류, 해조류 등을 주원료로 한 냉동가공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10개 품목별 전문 수산가공·소매체계를 갖추고 있다. 중국에는 1999년 현재 6,433개에 달하는 가공·소매기업이 있고, 수산냉장고가 4,392개, 1일 냉동능력이 10.85만 톤, 1일 제빙능력이 10.68만 톤, 동시 냉장능력이 121.47만 톤, 제빙총량이 700.31만 톤에 이르러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가공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1999년 수산물가공 생산을 살펴보면, 총 624.17만 톤이었으며, 수산물 원료 활용량은 1,248만 톤으로 수산물 총량의 약 30.28%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가공수산물 가운데, 냉동수산물이 325.81만 톤, 건제품은 64.28만 톤, 염장 또는 훈제품이 23.49만 톤, 통조림 2.05만 톤, 어미(魚糜)와 어미제품 9.32만 톤, 어분 등 동물성단백질 사료 70.74만 톤, 수산조미료 제품 3.68만 톤이었다.

수산물가공생산 총액(해당연도 가격에 의거해 계산)은 464.61억 위안에 달하며, 이는 수산업 총생산량의 15.55%이다. 수산물 가공생산량과 생산액이 1989년 대비 각각 3.6배, 7.8배 증가하였다.

중국 수산물 가공·소매기업은 최근에 장족의 발전을 하여 동 업계에서 매우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또한 농업부 직속 21개 기업 연합조직이 중국 수산연합총공사를 설립한 데에 이어 광서, 산둥, 요녕성, 특히 대련, 연태, 하문 등의 기업이 합작, 합자, 제휴 등을 통해 경제적 연합을 모색하고, 생산규모를 확대하며, 수산물의 생산, 가공, 무역을 하나로 묶은 기업단체를 형성하였는데, 광서의 '남주', 강소의 '용산', 상해의 '용문', 청도의 '해풍', 요녕의 '원양' 등이 대표적이다.

청도의 '해풍' 집단공사의 경우를 보면, 네덜란드, 일본 등의 기업과 장기합

작관계를 맺은 것을 제외하고도 미국, 일본 등에 자회사를 세우고, 이와 아울러 '대구(어종)연합회'를 세워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원료 수입과 가공수산물 수출의 최고·최저가격 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상의해 나가면서 대구시장을 안정화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1999년 461개 국유 수산물가공기업이 가공한 수산물량은 88.25만 톤이며, 금액으로는 44.23억 위안으로 중국 전체 가공 총생산량과 총생산액의 약 14.14%와 9.52%를 차지했다.

(2) 중국의 수산물가공 수준

최근, 중국의 수산물가공업은 빠르게 발전하여 전문화되고, 가공수준 역시 상당히 향상되었다. 수산물가공품을 살펴보면, 냉장수산물, 건제품, 염장·훈제품, 통조림, 어미(魚糜)와 어미제품, 어분 등 동물성단백질 사료, 조제 및 첨가제, 수산동물 냉장제품, 수산조미료, 수산 보건의약품 등 10개로 분류된다. 최근 품종구조가 개선되어 염제품이 신선활어제품으로 변화하고, 대형포장에서 소형개별포장, 라운드상태로 냉동하던 것을 보다 작은 상품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냉동시키는 등 초보적 가공수준에서 보다 정직한 가공방식을 통한 발전을 하고 있다.

“영양이 풍부하고, 먹기에 편리하며, 위생적이고, 실용적인” 수산즉석식품과 DAN, EPA, 어지방을 뺀 환제품(환약식으로 동그랗게 만든 것), 뱀장어 정제품, 진주가공품, 상어연골제품 등과 같은 수산건강의약품 등도 시장에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중국의 저가 잡어 가공기술과 어분습법설비(어분을 습하게 하는 설비)의 도입으로 어미(魚糜)와 기타 제품 및 어분생산 역시 매우 빠르게 발전하였다.

〈표 3-28〉에서 볼 수 있듯이, 냉동제품이 수산가공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1989년의 80.40%에서 1999년에는 52.2%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비중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품목을 보면, 어미(魚糜)와 기타 제품, 어분 등의 동물성단백질사료, 수산건강의약품 등으로 1989년 0.002%에서 0.57%로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표 3-28〉 중국수산가공품구조의 변화

연도	냉동품	건제품	염장· 훈제품	통조림	어죽 및 어죽제품	어분등 동물단백사료	수산건강 의약품	기타
1989	80.42	6.55	2.83	1.73	-	6.76	0.0025	1.71
1990	81.69	7.69	2.45	1.91	-	4.43	0.0029	1.83
1991	80.04	7.82	2.32	0.50	-	7.19	0.0075	2.12
1992	83.90	5.88	3.82	0.59	-	4.21	0.0017	1.60
1993	70.76	7.17	3.91	0.39	0.92	5.00	0.28	11.57
1994	70.93	8.78	2.65	0.21	1.13	5.52	0.27	10.51
1995	67.34	9.92	2.58	0.50	1.20	6.29	0.24	12.38
1996	62.32	10.52	2.90	0.48	1.91	8.34	0.25	13.28
1997	56.29	9.96	3.24	0.41	1.76	10.71	0.17	17.46
1998	53.01	11.96	2.71	0.56	1.22	12.74	0.13	17.67
1999	52.20	10.30	3.76	0.33	1.49	11.33	0.57	20.02

자료 : 중국어업통계연감, 각년도; 중국어업통계회편의 자료 참조.

그리고 중국의 수산가공기술이 매우 향상되었다. 각 지역 수산가공기업은 신기술과 설비를 도입하고 생산 환경을 개선하며 가공기술 수준을 제고하고 있다. 상해 단산은 일찍이 어분습법설비를 도입하여 중국어분기술의 개선을 주도하였다. 광주, 절강, 상해, 청도 등지에서 도입한 어미(魚糜) 생산선과 모의 식품 생산선은 중국수산가공업의 공백을 메웠을 뿐만 아니라 수산가공업의 현대화를 촉진시켰다.

또한 대련시는 최근 5년간 외국으로부터 평면동결기, 개별동결기와 패류, 해조류, 어미(魚糜)제품, 실험(TEST)식품 등의 가공설비 257대를 도입하였으며, 그 가운데 80년대와 90년대 제조된 설비가 도입 총 설비 대수의 94%를 차지했다. 중국은 이미 동결조리식품·어미(魚糜)·어편생산선 60조, 구운뱀장어 생산선 50조, 김가공 생산선 170조, 건제품 생산선 100조, 알칼리성다시마와 미역생산선 50조 등을 가지고 있다.

중국 내수면양식어업의 발전에 힘입어, 담수어의 신선도 유지 및 가공기술 역시 발전하여 기본적으로 어육, 어피, 어두, 벼, 내장, 비늘 등을 분류하여 가공하는 등 어류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3去(내장제거, 아

가미제거, 비늘제거)가공품도 제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각종 냉동소포장 능력과 각종 즉석식품(쓰고, 맵고, 훈제를 한 볶음식 혹은 구이식 즉석제품)의 제조와 의약, 화공, 공예제품까지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담수어의 가공이 수산가공 총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지만 출발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은 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의식 강화와 함께 가공기술 발전이 진전되었다. 수산가공업이 “품질의 고도화를 통해 생존·발전하고, 품질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자”는 의식을 갖고, 보다 과학적인 품질 및 위생표준을 설정하였으며, GMP를 적용한 생산시설을 정비 및 배치하고 있다.

해외시장을 겨냥한 대형가공기업의 경우에 관리인과 작업자들에 대해 HACCP에 따르도록 훈련하고 있으며, 생산시설에도 이러한 HACCP 규정을 실시하여 생산에 대한 엄격한 품질관리, 위생관리를 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있다. 산둥성 문둥시 수산양식(업)공사는 기업관리와 품질에 대한 전면적 관리를 함으로써 ‘극양(極陽)’이라는 브랜드의 뱀장어 가공제품이 품질검사를 면제받고 일본, 한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고, 1997년에는 자가 생산 운영하는 제품의 수출입권을 취득하였다.

1999년에는 생산공장과 냉동설비 등 Hardware 시스템에 대한 개선작업을 단행하고, 가공제품의 수매절차와 가공공정 등과 같은 Software 측면에 대해서도 새로운 설계, 시설 등을 함으로써 해당기업은 미국의 HACCP인증을 순조로이 통과하여 동 기업의 제품이 미주시장으로 수출되기 위한 일종의 ‘통행증’을 취득하였다. 1999년 해당공사는 ‘극양(極陽)’이라는 브랜드 계열제품 약 500여 톤을 수출하여 2,000만 위안(약 240만 달러) 상당의 금액을 벌어들임으로써 문둥시 수산업계의 선두 위치를 차지하였다. 수많은 연안에 위치한 성과 도시들의 수산국은 HACCP를 주제로 한 강좌를 「중국수산물품질인증관리위원회」와 상설기구인 「중국수산물품질인증센터」를 설립하여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제품에 대해 품질표준 및 관련인증법률, 법규 등에 의거해 품질인증업무를 실시하여 수산물 및 기타 수산가공품의 품질, 위생 및 식품안전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현재, 중국수산물(패류 제외)은 이미 EU로의 수산물 수출 면허(자격)를 취득하였다.

어미(魚糜)와 기타 냉동조리식품의 가공기술은 선진국가 비교할 때 양호한 편이다. 어미(魚糜)나 기타 냉동조리제품의 가공 기술수준이 비교적 높고 기술 설비에 대한 요구 또한 높다. 1990년대 이후 도입된 설비의 성능이 비교적 선진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기술역량과 작업인력의 수준이 이러한 설비성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신제품 개발과 신제품 품질 제고에 일정부분이나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4 장

중국의 수산물 수출입구조와 경쟁관계

1. 중국의 수산물 수출입 구조

1) 세계 수산물 시장에서 중국의 위치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 수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1999년 수산물 수출은 총 52,829,179천 달러였으나 2004년에는 58,211,139천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지난 3년간 수산물 수출이 연평균 3.3% 증가한 셈이다. 태국을 비롯한 51개국의 수산물 수출량 총액이 전체 수산물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국별로 살펴보면 2001년까지 제1위 수산물 수출국은 태국이었고, 그 뒤를 이어 중국의 수산물 수출이 세계 2위였다. 하지만 2002년 상황이 역전되어 중국의 수산물 수출은 4,485,274천 달러로 세계 1위를 기록하였고, 세계 수출액에서 7.7%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의 최근 3년 수산물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4.9%로써 베트남의 연평균 증가율 29.2%에 뒤를 이으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수산물 수입은 2002년 기준 60,070,660천 달러를 기록하여 수출량(58,211,139)을 앞서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수산물 수입국 51개국이 전체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97~98%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물 수입이 많은 국가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일본의 수산물 수입이 13,646,050천 달러가 가장 많고, 그 뒤

를 이어 미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순으로 나타났다(2002년 기준). 그리고 중국의 수산물 수입은 세계 8위로써, 전체 시장에서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의 수산물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중국의 수산물 수입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즉, 중국은 매년 수산물 수입을 약 25%씩 늘리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수산물 수입 증가분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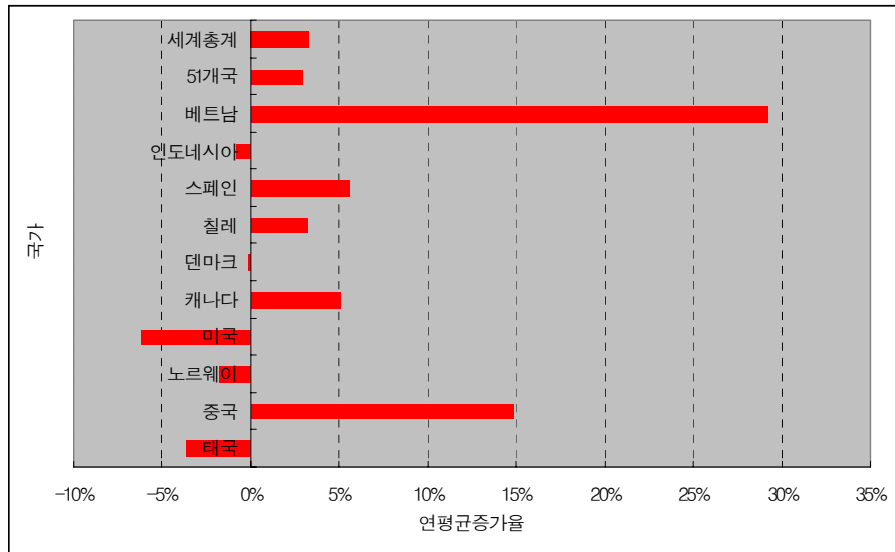
〈표 4-1〉 세계의 수산물 수출 현황

단위 : 천 달러, %

	1999	2000	2001	2002
태국	4,109,860	4,376,332	4,039,127	3,676,427
중국	2,959,530	3,605,838	3,999,274	4,485,274
노르웨이	3,764,790	3,532,841	3,363,955	3,569,243
미국	3,945,014	3,055,841	3,316,056	3,260,168
캐나다	2,617,759	2,818,433	2,797,933	3,035,353
덴마크	2,884,334	2,755,676	2,666,476	2,872,438
칠레	1,699,516	1,784,450	1,939,295	1,869,123
스페인	1,604,237	1,599,631	1,848,352	1,889,541
인도네시아	1,527,092	1,584,454	1,534,587	1,490,824
베트남	940,473	1,480,110	1,785,385	2,029,800
51개국	50,109,103	52,241,141	52,926,194	54,568,586
세계비	94.9	94.6	94.7	93.7
세계총계	52,829,179	55,197,323	55,864,537	58,211,139

자료 : 수산연감 2005, 수산연감, 2004.

〈그림 4-1〉 최근 3년간 각국의 수산물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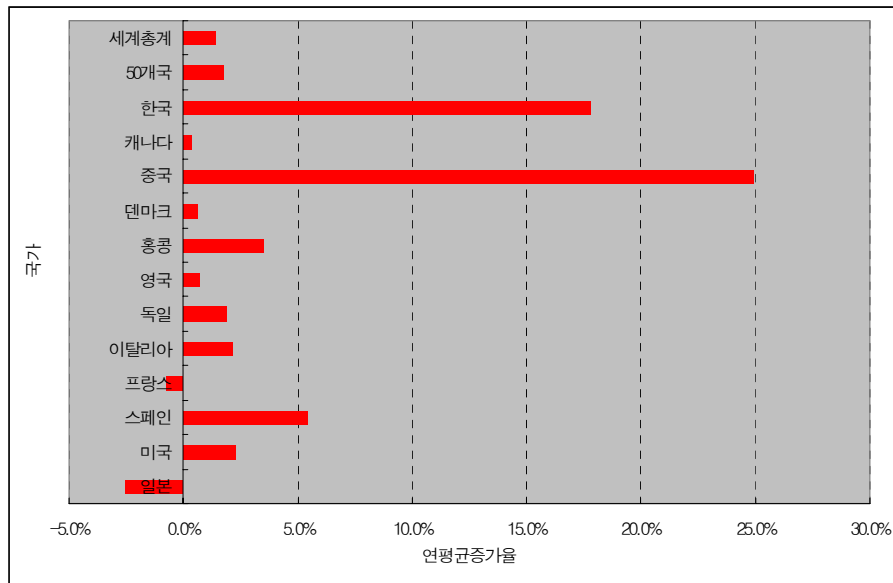
〈표 4-2〉 수산물 수입현황

단위 : 천 달러, %

	1999	2000	2001	2002
일본	14,748,712	15,513,059	13,453,375	13,646,050
미국	9,407,307	10,453,251	10,291,344	10,065,328
스페인	3,286,831	3,351,670	3,723,590	3,852,942
프랑스	3,280,940	2,983,618	3,062,660	3,205,511
이탈리아	2,728,568	2,535,269	2,722,414	2,906,007
독일	2,288,523	2,262,018	2,354,306	2,419,534
영국	2,276,998	2,183,711	2,241,908	2,327,559
홍콩	1,593,661	1,948,824	1,768,439	1,766,126
덴마크	1,771,500	1,806,365	1,737,396	1,805,598
중국	1,127,412	1,795,953	1,787,242	2,197,793
캐나다	1,338,973	1,388,621	1,371,517	1,353,553
한국	1,140,022	1,371,830	1,626,906	1,861,093
50개국	56,045,246	58,524,292	57,693,459	59,092,328
50개국/세계비	97	98	97	98
세계총계	57,610,062	60,008,337	59,396,807	60,070,660

자료 : 수산연감 2005, 수산연감, 2004.

〈그림 4-2〉 최근 3년간 각국의 수산물 수입 연평균 증가율



지금까지 연도별 각 국가의 수산물 총 수출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수산물 수출입의 경우에는 각 국가의 인구 수를 고려하지 않는 총량 개념이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 중국의 수산물 수출입 구조

(1) 중국의 수산물 무역수지 추이

중국은 국토가 광대한 까닭에 수산물의 수출입은 지역적으로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으며 특히, 수산물 수출지역과 수입지역의 구분이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북경과 상해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매년 수산물 소비 증가에 따라 인근 해관¹⁷⁾을 통하여 수입되는 수산물이 증가하는데 반하여, 수산물 주요 생산

17) 중국의 해관은 우리나라의 세관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곳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규정에 의거, 수출입 운송수단, 화물, 여행물품, 우편물과 기타 물품의 통관이 법규대로 집행되는지 여부의 관리, 관세, 기타 세금 및 비용의 징수, 밀수사찰, 해관통계의 집계 및 기타 해관업무를 처리하고

지인 산둥, 요녕, 관동 지역에서는 해면어로어업과 해면양식 및 내수면 양식의 증가로 인하여 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산물의 수출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중국의 수산물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2003년 기준 수산물 수출은 약 5,237 백만 달러이며 수산물 수입은 1,861백만 달러로 3,376 백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표 4-3〉 참조). 최근 5년간 수산물 무역수지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추세와 함께 수입금액도 1999년 약 9억 달러에서 2003년에는 약 19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표 4-3〉 중국의 수산물 무역수지 추이

단위 : 천 달러,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수 출	2,957,792	3,651,900	3,996,459	4,480,132	5,236,827
수 입	880,878	1,210,283	1,319,019	1,558,429	1,860,987
무역수지	2,076,914	2,441,617	2,677,440	2,921,703	3,375,840

주 : ()안은 전체수출입 대비 수산부문의 수출입 비중임.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er(<http://www.intracen.org/>).

(2) 중국의 수산물 수출입 현황

최근 3년간 수산물 수출 실적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평균 13.9%라는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상위 5개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전체 수산물 수출의 약 85% 내외를 차지하여 특정국가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상당히 심화되어 있는

있음. 체계는 국무원이 설립한 해관총서(海關總署)가 전국의 해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중앙집중적, 통일적, 수직적인 체계를 가짐. 대외개방된 연안지역 및 해관업무가 집중된 주요지역에 해관기구가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258개 기관이 있으며, 특이한 사항은 중국에는 해관기구가 광둥성내에 비교적 많이 집중되어 있어 해관총서는 관주시에 직속 해관기구-광둥분서를 설립하여 총서의 관리를 지원하고 광둥성내 해관업무를 조정토록 하고 있음.

〈표 4-4〉 중국의 상위 20개국 수산물 수출실적 추이(HS 03류 기준)

단위 : 천 달러

구 분	2000			2001			2002		
	국가명	금액	증가율	국가명	금액	증가율	국가명	금액	증가율
	총계	2,270,514	16.5	총계	2,594,417	14.3	총계	2,875,587	10.8
1	일본	906,193	7.8	일본	964,964	6.5	일본	1,096,833	13.7
2	한국	409,809	12.9	한국	590,940	44.2	한국	633,616	7.2
3	미국	346,796	26.5	미국	329,689	-4.9	미국	456,655	38.5
4	홍콩	178,562	11.9	홍콩	171,558	-3.9	홍콩	193,025	12.5
5	독일	102,035	59.9	독일	129,003	26.4	독일	123,161	-4.5
6	스페인	74,388	20.5	스페인	68,011	-8.6	캐나다	55,616	47.8
7	대만	38,085	20.8	미국	57,820	78.8	대만	47,170	85.4
8	캐나다	33,958	67.7	캐나다	37,625	10.8	영국	36,605	-36.7
9	영국	32,344	88	프랑스	33,383	48	폴란드	28,813	1.6
10	이탈리아	22,721	182.2	폴란드	28,369	117.3	대만	24,515	270.5
11	프랑스	22,564	10.6	대만	25,437	-33.2	싱가포르	16,171	13.9
12	네덜란드	14,897	6.8	네덜란드	23,202	55.8	프랑스	15,952	-52.2
13	폴란드	13,054	227.6	이탈리아	22,069	-2.9	호주	15,485	60.2
14	벨기에	11,155	-1.2	싱가포르	14,192	47.8	필리핀	13,528	441.2
15	싱가포르	9,601	34.3	벨기에	12,347	10.7	말레이시아	12,933	47.7
16	마카오	6,626	30.8	호주	9,665	94.2	스페인	12,666	-81.4
17	말레이시아	6,467	8.1	말레이시아	8,755	35.4	네덜란드	9,478	-59.1
18	호주	4,978	28.9	마카오	7,303	10.2	마카오	9,096	24.6
19	포르투갈	4,082	-7.1	대만	6,616	107.6	체코	8,765	33.2
20	스웨덴	3,526	-46.6	체코	6,581	96.4	북한	8,729	117.1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www.kita.net).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출의존도는 중국의 상위 20개국에 대한 수출입 금액 실적을 살펴보면 보다 명확해지는데, 2002년 기준 가장 큰 수출대상국인 일본으로의 수출은 전체 수산물 수출금액¹⁸⁾ 2,875백만 달러 중 약 38%인 1,096백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4〉 참조).

18) 여기서 수산물 수출은 진주제품(HS 2단위 71류)을 포함한 수치임.

〈표 4-5〉 중국의 대 한국·일본 수산물 수출현황(2002년)

단위 : kg, 달러

순 위	한국으로의 수출			일본으로의 수출		
	품목	물량	금액	품목	물량	금액
	합계	481,343,782	687,495,146	합계	823,639,192	2,248,073,110
1	기타냉동어류 (간장과어란제외)	182,794,660	106,925,624	민물장어(조제,처리)	62,077,171	543,612,522
2	굴비(냉동)	33,003,416	89,670,323	기타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어육(신선냉장,냉동)	99,158,449	255,927,535
3	기타 활어	29,815,476	54,756,071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수생무척추동물	56,717,357	215,526,161
4	갈치(냉동)	26,021,085	51,013,798	기타 식용에 적합한 연체동물의 어분(산것, 신선냉장)	140,644,368	156,090,069
5	기타 문어(산것,신선냉장)	23,312,066	37,227,182	기타 어류(조제,처리)	42,768,764	106,755,542
6	게(냉동)	8,646,454	27,491,716	기타 냉동어류 (간장과 어란 제외)	161,641,022	79,498,275
7	굴비(신선냉장)	11,837,228	27,174,744	기타 갑오징어(산것,신선냉장)	21,468,895	66,375,219
8	기타 피레트 및 기타어육(신선냉장,냉동)	14,990,977	27,020,459	기타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신선냉장)	22,468,652	61,473,460
9	문어(산것,신선 또는냉장한것)	12,241,391	23,399,718	캐비어와캐비어대용물 (조제,저장처리)	4,019,256	51,816,193
10	기타 신선또는 냉장한 어류	7,030,384	19,154,609	기타(냉동게)	8,229,731	45,960,454
11	새우살(냉동)	5,130,804	14,159,151	미역	34,365,491	44,421,926
12	기타식용에 적합한 연체동물의 어분(산것,신선냉장)	18,990,420	13,361,489	간장과 어란(냉동)	3,091,821	44,225,839
13	기타(냉동게)	5,085,298	12,628,618	새우와보리새우(조제, 저장처리)	6,428,043	43,775,360
14	민물장어(조제,처리)	1,381,406	12,338,466	게(조제,저장처리)	7,469,982	43,482,652
15	기타(식용 적합한 연체동물의 어분포함)산것,신선냉장)	5,529,805	12,011,749	참새우살(냉동)	5,205,694	43,327,459
16	기타	2,388,596	11,801,840	새우살(냉동)	7,525,448	37,555,462
17	기타 달팽이(바다달팽이제외)	3,832,739	11,315,654	기타(식용 적합한 연체동물의 어분포함)산것, 신선냉장)	7,025,989	33,929,524
18	기타 새우와보리새우	14,878,623	9,618,648	기타 문어(산것,신선냉장)	7,439,507	31,222,012
19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수생무척추동물	7,612,559	9,607,072	고등어(조제,처리)	9,605,953	24,118,369
20	대구(건조,염장, 훈제제외)	1,644,169	9,431,486	기타 새우(냉동)	2,188,798	22,712,291

주 : 1) 중국 수산물 총 수출량은 2,165,818,592kg(4,668,197천달러)이며, 한국과 일본의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각각 14.73%와 48.16%로 나타났다.

2) 중국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수는 전체 188개 품목 중 각각 105개, 123개로 나타났다.

자료 :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編, 「中華人民共和國海關統計年鑑 2002」, 2003.

또한 한국으로의 수출도 동년 기준, 금액으로는 633백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22%를 차지해, 2000년 409백만 달러에서 223백만 달러가 증가하였고, 전체 수출금액에서 차지하는 부분도 전년 18%에서 4%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한 수산물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표 4-5>과 같이 진주제품을 제외한 수산물 수출품목 중 대 한국 주요 수출품목은 기타 냉동어류, 냉동 굴비, 기타활어, 냉동갈치, 문어류 등이 상위 5개 품목으로 나타났다으며, 대 일본 주요 수출품목은 민물장어, 어류의 피레트와 2차 가공 수출품목이 상위 5개 수출품목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수산물 수입현황을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2000~2002년) 평균 21.6% 성장을 나타내 비교적 높은 수입증가율을 기록하였다(<표 4-6> 참조). 2002년 기준 수산물 수입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232백만 달러가 증가한 1,331백만 달러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8년에 비해서는 2.3배가 증가한 것으로, 중국내 수산물 소비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중국의 수산물 주요 수입국으로는 2002년 기준, 전체 수산물 수입중 러시아로부터 수입이 4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0년 28%, 2001년 36% 등의 수입비중과 비교하여 볼 때, 러시아의 수산물 수입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과 한국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2000년에는 수입국 중 3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었으나, 2002년에는 5번째 수입국으로 나타나, 중국내 수입수산물 점유율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가격경쟁력이 타 수입국에 비하여 낮은 것이 점유율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는 6번째의 수입국에서 2001년과 2002년에는 7번째 수입국으로, 중국내 수입수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만한 것은 중국내 수입수산물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중 북한산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2000년에는 상위 20개국에도 포함되지 않은 중국내 점유율

〈표 4-6〉 중국의 수산물 수입실적: 상위 20개국 추이(HS 03류 기준)

단위 : 천달러

구분	2000			2001			2002		
	국가명	금액	증가율	국가명	금액	증가율	국가명	금액	증가율
	총계	1,212,459	37.5	총계	1,331,068	9.8	총계	1,564,067	17.5
1	러시아	345,851	34.3	러시아	487,918	41.1	러시아	622,339	27.6
2	일본	134,991	-25.4	일본	105,781	-21.6	북한	143,016	198.1
3	인도	84,070	589.6	미국	100,287	26.1	미국	105,072	4.8
4	미국	79,541	45.6	India	77,462	-7.9	일본	98,842	-6.6
5	캐나다	77,196	120.2	캐나다	64,338	-16.7	캐나다	79,198	23.1
6	한국	66,743	88.6	노르웨이	63,788	50	노르웨이	63,474	-0.5
7	노르웨이	42,535	118.6	북한	47,977	1,085.4	인도	49,627	-35.9
8	태국	40,450	300.1	한국	44,038	-34	한국	38,420	-12.8
9	모리셔스	29,068	30	뉴질랜드	26,921	2.3	뉴질랜드	38,293	42.2
10	스페인	28,031	61.1	태국	26,838	-33.6	태국	23,684	-11.7
11	대만	26,941	211.8	스페인	25,983	-7.3	덴마크	21,033	89.6
12	뉴질랜드	26,320	116.7	네덜란드	24,979	246.2	싱가포르	19,397	151.5
13	인도네시아	23,090	370.8	인도네시아	23,975	3.8	스페인	18,767	-27.8
14	아르헨티나	17,267	-50.3	오스트리아	18,677	35.6	아르헨티나	17,984	18.8
15	홍콩(차이나)	14,712	8,548.4	아일랜드	16,504	64.2	인도네시아	17,527	-26.9
16	우루과이	14,341	107.3	대만	16,492	-38.8	페루	13,553	376.8
17	호주	13,776	45.9	아르헨티나	15,140	-12.3	아이슬랜드	12,537	-24
18	덴마크	11,986	60.2	덴마크	11,095	-7.4	그린란드	12,388	21.2
19	프랑스	10,648	-76.3	그린란드	10,221	92.2	프랑스	12,368	53
20	싱가포르	10,124	104.6	베트남	8,854	142	베트남	12,054	36.1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www.kita.net).

을 나타냈으나 2002년의 경우, 143백만 달러로 전년도 47백만 달러에 비하여 무려 100백만 달러 가까이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을 추월하고 중국내 수입수산물의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품목별 수입실적은 2002년도 기준, 전체 수산물 188개 중 148개 품목(HS 기준)이 수입되었으며, 금액기준으로 어류의 분·조분, 대구, 기타냉동어류, 기타 갑오징어, 기타 연체동물 등 상위 5개 품목이 67%(물량 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주요 상위 5대 품목의 수입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7〉 참조).

중국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별 현황은 〈표 4-8〉과 같다. 한

국으로부터 수산물 수입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품목은 갑오징어류, 굴류, 기타 연체동물의 어분, 대구, 달팽이 등으로 상위 5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입금액으로는 73.7%(물량은 73.5%)인 33,994천 달러(물량 32,272천 톤)를 나타냈다.

〈표 4-7〉 중국의 주요 수산물 수입실적(상위 20개 품목, 2002년)

단위 : kg, 천달러

순위	HS Code			품목명	수입량	수입금액
1	2301	20	10	어류의분, 조분 및 피레트	958,151,378	633,504
2	0303	60	00	대구(간장, 어란제외)	457,948,353	528,208
3	0303	79	90	기타 어류(냉동)	196,655,319	166,173
4	0307	49	00	기타 갑오징어(산것, 신선, 냉장)	190,856,880	115,421
5	0307	91	99	기타 연체동물과 수생무척추동물 (산것, 신선, 냉장)	102,131,794	89,788
6	0306	13	19	기타 새우(냉동)	56,293,665	71,153
7	0303	80	00	간장과 어란(냉동)	10,539,427	68,525
8	0303	32	00	가자미(냉동)	77,806,313	65,767
9	0306	14	90	기타(냉동계)	16,809,926	56,392
10	0303	19	00	기타 연어(냉동)	39,143,522	35,945
11	0303	79	10	갈치(냉동)	76,834,095	33,721
12	0303	74	00	고등어(냉동)	42,510,122	31,637
13	0307	59	00	기타 문어	9,865,031	27,110
14	2309	90	90	기타 배합사료	51,719,519	22,260
15	0305	59	20	상어지느러미(건조, 염장, 염수장)	3,555,157	21,951
16	0303	72	00	해덕(냉동)	11,377,964	21,819
17	0306	24	92	게(냉동하지 않은 것)	3,040,856	19,388
18	0307	60	90	기타 달팽이(바다달팽이 제외)	4,961,343	15,930
19	0306	13	11	새우살(냉동)	5,336,552	14,246
20	1212	20	90	기타 해초류와 기타 조류	41,991,422	13,979
상위 20개 품목의 수입량 및 수입금액(A)					2,357,528,638	2,052,917
전 수입품목의 수입량 및 수입금액					2,542,327,080	2,268,911
(A/B)					92.73%	90.48%

자료 :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編, 「中華人民共和國海關統計年鑑 2002」, 2003.

〈표 4-8〉 중국의 대한·대일 수산물 수입실적(2002년 기준)

단위 : kg, US달러

순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품목	물량	금액	품목	물량	금액
	합계	43,922,081	46,149,371	합계	70,036,870	104,658,246
1	기타 갑오징어(산것, 신선냉장)	23,144,422	17,585,115	간장과 어란(냉동)	4,059,065	33,095,746
2	기타 굴(산것, 신선냉장, 냉동, 건조, 염장 및 염수장)	150,120	5,529,564	기타 연어(냉동)	21,184,459	18,242,868
3	기타 식용에 적합한 연체동물의 어분(산것, 신선냉장)	6,107,160	4,900,583	기타 갑오징어(산것, 신선냉장)	14,365,603	9,863,904
4	대구(냉동(간장, 어란 제외))	2,381,700	3,174,563	기타 냉동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6,101,270	6,209,638
5	기타 달팽이	488,642	2,804,924	기타(냉동계)	1,294,653	3,735,764
6	기타 냉동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2,226,190	1,924,304	기타 문어(산것, 신선냉장)	1,091,153	3,493,550
7	해덕(냉동)	1,327,976	1,629,342	기타 참새우(냉동)	279,081	2,312,448
8	가자미(냉동)	1,131,536	1,059,623	대구(냉동(간장, 어란 제외))	2,454,493	2,279,939
9	날개다랭이, 긴지느러미다랭이	1,000,000	872,580	기타 새우(냉동)	951,429	2,117,941
10	대구(신선냉장)	800,000	766,314	기타 어류의 피레트(신선냉장, 냉동)	902,213	1,729,702
11	기타 건조, 염장어류(훈제제외)	57,892	569,957	기타 연어류(냉동)	1,488,865	1,655,843
12	기타 해초류와 기타조류	125,944	543,957	가자미(냉동)	1,197,180	1,517,100
13	갈치(냉동)	522,529	525,692	황다랭이(신선냉장)	672,505	1,363,625
14	기타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의 분,조분 및 피레트	810,000	435,941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 갑각류, 연체동물	650,371	1,205,414

(〈표 4-8〉 계속)

순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품목	물량	금액	품목	물량	금액
15	기타 식용 적합한 양식용 연체동물	269,500	350,286	기타 새우와 보리새우	143,982	1,166,187
16	기타(조제,저장처리)	40,811	325,726	고등어(냉동)	921,613	1,120,554
17	김	58,175	292,456	기타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	2,129,470	893,843
18	어류의분, 조분 및 피레트	501,395	258,665	기타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의 분,조분 및 피레트	1,512,000	860,160
19	미역	1,001,000	253,494	태평양연어(신선냉장)	774,678	832,248
20	뱀장어((액결라종)냉동)	212,540	218,230	곰상어와 기타상어	930,226	799,651

주 : 1) 중국 수산물 총 수입량은 2,542,627,080kg(2,268,911천달러)이며, 한국과 일본의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각각 2.03%와 4.6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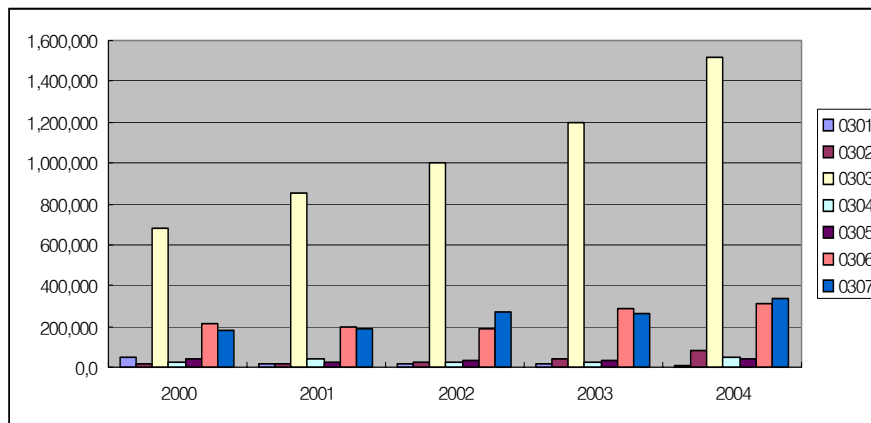
2) 중국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수는 전체 188개품목중 각각 60개, 97개로 나타났다.

자료 :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編, 「中華人民共和國海關統計年鑑 2002」,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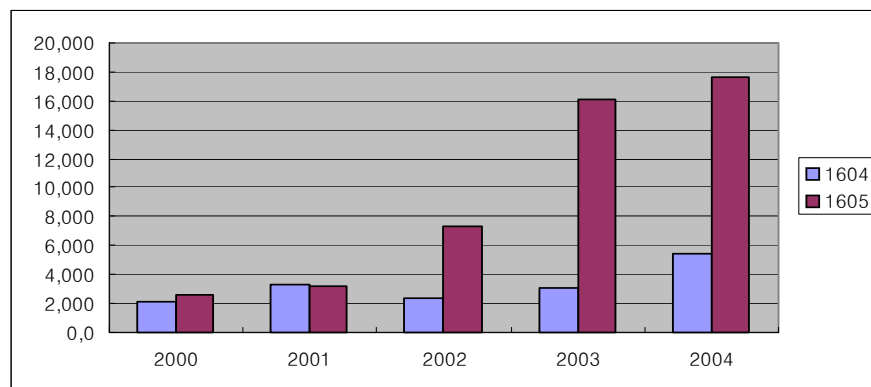
일본으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간장과 어란, 기타 연어류, 기타 갑오징어류, 기타 냉동어류, 기타 냉동계류 등으로 상위 5개 품목이 차지하는 수입 비중은 전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금액 중 67.9%(물량 67.1%)인 71,147천 달러(물량 47,005천 톤)를 나타내, 중국에서 수입하는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집중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수입품목을 HS 4단위별로 연도별 수입추이를 살펴보면, 0301류인 활어의 수입은 최근 5년간 32% 감소하였으며, 0305류의 수입도 1% 감소하였다. 반면 1605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인 1605류의 수입이 61% 증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신선냉장어류의 수입은 연평균 55%의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그 외 1604류와 0303류의 수입이 모두 20% 증가하였다. 그 추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3〉과 〈그림 4-4〉와 같다.

〈그림 4-3〉 중국의 HS 03류의 수입 추이



〈그림 4-4〉 중국의 1604류와 1605류의 수입 추이



2. 중국의 수산물 무역장벽

여기서는 대중국 수산물 수출을 확대함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장애가 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직·간접적인 장애요인은 크게 제도적 요인

과 비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도적 요인은 관세제도와 비관세제도를 의미하며, 비제도적 요인은 유통관행과 같은 법적인 장치 이외의 요인을 의미한다.

1) 중국의 수산물 관세장벽

중국의 관세율 구조는 WTO 가입과 동시에 수출관세율이 거의 폐지되고 있어, 수입관세율 구조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과거 중국의 WTO 가입 이전에는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국내외적 상황, 상품의 용도, 국내외 관련 정책에 따라 달리 정해지며 관세율의 조정이 비교적 자주 이루어졌으나, 2001년 1월 이후 수산물에 대한 관세율의 대대적인 인하와 함께 향후 추가적인 관세인하안을 WTO에 제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기본관세에 해당되는 중국의 일반관세는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수입품의 사용 용도에 따라 관세율을 달리 책정하는데,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즉, ① 생산재 저율(低率), 소비재 고율(高率) ② 생산재 중 원자재 저율, 반제품과 완제품 고율 ③ 소비재 중 생필품 저율, 고급소비재 고율이며, 특히 사치품과 비필수품에 대해서는 200%의 최고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 관세제도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중국과 함께 최혜국대우조항을 적용받는 WTO회원국 및 지역이 원산지인 수입품목에 대해 적용하는 세율과 중국과 관세우대조항을 포함하는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원산지인 수입품목에 적용하는 협정세율이 존재하여, 최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국가의 상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통세율을 적용하고 있다.¹⁹⁾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의 WTO 가입과 동시에 과거 한·중간 체결된 관세호혜협정(1994년 9월)에 의거 모든 수출상품에 대해 우대세율을 적용 받았으나,

19) 중국 수출입관세조례 제6조.

현재는 최혜국대우세율을 적용 받고 있으며, 또한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방콕협정가맹국 3개국이 원산지인 902개의 세목에 한해서 방콕협정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중국 수산물의 관세율 구조를 살펴보면 중국은 WTO 가입과 동시에 WTO회원국 및 지역이 원산지인 수입품목에 대해 최혜국대우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최혜국대우세율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수산물의 총 품목 수는 188개로 나타났으며 수산물의 기본 관세율범위는 36단계, 평균세율은 25.12%로 나타났다.²⁰⁾

중국의 실행관세는 최혜국대우세율과 수입품목에 한해 일종의 부가가치세 성격의 증치세²¹⁾를 더한 것을 혼합하여 실행관세를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방콕협정가맹국이 원산지인 수산물 수입품목에 적용하는 협정세율²²⁾이 있을 경우에는 최혜국대우세율이 아닌 협정세율과 증치세를 더한 관세율이 실행관세가 된다.

중국의 실행관세를 기준으로 수산물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13~51.6%까지 39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기준상 고관세로 분류되고 있는 15% 이상이 171개로 전체 188개 품목의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9〉 참조). 다양한 관세율 가운데 전체 품목의 21%에 해당하는 39개 품목은 21%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으며, 전체 품목의 11%를 차지하는 21개 품목이 25%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우리나라 수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할 때 비교할 때 43류 2개 품목이 제외되면, 2003년 기준 총 품목 수는 188개이며, 평균관세율은 25.12%임.

21) 증치세율은 13%와 17%로 구분할 수 있는데, 13%의 증치세율이 붙는 수산물수입물품은 01류, 02류, 03류, 05류, 12류, 23류 등 총 6류, 159개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17%의 증치세가 붙는 수산물수입물품은 13류, 15류, 16류, 21류, 43류 등 총 5류, 29개 품목으로 나타났음.

22)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수산물 수입품목에 대한 방콕세율 적용 품목수는 총 64개임. 세율별 품목수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8%→ 5개, 9%→ 13개, 10%→ 33개, 12%→ 1개, 13%→ 1개, 15%→ 9개, 18%→ 2개임.

〈표 4-9〉 중국의 수산물 실행관세율 구조(MFN+협정관세+증치세, 2003년 기준)

품목 관세율	01류	02류	03류	05류	12류	13류	15류	16류	21류	23류	43류	계
13%			17									17
15%			1							1		2
17%			2									2
18%			3							1		4
20,1%										1		1
21%			39									39
22%			12					2				14
23%	1		2									3
23,5%			2									2
25%			18	3								21
26%			2					2				4
27%			2					1				3
28%			2	1								3
28,7%								3				3
29%			6		1		1	4				12
29,5%						1						1
29,7%			6									6
30%			1		1							2
30,2%			11									11
31%			3									3
31,3%					2							2
31,5%							1					1
31,6%							1	5				6
31,8%			9									9
32%								1				1
32,6%			1									1
33%			2		1							3
33,6%		1										1
34%					1		1					2
34,2%								2				2
34,7%			1									1
36%		1										1
37%											2	2
38%			1									1
44%									1			1
51,6%									1			1
계	1	2	143	4	6	1	4	20	2	3	2	188

주 : 실행관세 평균 = 25,12%.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03 중국관세율 및 수출입 요령(보완판), 2003.

HS 2단위별 수산물의 실행평균관세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21류와 43류로써 모두 40% 이상의 고율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다. 03류의 경우에는 13%의 관세율에서부터 38%의 관세율까지 다양한 관세율 적용이 나타났지만 전체 03류 품목 143개 중 50%에 해당하는 품목은 25% 미만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다. 이러한 관세구조는 중국의 실행관세율이 고차 가공된 수산물일수록 고율의 관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HS 4단위를 기준으로 한 03류에 대한 실행관세율 구조를 살펴보면, 03류의 실행관세 범위는 13%부터 38%까지 총 22단계이며, 실행평균관세율은 23.61%를 나타내고 있다. 03류의 품목별 실행관세율을 살펴보면 활어(0301)는 대부분 13~23.5% 사이의 관세율을 적용받으나, 예외적으로 관상용 수산물(HS코드 0301100)은 최혜국세율 25%에 증치세 13%까지 더해져 38%의 고관세가 적용되었다. 신선·냉장 어류(0302) 29개 품목과 03류 중 가장 많은 품목을 가지고 있는 0303류의 냉동어류는 17~25% 이내의 관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류 피렛트, 기타어육의 신선·냉장·냉동(0304)류의 총 4개 품목은 25% 관세율 적용품목이 1개, 29%의 관세적용품목이 3개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수산물 전체 관세율 구조에서도 나타나듯이 가공도가 높을수록 고율의 관세가 부과됨을 알 수 있다. 건조·염장·염수장·훈제한 어류와 어류의 분·조분인 0305류의 경우에는 총 19개 품목 가운데 실고기, 해마(HS 코드 03055910)을 제외한 18개 품목이 25% 이상의 관세를 적용받는데, 그 중에서도 청어, 대구, 연어, 갈치, 조기 등은 3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된다. 갑각류에 해당하는 0306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양식용갑각류만 13%의 저율의 관세가 적용되고 닭새우류, 바닷가재, 게, 담수가재 등은 3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연체동물 및 기타수생동물에 해당하는 0307류는 총 21개 품목이 13~33%의 범위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표 4-10〉 중국의 수산물 HS 4단위 03류 실행관세율 구조(2003 기준)

품목 관세율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계
13%	6					5	6	17
15%					1			1
17%			1			1		2
18%						3		3
21%	3	14	22					39
22%		7	5					12
23%		2						2
23.5%	2							2
25%		6	6		2	1	2	18
26%				1	2			2
27%		4				2		2
28%					2			2
29%				3	3			6
29.7					1	3	2	6
30%							1	1
30.2%					2	2	7	11
31%						3		3
31.8%					6	3		9
32.6%							1	1
33%							2	2
34.7%						1		1
38%	1							1
계	12	29	34	4	19	24	21	143

주 : 1) 실행관세 평균 = 23.61%

2) 0301 활어, 0302 신선·냉장어류, 0303 냉동어류, 0304 어류 피렛 및 기타어육, 0305 건조염장염수장 훈제한 어류와 어류의 분조분, 0306 갑각류, 0307 연체동물과 수생무척추동물, 16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16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2301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의 분·조분·펠리트(비식용), 수지박.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03중국관세율 및 수출입 요령(보완판), 2003.

HS 4단위 분류보다 좀 더 세분화해서 중국 수출수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10개 품목²³⁾을 통해 중국의 관세율 구조를 살펴보면, 〈표 4-11〉와 같다. 수출금액 상위 10개 품목은 모두 03류인데, 금액상으로는 0307류가 약 54%로 주종을

23) 상위 10개 품목의 총 수출금액은 71,264,695달러로 전체 품목의 총 수출금액인 84,081,038달러의 약 85%에 달함.

이루고 있고, 품목수로는 0306류가 6품목, 0307류가 4품목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수산물은 금액, 품목면에서 0303류와 0307류가 핵심임을 알 수 있다.

상위 10개 품목의 기본관세율은 15.35%, 증치세를 포함한 종합관세율은 26%로 중국 수산물 전체 품목의 평균 관세율 14.71%(기본관세), 25.69%(실행관세)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표 4-11〉 중국의 대한국 주요 수입수산물 관세율 구조

단위 : US\$, %

품목명	HS분류		수출금액	최혜국 대우 세율 ³⁾	증치세 ³⁾	방콕 협정 세율	종합 세율 ³⁾
	중국(8단위) ²⁾	한국(10단위) ²⁾					
합계			44,344,967				
소계			38,891,587				
오징어(냉동)	03074900	0307491020	16,081,940	15.3	13	-	28.3
기타어류(냉동) ¹⁾	03037990	0303799099	4,253,927	14	13	8	21
명태(냉동) ¹⁾	03037990	0303791000	4,183,432	14	13	8	21
기타연체동물 (냉동)	03079990	0307991190	4,049,134	20	13	-	33
갑오징어(냉동)	03074900	0307491010	3,149,991	15.3	13	-	28.3
대구(냉동) ¹⁾	03036000	0303600000	2,820,926	14	13	8	21
새꼬리민태 (냉동) ¹⁾	03037990	0303799080	2,228,745	14	13	8	21
임연수어(냉동) ¹⁾	03037990	0303799060	890,640	14	13	8	21
피조개(산것/신선, 냉장)	03079199	0307911500	630,578	20.4	13	-	33.4
기타넙치류 (냉동) ¹⁾	03033900	0303390000	602,274	12.5	13	8	21

주 : 1) 해당 품목은 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가 원산지인 품목에 대한 방콕협정세율품목임.

2) HS Code는 8단위는 중국분류이고, 10단위는 우리나라 분류임.

3) 한국수산물이 중국으로부터 적용받는 세율은 최혜국대우세율(MFN)(또는 방콕협정세율)+증치세임. 즉, 방콕세율이 있는 품목은 최혜국대우세율과 증치세의 합이 종합세율이 되고, 방콕협정세율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세율과 증치세의 합이 종합세율이 됨. 여기서 종합세율은 실행관세를 말함.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02 중국관세율 및 수출입 요령」, 2002.; 해양수산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2002.; 해양수산부, 「2002년도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3.

2) 중국의 수산물 비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이란 자유로운 국제 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 지자체, 업계 등이 자국 제품과 수입제품을 차별하는 직·간접의 선별적 규제로 정의된다. 이 같은 비관세 장벽은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운용에 있어 자의적인 요소가 강하여 관세장벽에 비해 국제무역을 왜곡하는 효과가 크다. 비관세 장벽을 분류하는 기준에는 WTO(세계무역기구) 기준, UNCTAD(UN무역개발회의) 기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WTO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부 관여, 수입절차, 제품기준, 수입에 관한 특정 제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표 4-12〉 WTO의 비관세 장벽 분류

구 분	내 역
정부관여	국영무역, 정부 조달 등
세관 및 행정상의 수입절차	반덤핑 관세, 자의적 관세 분류, 구비 서류 요구, 원산지 증명 등
제품 기준	보건 및 안전 기준, 용기 규정, 제조 기준, 가공 규정 등
수입에 관한 특정제한	수량 제한, 수입금지, 수입허가, 관세 할당 등
가격에 의한 규제	수입담보금, 영사수수료 등
기타 규제	광고 및 운송 규제, 제한적 상관행 등

중국의 수산물 수출과 관련된 비관세 장벽의 유형은 〈표 4-12〉처럼 WTO가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

응답자 약 90%가 비관세 장벽을 경험했다고 하였으며, 이 같은 비관세 장벽이 직·간접적으로 수출 업무에 차질을 주며 결과적으로 자국내 수입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²⁴⁾ 이 같은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24) 중국의 수산물 비관세 장벽은 2003년 기준, 중국으로 수산물을 10만 달러 이상 수출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2004년 9월 1부터 9월 15일까지 2주간에 걸쳐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활용함. 조사대상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12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설문 회수율은 20%였음. 상세한 내용은 주문배 외, 한중일 FTA 수산업 부문 영향분석(경사연 협동연구, 2004)을 참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비관세 장벽을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서 WTO가 분류하는 비관세 장벽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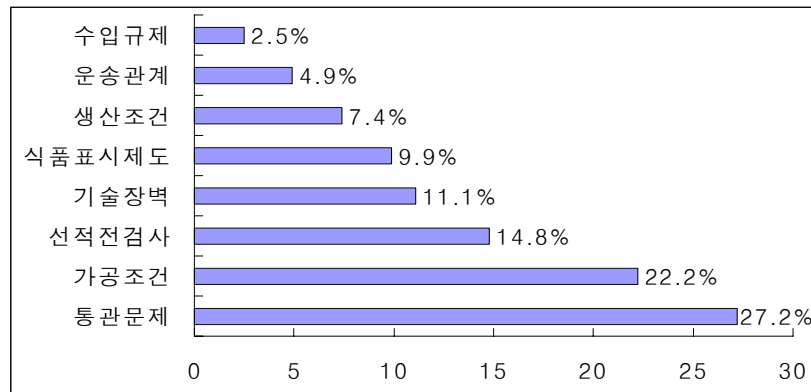
〈표 4-13〉 중국의 주요 비관세 조치 유형

구분	국가	상세 내용
세관 및 행정상의 수입절차	중국	○ 지역별 통관처리 기준 상이
		○ 통관 관련규정의 사전예고 없는 변경
		○ 통관에 필요한 서류 과다 요구
		○ 세관의 짧은 근무시간
제품기준	중국	○ 위생증명서 엄격요구
		○ 수입수산물의 중금속 함유량 기준 적용
		○ 중국 이외 다른 국가의 검사결과 인정하지 않는 비유통적 관행

첫째, 중국의 통관 절차는 수입 운송수단의 책임자, 물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 물품의 소유자가 해관에 수입 수속을 신청하고 해관에 제출된 증명서와 수입통관을 신청한 물품을 조사, 심의, 관세부과 등 4가지 기본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이 같은 통관 절차가 지역과 세관 직원에 따라 통관 처리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통관 관련 규정이 사전예고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수출입자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관련선적서류(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와 수입허가증(쿼터 증명서 등), 상품검사, 검역 증명서 등의 특수 서류 외에 추가로 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서, 원산지 증명, 수입업체의 영업허가증, 기타 관련 서류 등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여 대 중국 수산물 수출업자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5〉 대중 수출의 비관세 장벽 유형별 실제 경험 사례



이 같은 통관 절차의 복잡성 외에도 중국의 통관은 세관 근무 시간외에 공휴일에는 통관이 허용되지 않아 신속한 통관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1일 통관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 처리가 가능한 시간은 5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매일 15시 30분에 컴퓨터 작업을 중단하고, 주 5일 근무로 금요일 오후에는 업무를 보지 않는 등 세관의 짧은 근무시간으로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둘째, 중국의 수산물 제품 기준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 나라 나름대로의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 판정 절차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국가 간 상이한 표준화 제도는 국가 간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수출국은 수입국의 기술명세에 부합하도록 변형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비용이 발생해 수출국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는 반면 수입국은 표준화제도의 차이에 의해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제품기준에 의한 비관세 장벽은 중국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의 경우 가공조건과 관련하여 수입 수산물의 위생증명서를 요구하며, 수출 수산물의 가공 시설 및 공장의 위생이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제도에 부합할 때 수출이 가능하다. 또한 위생증명서 등의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하면서 중국의 위생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수산물 수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27.8%였다. 중국의 위생 표준은 식품 중 농약잔류 허용 기준과 중금속 함유량 및 주요 품목별 위생표준으로 나뉘는데, 수산물과 관련된 중금속 함유량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등 특정 물질에 대한 검사는 반드시 실시하도록 해 검사 비용을 가중시킨다.

여기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국이 자국 소재 검사 기관 외 한국을 비롯한 타국의 검사기관에 의한 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 등 융통성 없는 검사체계이다. 이와 관련한 문제 때문에 국내 수출업자들이 어려움이 많다는 견해도 설문 조사 결과 44.4%를 차지했다. 또한 검사 기준이 자주 변경되거나 혹은 변경에 따른 사전 공시 기간이 짧아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수입을 규제하려는 주요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과 같이 비관세 조치는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운용에 있어 자의적인 요소가 강하여 관세장벽에 비해 국제무역을 왜곡하는 효과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비관세 조치를 비제도적인 사항까지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중국의 수산물 비관세 조치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122개 국내기업이 응답한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업체는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조치로 통관문제, 가공조건, 생산조건 등을 지적하였는데, 그 중에서 통관문제와 가공조건을 약 50%의 응답자가 지적하였다.

3. 중국의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국별 경쟁관계 분석

경쟁력 변화의 측정은 크게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인 즉, 가격경쟁력 및 비가격경쟁력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과 경쟁력 변화의 결과인 시장점유율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흔히 국제경쟁력 측정에 자주 사용되는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 RCA)의 경우에는 수출성과에 기초를 둔 지수로써 이미 실현된 무역을 통하여 나타난 시장점유율을 기초로 국제경쟁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가격요인 및 비가격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수출 수행능력을 총괄적

으로 나타내는 분석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격에 직접 기초가 되지 않고 제도적, 정치적 차이가 심한 국가간에는 비교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3절에서는 중국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산물이 갖는 경쟁력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중국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수산물의 위치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수산물이 중국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시장점유율을 분석하고, 동시에 중국시장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다른 국가와 우리나라의 중국시장내에서의 경쟁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1) 중국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수산물 위치

우리나라의 수산물 대중 수출은 2000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하다가 2003년 증가하여 70,769천 달러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는 일본, EU, 미국에 이어 4번째로 중국에 수산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다. 우리나라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 성과를 나타내는 국산 수산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3년에는 3.79%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00년 이후 국산 수산물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다가 다시 소폭 증가한 것이다(〈표 4-14〉 참조).

〈표 4-14〉 한국의 대 중국 수산물 교역현황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총수출(A)	1,504,470	1,273,619	1,160,435	1,129,385
대중수출(B)	84,090	55,709	48,345	70,769
대중수출비중 (C=B/A)	0.056	0.044	0.042	0.063
중국시장점유율*	6.94	4.19	3.09	3.79
수출 실적**	2위	4위	4위	4위
대중수입(D)	486,841	634,449	719,314	713,538
무역수지(B-D)	-402,751	-578,740	-670,969	-642,769

주 : 1) 중국시장점유율*이란 중국시장내 한국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중국이 수입하는 한국산 수산물을 중국 수산물 총 수입량으로 나눔

2) 수출실적**란 중국이 우리나라 수산물을 4번째로 많이 수입하고 있음을 의미함(2003년 기준)

자료 : 해양수산부 통계자료를 재구성하였음.

한편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중국의 수산물 수입은 연평균 0.18% 증가하였다. 2004년을 기준으로 수입국을 1위에서 10위까지 살펴보면 러시아, 북한, 미국, 일본, 캐나다, 노르웨이, 인도, 한국, 뉴질랜드, 태국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 미국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은 중국의 수산물 수입 연평균 증감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과 인접해 있는 북한으로부터 수산물 수입이 연평균 1.83%씩 증가해 중국의 주요 수산물 수입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입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중국과 가까이 있는 한국산 수산물의 수입은 연평균 0.04%씩 증가한 반면 일본에서는 수입이 감소해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표 4-15〉 참조).

〈표 4-15〉 중국의 국별 수산물 수입동향(HS 03류 기준)

단위 : 천 달러, %

순위	국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 증가율
1	러시아	345,851	487,918	622,339	661,981	779,507	0.23
2	북한	4,047	47,977	143,016	206,931	261,231	1.83
3	미국	79,541	100,287	105,072	132,878	243,244	0.32
4	일본	134,991	105,781	98,842	118,580	108,750	-0.05
5	캐나다	77,196	64,338	79,198	101,201	133,129	0.15
6	노르웨이	42,535	63,788	63,474	91,477	128,997	0.32
7	인도	84,070	77,462	49,627	45,925	47,348	-0.13
8	한국	66,743	44,038	38,420	48,625	77,998	0.04
9	뉴질랜드	26,320	26,921	38,293	37,963	57,426	0.22
10	태국	40,450	26,838	23,684	26,801	40,056	-0.00
10개국의 수입액(a)		901,744	1,045,348	1,261,965	1,472,362	1,877,686	0.20
전체 수입총계(b)		1,212,459	1,331,068	1,564,067	1,865,782	2,338,920	0.18
10개국의 수입비중(a/b)		74	79	81	79	80	

주 : 각 국별로 중국에 수출한 수산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한국무역협회의 중국통계에서 중국이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한 수산물(03류)에 관한 데이터를 정리한 것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를 수출입통계 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지금까지 중국의 수산물 수입동향 및 중국이 수산물을 수입하는 주요 국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중국의 주요 수산물 수입국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이 중국 수산물 시장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다음의 <표 4-16>을 보면, 중국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러시아로써 2004년 33.3%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북한이 11.2%, 미국이 10.4%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3.3%로 태국, 뉴질랜드, 인도 등보다도 수입시장 점유율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주요국의 중국수산물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03류 기준)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총수입액	1,212,459	1,331,068	1,564,067	1,865,782	2,338,920
한국	5.5	3.3	2.5	2.6	3.3
러시아	28.5	36.	39.8	35.5	33.3
북한	0.3	3.6	9.1	11.1	11.2
미국	6.6	7.5	6.7	7.1	10.4
일본	11.1	7.9	6.3	6.4	4.6
캐나다	6.4	4.8	5.1	5.4	5.7
노르웨이	3.5	4.8	4.1	4.9	5.5
인도	6.9	5.8	3.2	2.5	2.0
뉴질랜드	2.2	2.0	2.4	2.0	2.5
태국	3.3	2.0	1.5	1.4	1.7

자료 : 한국무역협회의 수출입통계 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지금까지 중국의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각 국가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국가가 중국에 어떤 수산물을 수출하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국시장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한국 및 경쟁 국가의 시장 점유율 및 수출 품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중국에 수산물 수출을 늘리기 위한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 대상 국가는 한국을 비롯한 러시아, 미국, 일본, 캐나다, 인도, 뉴질랜드

〈표 4-17〉 국가별 HS 4단위 분류별 중국시장 점유율(2004년)

단위: 천 달러, %

구분	한국	러시아	미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
0301	76 (0.09)	67 (0.01)	112 (0)	78 (0.07)	—	1 (0)	—
0302	—	317 (0.04)	818 (0)	2,206 (2.01)	—	1,386 (1.01)	15 (0.03)
0303	28,052 (34.38)	753,294 (93.38)	200,845 (65)	79,596 (72.53)	38,526 (49.50)	33,168 (24.07)	21,680 (45.63)
0304	2,217 (2.72)	4,265 (0.53)	14,390 (5)	830 (0.76)	4,383 (5.63)	1,437 (1.04)	319 (0.67)
0305	846 (1.04)	827 (0.10)	422 (0)	1,138 (1.04)	38 (0.05)	4,165 (3.02)	1,373 (2.89)
0306	1,454 (1.78)	13,516 (1.68)	11,522 (4)	13,581 (12.38)	124 (0.16)	85,267 (61.87)	17,297 (36.40)
0307	45,354 (55.58)	7,222 (0.90)	15,136 (5)	11,320 (10.32)	14,355 (18.44)	7,704 (5.59)	6,664 (14.02)
1604	495 (0.61)	66 (0.01)	66 (0)	491 (0.45)	—	1 (0)	14 (0.03)
1605	309 (0.38)	1,448 (0.18)	2,008 (1)	415 (0.38)	—	3,669 (2.66)	155 (0.33)
2301	2,797 (3.43)	25,653 (3.18)	64,516 (21)	80 (0.07)	20,408 (26.22)	1,011 (0.73)	—
총합	81,599 (100)	806,674 (100)	309,835 (100)	109,736 (100)	77,834 (100)	137,810 (100)	47,516 (100)

주 : 1) ()안은 각 국가의 수출품목의 점유율을 나타냄.

2) 각 국가의 대중국 수산물 수출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각 국가별로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중국이 이들 국가에서 수입하는 금액을 각 국가의 수출액으로 보고 환산한 것임.

3) 면색이 있는 부분은 각 국가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품목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드 등 7개국으로 제한하였다. 수산물은 HS 분류기준 4단위의 03류(0301류~0306류)와 16류의 1604류와 1605류, 그리고 23류의 2301류로 한정하였다. 그 결과, 2004년 기준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수산물 가운데 가장 점유율이 높은 상품은 0307류의 연체동물과 수생무척추동물류의 수출점유율이 가장 높았고, 0303류의 냉동어류의 수출비중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중국에 수출하는 활어(0301류)의 비중도 0.09%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 대상국가에 중국에 수출하는 수산물품목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러시아, 미국,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모두 0303류 냉동어류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2301류의 수출이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 국가의 수출 품목 가운데 이 두 상품군의 수출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러시아는 전체 수출품의 90% 이상이 냉동어류에 집중되어 있었고, 2301류의 어분은 3% 정도 수출하고 있었다.

일본 역시 냉동품의 수출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0306류의 갑각류의 수출비중도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활어의 수출도 전체의 0.07%를 차지하고 있었다. 캐나다는 갑각류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냉동어류의 수출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두 품목군의 수출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인도는 냉동어류, 갑각류 순으로 수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17〉 참조).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2004년 기준 중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상품간의 점유율을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한국이 최근 4년간 중국으로 수출한 수산물의 품목구성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다음의 〈표 4-18〉을 살펴보면 2000년 활어(0301류)는 중국 전체 수산물 수출 가운데 12.2%를 차지하였으나 꾸준한 감소세로 2004년 비중은 0.09%를 기록, 연평균 70.4%의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었다. 신선, 냉장어류(0302류) 역시 2000년 기준 수출점유율이 완만한 증가를 보였으나, 2002년을 기점으로 하여 다시 점유율이 감소하여 2004년에는 0%를 기록하였다. 국내 수산물 중 수출 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1604류(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이며, 2000년 이후 수출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 연평균 수출증가율 129%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은 갑각류로써 지난 4년 연평균 증가율 42%를 나타냈다.

이상에서 중국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들을 살펴보고, 이들 국가

들의 상품 구성도도 함께 보았다. 그 중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산물 수출 중 품목의 점유율 변화추이를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같은 개별 국가별 상품의 시장점유율을 통해서는 동일 상품을 수출하는 여러 국가간의 경쟁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가 없다. 즉, 같은 냉동오징어를 미국과 한국이 동일하게 수출하더라도 중국시장에서 한국산 오징어와 미국산 냉동오징어가 가지는 경쟁정도는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 같은 한계점 때문에 중국시장에서 수입되는 상품의 국가별 경쟁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수입점유율 분석을 할 것이다.

〈표 4-18〉 한국의 대중국 수출 수산물의 구성비 변화추이

단위 :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증가율
0301류	12.16	0.00	0.03	0.17	0.09	-70.4
0302류	0.57	0.88	2.35	0.26	0.00	-29.9*
0303류	13.82	25.83	25.44	32.50	34.38	25.6
0304류	1.64	0.94	0.36	2.82	2.72	13.5
0305류	0.32	0.54	0.69	0.54	1.04	33.9
0306류	0.44	2.69	0.82	4.36	1.78	42.2
0307류	68.45	66.34	67.26	56.13	55.58	-5.1
1604류	0.02	0.79	1.03	0.77	0.61	128.6
1605류	0.38	0.89	0.27	0.00	0.38	-0.3
2301류	2.20	1.10	1.75	2.44	3.43	11.7
총합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는 200~2003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임.

주 : 0301 활어, 0302 신선·냉장어류, 0303 냉동어류, 0304 어류 피렛 및 기타어육, 0305 건조염장염수장 훈제한 어류와 어류의 분조분, 0306 갑각류, 0307 연체동물과 수생무척추동물, 16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16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2301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의 분·조분·펠리트(비식용), 수지박.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 활용.

2) 국별 품목별 수입점유율 분석

기존에 많이 활용되었던 수출경합도지수는 비교대상 국가의 수출상품구조가 유사할수록 양국간 경쟁의 정도가 높다는 전제하에 특정시장에 있어서 비교대상 국가간의 수출상품구조가 유사한 정도를 지수화하여 경합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즉, 수출경합도 지수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수출경합도} = \sum \text{Min} [X_i(\text{AC}), X_i(\text{BC})]$$

단, $X_i(\text{AC})$: A국의 C국에 대한 수출 중 상품 i의 비중

$X_i(\text{BC})$: B국의 C국에 대한 수출 중 상품 i의 비중

수출경합도지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갖게 되는데, 1에 가까울수록 C국가 시장에서 i품목에 대하여 A국가와 B국가간의 경합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특정국가간의 경쟁지수만을 제공할 뿐 여타 국가들과의 상대적 경쟁정도는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주요 수출시장을 중국시장으로 두고, 중국시장에서 주요경쟁국의 품목별 수입점유율 분석을 통해 한국과 경쟁국가간의 경쟁정도를 측정해 보고자 한다.

(1) 분석 방법

한국의 향후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가장 인접국이면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을 타겟 시장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경쟁국은 중국 수산물 시장 수입점유율이 높은 러시아, 미국, 일본, 인도, 뉴질랜드, 캐나다 등 6개국을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품목은 HS품목 기준에 따라 4단위 품목의 0301류, 0302류, 0303류, 0304류, 0305류, 0306류, 0307류, 1604류, 1605류, 2301류로 분류하였다.

경쟁도의 계산방법은 다음의 식과 같다.

$$C_I = \sum_J \sum_H \left(\frac{E_{IJ}^H}{M_J^H} \right) \times \left(\frac{E_{KI}^H}{E_K} \right)$$

C_I = I국의 한국(K)과의 경쟁도(경쟁지수)

E_{IJ}^H = I국의 J국에 대한 H품목의 수출

M_J^H = J국의 H품목의 대경쟁국 총수입(한국제외)

E_{KI}^H = 한국(K)의 J국에 대한 H품목 수출

E_K = 한국(K)의 총수출

단, 경쟁도 가중치(우리나라의 수출상품 비중)는 매년 조정함

즉, 특정시장 J국에서 경쟁국(I)간의 품목별(H) 수입시장 점유율을 한국수출로 가중평균함으로써 한국과 경쟁국간의 경쟁도(경쟁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2) 분석 결과

다음의 <표 4-19>는 중국 수산물시장에서 한국과 경쟁국가들 간의 대 중국 수산물 수출 경쟁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중국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경쟁관계가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결과치를 보면 중국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한국은 러시아, 미국 등과 경쟁이 가장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미국과의 경쟁도는 2004년 기준 0.31, 0.24로 나타나 중국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산물이 가장 극심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중국시장 내 한국과의 경쟁지수가 2000년 이후 계속 하락하다가 2004년에는 상승추세로 반등하였다. 이는 향후 중국의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미국의 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한국이 중국수산물 수입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국가로서는 뉴질랜드이다. 뉴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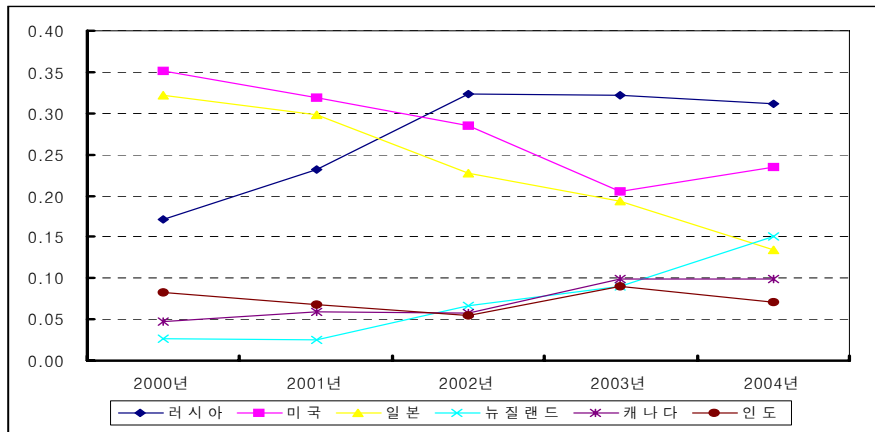
랜드는 2000년 한국과의 경쟁지수가 0.03으로, 6개 경쟁국가들 가운데 중국수산물 수입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정도가 가장 낮았으나, 2002년부터는 한국과의 경쟁정도가 점차 심화되면서 2004년에는 러시아,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경쟁정도가 치열한 국가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중국수산물 수입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관계가 점차 악화되어 중국시장내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이 수출하는 상품과 상호 경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는 미국에 이어 일본이 중국수산물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치열한 경쟁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2000년 이후 경쟁도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더니 2004년에는 경쟁도 지수가 0.13을 기록, 인도, 캐나다보다 약간 높은 경쟁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4-19〉 중국시장내 6대 경쟁국과 한국 수산물간의 경쟁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러시아	0.17	0.23	0.32	0.32	0.31
미국	0.35	0.32	0.28	0.21	0.24
일본	0.32	0.30	0.23	0.19	0.13
뉴질랜드	0.03	0.02	0.07	0.09	0.15
캐나다	0.05	0.06	0.06	0.10	0.10
인도	0.08	0.07	0.05	0.09	0.07

〈그림 4-6〉 중국시장내 6대 경쟁국과 한국수산물의 경쟁도 추이



지금까지 6개 국가와 우리나라와의 경쟁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 국가가 수출하는 품목과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상품간의 경쟁도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뒤에 부록 참조).

활어(0301류)의 경우 2000년 기준 중국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이 중국에 수출하는 활어상품과 가장 극심한 경쟁관계에 놓여 있었고 그 다음으로 미국, 러시아가 중국에 수출하는 활어와 경쟁을 벌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와는 거의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0302류 신선·냉장어류부분에서는 2003년²⁵⁾ 기준 우리나라는 중국시장에서 일본 수출상품과 가장 치열하게 경쟁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는 캐나다, 러시아, 미국, 뉴질랜드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0302류의 경우 일본은 2000년 이후 우리나라와의 경쟁 정도가 차츰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미국, 캐나다,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중국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303류(냉동어류)의 경우에는 러시아와의 경쟁관계가 가장 치열할 것으로

25) 0302류의 경우 2004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이 0으로 나타나 2004년 기준으로 분석을 할 수 없었음.)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0303류 품목에 대해서 꾸준히 러시아와 경쟁관계를 보이고 있다. 미국도 2000년 우리나라와의 경쟁도가 0.01088이었으나 2004년에는 0.06126으로 러시아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경쟁관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우리나라는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 순으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0304류(어류 피렛트, 기타어육의 신선냉장냉동)는 2004년 기준 중국내 미국 상품과의 경쟁도가 0.01526으로써 비교 대상 6개국 가운데 가장 극심한 경쟁관계를 나타냈다. 그 뒤를 이어 뉴질랜드(0.00465), 러시아 (0.00452)에서 수출하는 0304류와 우리나라 0304류의 수출상품이 중국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304류의 경우 주목할 점은 중국 시장 내에서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경쟁관계가 가장 치열하게 나타났으나, 경쟁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3년부터 다시 경쟁도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러시아의 경우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와의 경쟁정도는 낮은 편이지만, 그 경쟁정도가 매년 심화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뉴질랜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0305류(건조·염장·염수장·훈제한 어류와 어류의 분·조분)의 경우에는, 2004년 기준 캐나다의 수출상품과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경쟁도가 0.00542를 기록, 경쟁 6개국 가운데 가장 치열한 경쟁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인도, 일본, 러시아 순으로 높은 경쟁관계를 보여준다.

0306류 갑각류 수출에 있어서 캐나다의 수출상품이 경쟁 6개국 가운데 0.01075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며 우리나라와 가장 치열한 경쟁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인도가 0.00218로 높았다. 0307류(연체동물과 수생무척추동물)의 경우에는 미국과의 경쟁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뉴질랜드, 일본 순이었다. 그 외 캐나다, 러시아와는 비슷한 경쟁관계를 보여주었다.

가공제품인 1604류(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부분에서는 2004년 기준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중국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이 수출하는 상품과 치열한 경쟁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일본과의 경쟁정도는 점차 완화되고 있는 반면, 러시아, 인도와

는 새로운 경쟁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1605류(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경우에는 캐나다와 가장 치열한 경쟁관계를 벌이고 있고, 뒤를 이어 미국, 러시아와 우리나라는 중국시장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2301류(육, 설육,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의 분, 조분, 펠리트(비식용), 수지박)에서는 2004년 기준 우리나라는 중국시장에서 미국이 수출하는 제품과 가장 심한 경쟁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러시아 수출상품과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해 각 품목별로 우리나라가 경쟁해야 할 국가를 규정할 수 있다. 즉, 활어(0301류)의 경우 중국 시장내 우리나라의 최대 경쟁 국가는 일본임을 알 수 있고, 0302류 역시 일본이 우리나라 최대 경쟁국가로 규정됨으로써, 우리나라가 활어(0301류)와 신선·냉장어류(0302류)를 중국에 수출할 때 일본상품과 경합을 벌일 것으로 나타났다. 0303류 냉동어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대 경쟁국은 러시아가, 0304류의 어류 피렛트 상품을 중국에 수출할 시에는 미국이 최대 경쟁국으로 분석되었다. 0305류와 0306류에 대해서는 모두 캐나다가 우리나라의 최대 경쟁국으로 나타났으며, 연체동물과 수생무척추동물에 해당하는 0307류의 경우 최대 경쟁국은 미국으로 나타났다. 1604류의 경우에는 일본이 중국시장내 우리나라의 최대 경쟁국으로 분석되었으며, 1605류는 캐나다, 2301류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경쟁국으로 나타났다.

〈표 4-20〉중국시장내 우리나라가 류별 경쟁해야 하는 최대 경쟁국

	0301류	0302류	0303류	0304류	0305류	0306류	0307류	1604류	1605류	2301류
국가	일본	일본	러시아	미국	캐나다	캐나다	미국	일본	캐나다	미국

주 ; 0301 활어, 0302 신선·냉장어류, 0303 냉동어류, 0304 어류 피렛트 및 기타어육, 0305 건조염장염수장 훈제한 어류와 어류의 분조분, 0306 갑각류, 0307 연체동물과 수생무척추동물, 16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16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2301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의 분·조분·펠리트(비식용), 수지박.

제 5장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산물 수출확대 방안

1. 중국의 수산물 수입확대 요인

이상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수산물 수입확대 요인을 정리하면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국제적 요인(수산물시장의 개방화), 경제적 요인(시장경제체제의 확산과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증대와 파급효과), 국내생산 요인, 국내소비 요인, 수산물수입 구조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국제적 요인-중국 수산물시장의 개방화와 수입증대 요인

제2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중국은 1986년 7월 GATT로의 복귀를 신청한 이후, 13년간 WTO 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해 수산물 무역장벽의 완화를 추진하여 왔다.

2001년 11월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 가입이 승인되었다. WTO 회원국으로의 가입은 상품시장의 개방화를 위해 관세인하는 물론 비관세 장벽의 완화 및 철폐를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것이며,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 시장경제체제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통해 경제개혁과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WTO 가입으로 수산물 관세양허 일정에 따라 수산물 관세인하에 병행하여 수입수량제한이나 기타 비관세 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

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수산물 수입을 불가피하게 증가시키게 될 것이며, 이는 중국 내의 가격경쟁 및 품질경쟁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시장개방은 중국인의 대외활동 증가 및 해외여행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도 있다. 이러한 요인은 장기적으로 중국인의 식문화에 대한 변화를 유도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의 수산물 시장개방화는 수출증가에 대한 동인으로도 작용하여, 가공수출용 원료어 수입 및 수산물 양식의 증가에 따른 어분 등의 수입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2002년 아세안 국가와의 FTA 협상을 시작으로 18개국과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 특히, 아세안 및 저개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중국으로의 1차 산품, 즉 농산물 및 수산물의 수입을 증가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경제적요인과 도시화요인-시장경제와 경제발전에 따른 수입증대

수산물의 경우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필수재보다는 사치재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소득이 그 수요가 따라서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산물(특히, 해면어류)의 소비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는 중국에서 소득의 향상만으로는 그 수요가 증가하기는 어렵고, 고품질의 수산식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판매처가 뒷받침되어 있어야 한다.

중국은 현재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요소들이 중국 소비자들이 향상된 구매력을 바탕으로 선진국에서 향유하고 있던 고급수산물의 소비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경제발전 효과는 동부 연안 전역으로 빠르게 파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서서히 내륙으로도 전파되고 있다. 또한 중국에는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40개 이상이 있으며, 많은 경제특구의 설치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경제발전 및 도시화의 진행과 함께 수

산물 유통시장은 빠르게 현대화되고 있으며, 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라 외국의 대형유통업체(까르푸, 자스코, 이마트 등)가 북경, 상해, 청도 등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선진국형 고급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중국 소비자들은 과거에는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수산물 식문화를 경험하고 있다.

3) 국내생산요인 - 중국 수산물 생산의 위기에 따른 수입요인

중국은 세계 제1위의 어업생산국이지만, 과잉어획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수산물 생산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수산물의 생산량 측면에서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수산물 생산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시장개방 및 소득증대에 따른 점진적인 수산물 수요증가와 향후 예상되는 수산물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생산 증대가 필수적이지만, 수급에 있어서 불균형적인 요인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수산물 생산의 잠재적인 위험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업 자원의 감소를 들 수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중국의 연평균 어로 어획량은 약 200만 톤으로 중국 수산물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주로 황강달이, 갈치, 넙치, 대구, 오징어 등 고가 어종이 어획되었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 저가 어종 어획량이 이들 어획량을 상회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부터는 심해어종이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예를 들어 1982년과 1988년 사이 멸치, 태평양 청어²⁶⁾ 등의 어획량이 전체 어로 어획량의 60%를 차지하였으며, 1992년과 1993년부터는 연체동물류의 어획량이 약 39% 감소하였고, 어류의 산란율도 10년 전에 비해 약 30% 감소하였다. 상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농어, 청어, 잉어, 가자미, 서대, 새우, 게류의 어획량은 29% 감소한 반면 멸치 어획량은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등이다. 뿐만 아니라 1998년 발해만의 어업자원량은 1992년보다 11% 감소

26) 청어는 주로 사료용으로 사용됨.

하였으며 갈치, 고등어, 새우류 등 안정적인 자원량을 가지고 있던 동중국해(East China Sea)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면서 어획어종의 체장이 점차 작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중국 내수면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부적절한 어획방법으로 인한 대부분의 내수면에서 과잉 포획되어 중국 연근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되었다.

둘째, 수질환경 악화를 들 수 있다. 중국경제를 빠른 성장에 비례하여 자연환경의 오염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1,200개의 강에서 2/3 이상인 850여 개의 강이 다소 오염이 되었다고 하며, 전체 호수의 61%는 부영양상태(eutrophic)로 진단되었다. 연근해의 오염상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인데, 이러한 오염으로 1990년대부터 중국 연근해에서는 적조현상으로 엄청난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 적조와 같이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염원은 석유, 페인트, 플라스틱, 농약과 제초제 등으로 대부분은 공장과 가정에서 여과없이 하수에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식생산량이 이미 어로어획량을 초과한 중국에서는 양식장 또한 해양 수질오염이 주범이 되고 있다. 가두리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사료와 죽은 어체 등이 해양 오염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 등이다.

셋째, 양식어업의 선진 기술부족을 들 수 있다. 중국은 세계 제1위의 수산대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 수산업은 아직도 선진화되지 못하였다.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생산되는 방식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현대화된 어선과 양식장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종묘기술의 부족으로 종묘기술이 양식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종묘종(breeding stocks)은 야생에서 채취되어 길러진다. 이 때문에 많은 양식 어종들이 퇴화하거나, 성장률이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항생능력이 약화되어 양식 수산물의 품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질병관리능력 부족으로 엄청난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 질병관리는 중국 양식 수산업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가장 어려운 난제 중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어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없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그 결과 중국 양식업은 매년 120억 위안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는 중국의 보고도 있었다.

4) 국내소비요인-수산물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수입증대

① 수산물 소비의 특징

중국에서는 경제발전과 소득 향상으로 의해 수산물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도시와 농촌, 그리고 연안지역과 내륙지역에 따라 소비의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가정내 식사와 외식·중식에 따라서도 수산물 소비의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난다. 수산물 소비의 확대는 주요 도시부 또는 경제특구에서 두드러진다. 중국에는 100만 명을 넘는 대도시가 40개가 있다. 이들 대도시는 유통인프라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동부 연안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수산물 소비시장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 중국의 수산물 소비는 도시를 중심으로 그리고 전통적인 사회집단적 소비를 주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틀림없는 수산물 소비의 큰 특성이라 말할 수 있다.

② 1인당 수산물 소비

1인당 수산물 소비는 가정내 소비와 사회적 소비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정내 소비가 내식이고, 사회적 소비가 외식 및 중식을 포함한다. 중국의 1인당 어패류 소비량은 1980년에 세계 평균치의 반이 되지 않는 5.2kg이었던 것이 1990년에 11.5kg, 2000년에는 25kg으로 증가, 세계평균치 16kg의 1.5배, 일본의 평균치 63.2kg의 약 4할에 달한다. 이러한 수산동물성 단백질의 섭취 증가는 소득과 생산수준의 향상을 전제로 한 식생활의 구조적 변화를 크게 반영하고 있다.

수산물의 최종 수요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가정내 수산물 소비를 보면, 표면적으로는 도시와 농촌의 1인당 가정 수산물 소비량은 1984년부터 2000년

에 걸쳐 대략 평행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도시에서는 연평균 1.5%씩 성장해온 반면 농촌에서는 5.2%로 비교적 높은 성장을 보였다. 도시는 농촌이든 수산물 소비량의 성장률이 육산류의 성장률을 웃돌고 있고, 또한 수산물과 육산류를 불문하고 농촌소비량의 성장률이 도시쪽을 웃돌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의 수산물 소비성향이 담수어에서 해수어로, 대중어에서 고급어로, 그리고 건어물·가공품에서 선어·냉동품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에서 소비되는 수산물의 대부분은 담수어이고, 그 대부분이 전통적인 「사대가어」(*Hypophthalmichthys molitrix*, 초어, 잉어, *Hypophthalmichthys*)이다. 해산물에 관해서는, 건어물, 가공품, 또는 일부의 통조림류 등이 소비의 중심이 된다. 특히 수송조건이 제약되는 내륙부에는 신선한 해산어는 극히 얼마 안 되고 냉동어에 지나지 않는다.

③ 수산물 수요추정

제3장에서 수산물 수요를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향후 10년 후인 2015년에는 중국의 1인당 어류의 연간 소비가 47.8kg으로 세계 수산물 소비의 상위국인 한국, 일본과 비슷한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연 10%에 이르는 중국의 경제성장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중국에 있어서 소비량의 증감과 1인당 GDP의 증감의 추세가 비슷하게 변동하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3〉를 참조). 이는 소비가 소득에 밀접하게 반응한다는 결과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 FAO의 어업국(Fisheries Department)에서 발간한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에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경제성장률과 수산물 소비와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1988년부터 1997년까지 꾸준한 경제 성장을 한 15개 국가를 선별하고 두 분류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그룹은 연평균 1인당 수산물 소비가 20kg미만인 국가이며, 두

번째 그룹은 연평균 1인당 수산물 소비가 20kg 이상인 그룹이다. 즉, 1인당 수산물 소비량과 소득의 지표인 1인당 실질 GDP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한 것이다. 그 결과 수산물 소비량이 20kg 미만인 국가들 가운데 벨기에, 중국, 영국의 경우에는 수산물 소비량이 소득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산물 소비량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그룹인 수산물 소비가 20kg 이상인 국가에서는 이탈리아, 노르웨이가 소득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캐나다, 칠레, 프랑스, 스웨덴의 경우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단정적으로 수산물 소비가 소득과 정(+)의 관계라고 말할 순 없다.

FAO의 보고서에서 의미 있는 내용은 1인당 수산물 소비가 20kg 이하인 국가에서는 소득과 양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사실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0.998로 비교국가들 중에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어 향후 중국은 경제성장에 따라 수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표 5-1〉참조).

〈표 5-1〉 수산물 소비와 소득간의 상관관계

그룹 A		그룹 B	
1인당 수산물 소비 20kg이하		1인당 수산물 소비 20kg이상	
오스트리아(18.4)	0.284	캐나다(22.6)	-0.574
호주(8.0)	0.784	칠레(22.3)	-0.076
벨기에(17.7)	0.789	프랑스(27.9)	-0.257
중국(9.7)	0.998	이탈리아(20.7)	0.729
독일(11.2)	0.243	일본(72.1)	-0.626
아일랜드(16.6)	-0.009	노르웨이(43.9)	0.982
영국(18.2)	0.862	스웨덴(26.4)	-0.421
		미국(21.3)	0.005

주 : ()은 1988년부터 1997년까지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을 나타냄.

자료 : FAO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보고서의 BOX 17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5) 수산물 수입 구조적 요인

최근 3년 동안의 수산물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중국의 수산물 수입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즉, 중국은 매년 수산물 수입이 약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제4장의 <표 4-2> 수산물 수입현황을 보면, 금액 면에서 1999년에 약 11억 달러에서 2000년에 17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2002년에는 21억 달러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수치는 전 세계의 수산물 수입액의 약 3.7%를 차지하는 수치로써 그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최대 수산물 수입국인 일본은 약 23%, 한국의 경우는 약 3%). 특히,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수산물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중국은 24.9%로 주요 수산물 수입국 중에서도 당연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한국 17.7%, 스페인 5.4%, 미국 2.3%, 일본 -2.6%). 이는 향후 중국의 수산물 수입이 급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 가능케 한다(<그림 4-2> 참조).

주요 품목별 수입실적은 2002년도 기준, 전체 수산물 188개 중 148개 품목(HS 기준)이 수입되었으며, 금액기준으로 어류의 분·조분, 대구, 기타냉동어류, 기타 갑오징어, 기타 연체동물 등 상위 5개 품목이 67%(물량 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주요 상위 5대 품목의 수입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7> 참조).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별 현황을 보면, 수산물 수입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품목은 갑오징어류, 굴류, 기타 연체동물의 어분, 대구, 달팽이 등으로 상위 5개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표 4-8> 참조). 중국의 수입 품목을 HS 4단위별로 연도별 수입추이를 살펴보면, 0301류인 활어의 수입은 최근 5년간 32% 감소하였으며, 0305류(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와 어류의 분·조분·펠리트)의 수입도 1% 감소하였다. 반면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인 1605류의 수입이 61% 증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0302류(신선·냉장·어류)의 수입은 연평균 55%의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그 외 1604류(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

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와 0303류(냉동어류)의 수입이 모두 20% 증가하였다(〈그림 4-3〉, 〈그림 4-4〉를 참조). 이는 향후 1605류, 0302류, 1604류, 0303류 등의 수산물 수입이 중국에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 대 중국 수산물 수출확대방안

1) 기본방향

세계 수산물시장의 자유화 및 개방화, 한류 붐에 따른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관심 고조, 김치 등 우리나라의 식문화에 대한 관심 고조 등에 병행하여 우리나라의 수산식품에 대한 홍보 및 수출 가능성도 과거에 비해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러한 시점에 중국은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하여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의 동부 연안지역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열등하지 않은 급격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고, 이 지역의 지방정부 및 대도시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식문화에 있어서도 빠르게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중국인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고품질의 식품, 건강지향의 기능성 식품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중국 동부 연안지역의 경제발전으로 수산식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는 인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산업에 있어서 수산식품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이다. 수산식품의 수출확대 가능성은 우리나라의 수산업이나 수산식품 관련 업계에 대한 경제효과에만 머무르지 않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활력을 가져올 것이다.

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각 지역별 특산품과 연계시킨 수산식품 수출, 그리고 한류와 연계시킨 한식문화의 수출 등을 중심으로 이웃 중국의 수산물 수요확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13억 인구의 거대국가 중국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산물 소비시장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수출대상 지역과 수출대상 품목을 발굴하고, 대상품목에 대한 수출확대를 위한 마케팅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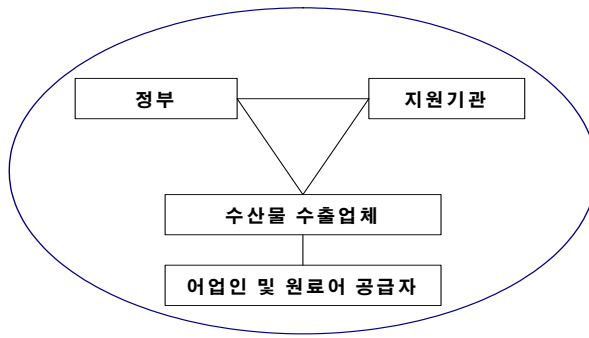
또한 중국은 남한 면적의 약 100배에 달하는 공간적으로 광활한 국가로서 지방정부별로 사회경제적 발전정도 뿐만 아니라 수산물 소비형태도 크게 다르기 때문에, 중국을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하여 검토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에 대한 실효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을 하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수산물 수출확대방안 도출에 병행하여 지방정부별(省別)로 파악할 수 있는 세부적인 수산물 수출확대방안을 수립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간적인 관점과 중국의 경제발전을 연계시켜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목표는 정부의 정책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생산을 담당한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수산물 가공을 담당한 가공업자, 수출업자, 관련 지원기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TRA, KATI,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수산물수출조합 등)의 유기적인 협력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때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중국의 수산물 수출확대방안에 대한 기본방향으로서 첫째, 〈그림 5-1〉과 같이 산-관-학연 체제의 구축과 기능분담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 〈그림 5-2〉와 같이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중장기 계획, 이른바 수산물 수출배중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소지역별 시장조사를 통하여 전략품목을 발굴하고, 발굴한 전략품목의 수출시장 개척 활동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림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 면적, 문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별 지역별 성(省)과 대도시(大都市)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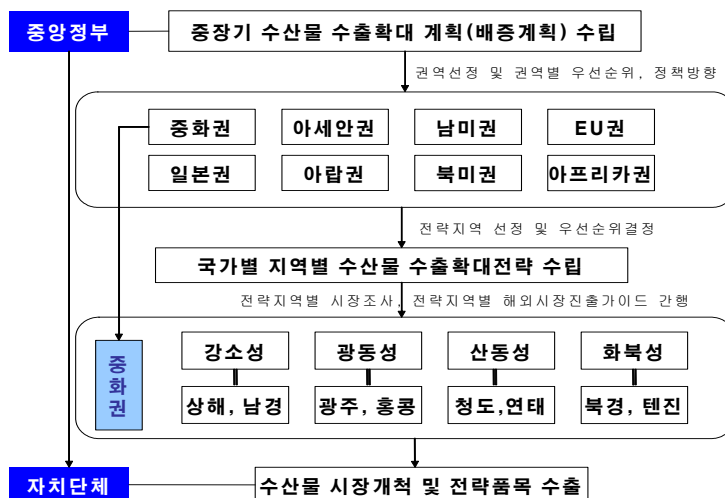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수산물을 선호하는 중국 동부 연안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남부와 북부, 농촌과 도시에 따라 수산물 소비형태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략지역을 선정하여 전략지역별 수출확대방안을 수립,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림 5-1〉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산관연 협력체계



구분	정부	지원기관	수출주체
조직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물수출조합 KOTRA, KATI	수출업체 어업인 원료공급자
기능	중장기계획수립 시장조사사업예산확보 제도적 개선 마케팅 및 홍보지원	수산물수출확대방안연구 중장기계획수립 지원 전략지역 및 품목조사 마케팅 전략 및 타당성조사 해외시장개척가이드 간행	수산물 수출 신품목 개발 한식문화 전파 민간교류

〈그림 5-2〉 대 중국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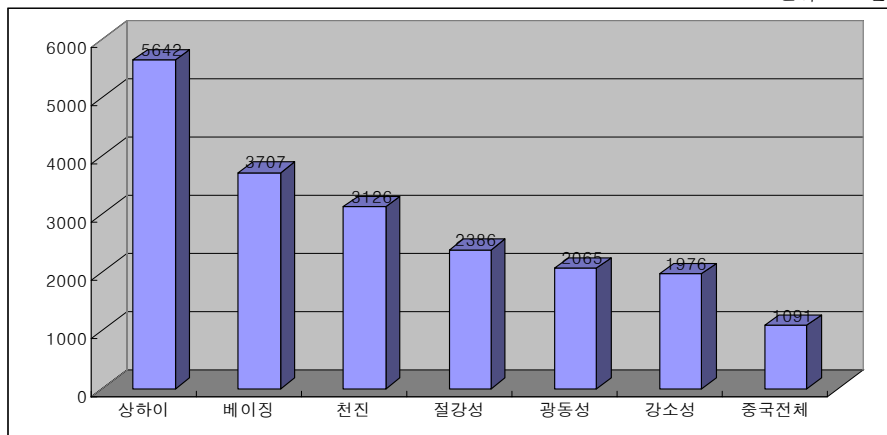


2)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지역 선정

이상의 분석에서 수산물에 대한 중국인의 수요증가는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지역별 소비자의 선호도 차이는 크게 나타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중국의 경제발전 및 수송수단의 현대화, 수많은 수산물 도매시장의 건설,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냉장·냉동시설의 증가 등으로 수산물 소비에 대한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5-3〉 중국의 주요 성시별 1인당 GDP 비교

단위 : US달러



주 : RMB(인민화폐) 8.27을 US\$ 1로 환산.
자료 : 각 지역별 통계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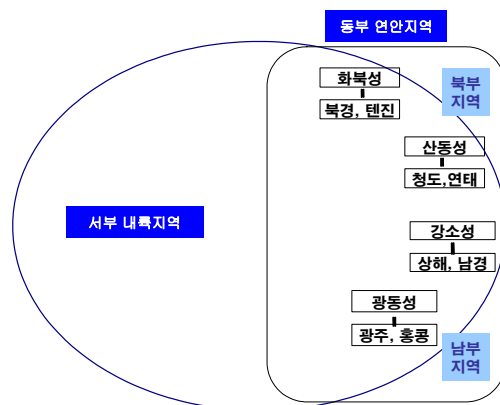
그러나 아직도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수산물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은 개혁개방 진전과 함께 각 권역경제의 중요성이 변화되어 왔으며, 외자유치 및 수출입 규모, 대외개방 정도 등의 차이로 각 지역간 경제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수산물의 대 중국 수출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각 권역별 경제 특징과 발전 현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그림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소득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상해의

경우 2003년 1인당 GDP는 5,642 달러로(중국내 성단위 1위) 중국 전체 평균치(1,090달러)의 5배 상회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지방정부별로 사회경제적 발전정도 뿐만 아니라 수산물 소비형태도 크게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또는 도시별), 계층별, 연령별 소비형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북부의 소비자는 주로 가공 또는 냉동품을 선호하며 요리하기를 즐기지 않는 성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부의 소비자들은 활선어를 선호하며, 주부들은 가정에서 요리하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중국을 대상으로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및 계층뿐만 아니라 시간적 변수도 고려하여, 중국수출확대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이 중국 수산물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및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그림 5-4〉 대 중국 수산물 수출확대를 전략지역(사례)



그러므로 중국시장을 목표로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동부지역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그림 5-4〉 참조),²⁷⁾ 동부 지역에서도 단기적으로는 북부

는 냉동, 가공품을, 그리고 남부는 활선어, 고급 활패류, 갑각류 등을 목표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북부에는 냉동, 가공품 및 활선어를, 남부는 활선어를 포함한 고차가공 및 기능성 수산물을 전략품목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산물의 수출입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역적으로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으며 특히, 수산물 수출지역과 수입지역의 구분이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수산물의 경우, 북경과 상해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매년 수산물 소비 증가에 따라 인근 해관을 통하여 수입되는 수산물이 증가하는데 반하여, 수산물 주요 생산지인 산둥, 요녕, 광둥지역에서는 해면어로어업과 해면양식 및 내수면 양식의 증가로 인하여 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산물의 수출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3)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대책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사회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가장 큰 장애요인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시장경제체제를 적용한 경제체제라고 하더라도 수산물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관련 제도 및 수산물 시장조사, 수산물 유통시스템, 유통구조, 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물 유통경로, 수입수산물 유통경로, 수산물 소비형태, 수산물 수급통계, 농수산물 유통의 외국인 투자관련 법령 등 쉽게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① 제도적 지원 및 개선

중국을 대상으로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 개선으로

27) 무엇보다도 기초조사로서 수산물 생산 및 소비가 많고 대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지방정부 중에서 해면어업 생산량이 많고 대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요녕성, 화북성, 산둥성, 강소성, 절강성, 복건성, 광둥성, 광서성의 8개 성(省)에 대해 연차적으로 개별 시장조사연구를 통하여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개척 또는 식품박람회 개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수산물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칭)수산물무역진흥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수출국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수출수산업의 경영안정과 수출수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며, 이를 통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수산물 수출지원을 WTO 규정에 합치하도록 직접지원에서 기술개발, 마케팅 등 간접지원방식으로 확대 전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출에 방해가 되는 각국의 수입에 관한 여러 제도 등의 개선을 꾀하기 위해 각 나라별 수출 저해 요인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과 함께 통상교섭 등에서 수출확대가 기대되는 품목의 시장접근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또한, 수출 상대국의 요구에 맞은 검역조건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

② 지역의 특산물과 연계 지원

대중 수출전략품목 산지육성을 지역의 특산물과 연계시켜 효율적인 추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중국의 소비자 기호에 맞는 수산물을 생산, 가공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신기술이나 신품종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국 수출수산물 기지 조성, 수출 촉진을 위한 가공 식품의 창출이나 기술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산업 수출대책, 그리고 품질유지를 위한 기술개발이나 품목의 특성에 따른 수출촉진 방법 강구 등의 세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③ 수출 수산물 공급기반 구축 지원

연근해 어로어업부문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약 절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부문에서 생산된 수출상품은 국내생산량이 수출공급의 가장 큰 결정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연근해 어로어업부문의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어업생산 증대가 가능한 효율적 생산구조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일이다. 안정적·지속적 어업생산을 통한 수산물 수출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첫째, 적정 자원관리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고, 둘째, 상품성 제고를 위한 어업 생산기술 개발을 고도화하며 셋째, 자원의 합리적 관리·이용에 관한 국민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활선어, 냉장·냉동의 원형상태로 수출되는 것은 어체의 손상이 상품성에 결정적이 영향을 미치게 되며, 어체의 손상은 부패 및 변질을 촉진함으로써 선도를 급격히 저하시켜 가공원료로서의 가치도 크게 저하시키게 된다. 수산물의 고상품성 유지를 위해서는 생산현장에서의 어획물 채포 및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어체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구어법을 개량하고 선상처리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환경친화적 양식수산물의 지원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품목에서 양식생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양식수산물의 중국시장에서 점유율 유지와 비교우위 확보를 위해 첫째, 양식품목의 전략적 분류와 선별적 육성, 둘째, 지역별 특화양식 품목의 조정 및 단지화, 셋째, 어장이용의 적정화와 우량어장 확보, 넷째, 소비자의 신뢰성에 부합할 수 있는 안정성 및 품질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개방화시대에 있어서 수산물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국제경쟁력 수준과 성장잠재력을 고려한 양식품목군의 전략적 분류와 선별적 육성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양식수산물의 전략품목군 분류는 전체 양식수산물에 대한 1차 분류로서 생산유도품목, 생산유지품목, 생산축소품목으로 구분한 다음 생산유도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증대품목, 생산조정품목, 수입대체품목으로 분류하였으며, 대상양식품목과 육성방안은 <표 5-2>와 같다.

〈표 5-2〉 양식수산물의 전략적 분류 및 수출전략품목 육성

구분	분류기준	대상품목	육성방안
생산증대품목	현재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수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생산증대가 요망되는 품목	피조개, 성게, 새조개, 굴, 우뚝가사리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식기술 고도화 추진 - 생산단지조성 및 우량어장 확보 - 수요에 대응하는 계획생산체계 수립
생산조정품목	현재 경쟁력은 있으나 국내외 수요의 점감 및 과잉생산의 우려가 있는 품목	미역, 김, 톳, 갯지렁이	- 어장이용의 적정화 - 대체작목개발 유도 - 어장이용제도의 개선
수입대체품목	국내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는 경쟁력이 뒤지나 기술진보가 빨라 곧 경쟁력을 갖출 품목	가리비, 전복, 개량조개, 소라	- 종묘생산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 수입부과금제 및 차액관세제도 도입을 통한 한시적 수입제한 - 기반조성

⑤ 지역브랜드 수산물의 수출 상품화 지원

어장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양식어업의 능률화 및 품목별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비교우위에 입각한 양식품목의 지역별 재조정을 통한 특화품목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양식생산의 지역특화가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과정은 생산 입지조건 내에서 각 해역에서의 유리한 전문화가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조건과 지역어민의 양식기술 수준, 그리고 경제적 조건이 고려된 적지적작(適地適作)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특화품목을 조정하여야 한다.

특화품목의 선정을 위한 지표는 상대어장면적 비율(지역어업의 유형과 경영 부문의 상대적 특화수준을 반영), 어장생산성(어장의 비옥도를 포함하는 자연 조건, 기술조건, 여타 생산요소의 대체가능성 및 수용력, 생산성 등의 제요인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요인) 등의 특화계수뿐만 아니라 각 품목의 국내외 수

급, 수입개방의 영향, 해당적지의 대체품목에 대한 정보까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특정 지역의 특정 수산자원을 활용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저차가공품을 수입하여 고차가공품으로 개발하는 등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우리 나라의 해역별 특화가능 가공품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동해안 : 오징어, 북어, 다시마, 명란젓, 창란젓, 오징어젓 등
- 서해안 : 방어포, 굴비, 어리굴젓, 새우젓, 황석어젓, 조개젓 등
- 남해안 : 전복, 고등어, 미역, 톳, 다시마, 멸치, 갈치, 전어밤젓, 오분자기, 자리돔 등

대표적인 것으로는 강원도의 천연 다시마를 이용한 조미료 제품 개발과 양식산 가리비, 연어알을 이용한 통조림 및 염장제품 가공시험을 실시하여 그 기술을 전수한 바 있다. 전남지역의 전통식품인 토하젓의 품질개선 연구, 경북의 우렁챙이를 이용한 조미료 연구 등이 있다. 경남지역의 다핵성 어류를 이용한 편의식품 개발과 제주도 지역특유의 특산품 개발 지원도 필요하다.

⑥ 한류-한식-수산물 지역브랜드=수출브랜드의 지속적 홍보 지원

지역브랜드 수산물을 한류 붐과 연계시키고, 지역의 브랜드가 국제적으로도 수출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요컨대, 전략적인 PR·상담 활동의 장소를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PR·상담 활동, 해외시장의 조사·분석이나 국내 세미나 등을 통한 조사·정보 제공, 해외의 고급 백화점 등에 대한 지속적인 판매 활동, 현지 요리점을 이용한 PR 활동 등의 지원을 중심으로 한 연중형 판매의 촉진, 품목별로 생산자와 상사 등과의 연계에 의한 다양한 수출 성공 모델 사례 만들기 등의 판매촉진 활동을 종합적으로 연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브랜드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후관리방안으로 (가칭)우수수산물

(GFP)와 연계시켜 추진해나가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브랜드 대응을 위한 권리침해 대책 매뉴얼의 작성 등을 통하여 브랜드의 보호를 위한 지원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⑦ 수출자금지원제도의 개선

경쟁력 우위 또는 그 유지가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생산설비의 확충, 원재료의 안정적 확보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신제품을 개발하여, 특허를 얻고 또 그 판매까지도 순조롭다면, 그 특성을 담보로 하여 필요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강구되어야겠다.

중소업체의 담보력 부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력이 부족하다하여 자금지원을 적기에 하지 않는다면, 생존할 수 있는 중소기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신제품개발은 기대할 수도 없다. 동시에 이들 중소기업들을 대기업에 연계시켜 제품의 공동개발, 원료조달 및 수출창구로의 활용 외에도 대기업의 조직 및 자금까지 이용할 수 있는 연계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펴오고 있으나, 경영안정자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금이 정책목적으로만 집행되고 있다. 경영안정자금 또한 상환기간도 짧고 그 규모도 업체당 소규모 수준으로, 영세한 수산가공업체의 자금난을 해소시키는데 있어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 대상업체가 일단 결정되면 우선 운전자금의 지원을 통해 경영을 안정시킨 후, 생산구조 고도화 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지원해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복잡한 지원기관, 지원종류 및 조건 등을 유사한 용도끼리 통·폐합하거나 창구를 일원화하여, 자금 대출에 따른 낭비적 요소를 줄여 나가되, 연중 어느 때나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⑧ 산·관·학·연 공동연구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수출품목 개발 지원

오늘날과 같은 무한 경쟁시대에 있어 사업의 사활은 제품의 경쟁력 제고에 달려있는데, 이러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산·학·연·관 협동연구의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남해안 지역의 경우, 천혜의 어항과 함께 부경대, 경상대 해양과학대학, 여수수산대학과 부설 연구소 등이 소재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산·학·관 협동이 매우 용이한 곳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수산가공분야에 관해 원활한 산·학·연·관 협동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대학과 기업 그리고 지방정부 공히 지역 수산가공업에 대한 기술 개발의지와 동참의식이 부족했던 데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수산가공관련 연구기관과 업체를 상호 연관시키는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대기업의 근대적 생산기술을 지방 중소기업에 접목시키는 데에도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산업기술 정책의 하나로서 산·학·연·관 공동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펴 오고 있다. 그러나 수산가공 기술개발에 관한 컨소시엄의 경우, 지금까지 논의만 분분하였지 구성된 실체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중앙/지방정부에서는 당해 지역 소재 수산계 대학과 연계한 산·학·연·관 지역컨소시엄을 우선적으로 구성케 해야 할 것이다.

4) 기타 전략적 지원

① 국산 유통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수출확대

1997년 1호점 개설 후, 지금까지 3호점을 개설한 한국산 대형유통업체인 이마트뿐만 아니라 까르푸, 자스코에 대한 개별 상담을 통하여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로서는 소량 다품목 수출을 바이어들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출을 크게 확대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마트와 연계하여 수산물 수출을 추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수산물-한식문화-한류를 하나의 상품으로 연계시켜 정부의 지원하에 정부-업계-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②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철저한 준비

중국의 수산물 수입시장에서의 수산물 경쟁관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러시아, 미국과 경쟁이 가장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미국과의 경쟁도는 2004년 기준 0.31, 0.24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경쟁이 가장 치열한 데 특히 미국 수산물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2000년부터 꾸준히 하락하다가 2004년에 경쟁도가 반등하면서 향후 우리나라와의 경쟁정도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리나라가 중국수산물 수입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국가로서는 뉴질랜드이다. 뉴질랜드는 2000년 우리나라와의 경쟁도가 0.03으로, 6개 경쟁국가들 가운데 경쟁정도가 가장 낮았으나, 2002년부터 우리나라와의 경쟁정도가 점차 심화되면서 2004년에는 러시아,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경쟁정도가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중국시장에서 우리나라와의 경쟁도가 점차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에는 미국에 이어 일본이 우리나라와 가장 치열한 경쟁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경쟁도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더니 2004년에는 0.13를 기록, 인도, 캐나다 보다 약간 높은 경쟁관계임을 나타내고 있다.

앞의 결과를 보면 중국의 수산물 수출에 있어 우리와 주로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는 러시아, 미국, 뉴질랜드 등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중국에 수산물 수출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 경쟁국 모두가 우리의 경쟁대상국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의 수산물시

장을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와 경합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수산물 유통구조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우리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③ (가칭)전국수산물수출확대추진협의회의 설치

수산물 수출확대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공유하고, 수산물 수출확대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관계부처를 비롯한 지방자치체나 민간단체 등을 포괄하는 (가칭)전국수산물수출확대추진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 협의회는 수산물 수출액 확대라는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수산물 수출확대의 중심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1. 총괄

우리나라는 2001년을 기점으로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국으로 전락하였다. 그 이후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입 현상은 수입급증, 수출 감소라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고 수산물의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우리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일본으로부터 역으로 수산물 수입이 늘어나고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증가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수산업계 및 정부도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결과는 긍정적이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전략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수비에서 공격으로’라는 수산물 무역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근 수산물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지리상으로 인접하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수산물 수출확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중국은 세계의 수산물 생산량에서 약 3할을 차지하는 생산대국이지만, 늘어나는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국내생산의 촉진 뿐만 아니라 주변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간 약 20%라는 놀랄만한 중국의 수산물 수입증가 추세는 그

러한 예상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머지않은 시기에 세계 수산물 무역시장에서 주요 수입국가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13억 인구의 거대국가인 중국이 지닌 시장 잠재력과 우리나라가 지닌 지리적·문화적 근접성을 고려할 때, 국내산 수산물의 수출촉진과 자유시장권 형성으로 국내 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수산물 시장에 대한 사전대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13억 인구의 중국 수산물 시장에 우리 수산물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수출확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현재 매우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약 13억 명의 인구와 남한의 100배에 해당하는 국토면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향후 소비시장으로써의 중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짐작케 한다. 이에 수산분야에서도 현재는 중국이 수출국의 위치에 있으나, 기호성 및 건강 기능성의 성격이 강한 수산물의 경우 중국의 경제발전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에 대한 수요 및 수입증가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이 아니라 막연한 추측에 의존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좀 더 실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요함수모형을 가지고 종속변수를 중국의 수산물 수요량으로, 설명변수를 소득, 가격, 대체가격 등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현지 출장을 통하여 중국인의 수산물 소비형태를 직접 조사하여 제한적이었지만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의 수산물 수입확대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속적인 수산물 수요증가 예상 : 중국의 수산물 수요는 중국의 1인당 GDP가 1% 증가할 때 수산물의 수요량이 약 0.59%로 증가하고, 가격이 1% 상승할 때 소비는 -0.3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과 소비 중에서 소득이 수산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을 반영한다. 즉 소득의 증가가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의 인상분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도 중국에서는 수산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3장에서는 중국수산물 수요의 전망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10년 후인 2015년의 중국의 1인당 수산물의 연간 소비가 46.1kg으로 2002년의 한국(58.8kg)과 일본(66.4kg) 수준에 약간 못 미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의 인구를 고려한다면 수산물 수요를 분석한 결과는 수산물 소비시장으로써의 중국의 발전가능성을 충분히 예상 가능케 하였다.

둘째, 수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수입증대 : 중국의 WTO 회원국으로의 가입은 상품시장의 개방화를 위해 관세인하는 물론 비관세 장벽의 완화 및 철폐를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것이며,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 시장경제체제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통해 경제개혁과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WTO 가입으로 수산물 관세양허 일정에 따라 수산물 관세인하에 병행하여 수입수량제한이나 기타 비관세 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중국으로의 수산물 수입을 불가피하게 증가시키게 될 것이며, 또한 중국 수산물 수입시장의 가격 경쟁 및 품질경쟁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셋째, 시장경제와 경제발전에 따른 고급 수산물 수요증가 :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경제발전의 효과는 동부 연안 전역으로 급속히 파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서서히 내륙으로도 전파되고 있다. 경제발전은 중국인의 식문화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새로운 외식문화와 식품유통 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넷째, 중국 수산물 생산의 위기에 따른 수입요인 : 중국은 세계 제1위의 어업생산국이지만, 과잉어획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수산물 생산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수산물의 생산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수산물 생산에 대한 우려를 크게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시장개방 및 소득증대에 따른 점진적인 수산물 수요증가와 향후 예상되는 수산물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생산 증대가 필수적이지만, 수급에 있어서 불균형적인 요인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수산물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수입증대 : 중국의 1인당 어패류 소비량은 1980년에 세계 평균치의 반이 되지 않는 5.2kg이었던 것이 1990년에 11.5kg, 2000년에는 25kg으로 증가, 세계평균치 16kg의 1.5배, 일본의 평균치 63.2kg의 약 4할에 달한다. 이러한 수산동물성 단백질의 섭취 증가는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전제로 한 식생활의 구조적 변화를 크게 반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의 수산물 소비성향은 담수어에서 해수어로, 대중어에서 고급어로, 그리고 건어물·가공품에서 선어·냉동품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여섯째, 수산물 수입 구조적 요인 : 최근 3년 동안의 수산물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중국은 매년 수산물 수입이 약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금액 면에서 1999년에 약 11억 달러에서 2000년에 17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2002년에는 21억 달러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수입품목을 HS 4단위별로 연도별 수입추이를 살펴보면,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1605류)의 수입이 61% 증가하였고, 0302류(신선냉장어류)의 수입은 연평균 55%의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그 외 1604류(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와 0303류(냉동어류)의 수입이 모두 20% 증가하였다. 이는 향후 1605류, 0302류, 1604류, 0303류 등의 수산물 수입이 중국에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 정책건의

이상의 분석에서 수산물에 대한 중국인의 수요증가는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지역별 소비자의 선호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중국의 경제발전 및 수송수단의 현대화, 수많은 수산물 도매시장의 건설,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냉장, 냉동시설의 증가 등으로 수산물 소비에 대한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수산물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하여, 전략지역을 선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단계적 방법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진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통한 단계적 수출확대가 바람직하며, 이와 병행하여 중국 수출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진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1단계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의 연구기관에 의한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2단계로 부경대, 한국식품연구원 등에 의한 수출전략품목의 개발 및 업계의 해외시장개척을 추진하고, 3단계로 본격적으로 수출마케팅을 추진하는 단계별 전략이 효율적일 것이다.

중국 진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중장기 수산물 수출확대정책 수립 필요

중국은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하여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특히 중국 동부 연안지역의 경제발전에 따른 수산식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는 인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산업에 있어서 수산식품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이다.

그러나 중국을 대상으로 수산물 수출을 위해 조사연구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수산물 수출을 추진한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개척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차원의 중장기 수산물 수출확대정책 수립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다.

② 산·관·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의 공유추진(중국해양수산물센터)

중국의 수산업 및 수산물 소비형태(지역별, 계층별), 유통구조, 선호도, 결제 시스템, 거래제도, 유통관행, 수입관리장치 등에 대한 자료가 매우 부족하며, 자료수집도 곤란한 상황이므로 산·관·학·연을 연계시킨 중국의 수산물수출 지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보의 공유를 서둘러야 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상해물류센터를 중국해양수산물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중국의 수산물 수출정보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③ 지역별(省 또는 대도시別) 수출확대방안 수립 필요

중국은 광활한 국가로서 지방정부별로 사회경제적 발전정도 뿐만 아니라 수산물 소비형태도 크게 다르기 때문에, 중국을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하여 검토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에 대한 실효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장기수산물수출확대정책」에 의거하여 (가칭)대중국수산물수출촉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별(省別)로 공략할 수 있는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④ 중국의 동부연안지역을 전략수출지역으로 한정 필요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동부지역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동부지역에서도 단기적으로는 북부는 냉동, 가공품을, 그리고 남부는 활선어, 고급 활패류, 갑각류 등을, 장기적으로는 북부에는 냉동, 가공품 및 활선어를, 남부는 활선어를 포함한 고차가공 및 기능성 수산물을 전략품목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 및 전문협의회 설치 필요

‘수비에서 공격으로’라는 수산물 무역정책의 패러다임에 부응하기 위해서

는 「(가칭)수산물무역진흥에관한법률」 제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수산물 수출확대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공유하고, 수산물 수출확대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관계부처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등을 포괄하는 「(가칭)전국수산물수출확대추진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⑥ 수산물 지역브랜드=수출브랜드 홍보에 한류 활용 필요

지역브랜드의 수산물은 한류 붐과 연계시키고, 지역의 브랜드가 국제적으로도 수출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브랜드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후관리방안으로 ‘(가칭)우수수산물(GFP)’와 연계시켜 추진해나가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브랜드 대응을 위한 권리침해 대책 매뉴얼의 작성 등을 통하여 브랜드의 보호를 위한 지원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⑦ 국산 유통업체(중국 이마트)와의 연계를 통한 수출확대

1997년 1호점 개설 후, 지금까지 3호점을 개설한 한국산 대형유통업체인 이마트와 연계하여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마트와 연계하여 수산물-한식문화-한류를 하나의 상품으로 연계시켜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지역브랜드 수산물의 수출 상품화 지원, 수출자금지원제도의 개선, 산·관·학·연 공동연구의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수출품목 개발 지원, 양질의 수출원자재 확보를 위한 수출 수산물 공급기반 고도화 등을 제안하였다.

부 록

중국시장에서의 품목별(HS 4단위) 국별 경쟁도

① 0301류

연도	러시아	미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
2000년	0.00025	0.00077	0.12041	0.00000	0.00006	0.00012
2001년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2002년	0.00005	0.00015	0.00007	0.00000	0.00001	0.00000
2003년	0.00044	0.00112	0.00007	0.00000	0.00005	0.00000
2004년	0.00024	0.00041	0.00028	0.00000	0.00000	0.00000

② 0302류

연도	러시아	미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
2000년	0.00069	0.00001	0.00347	0.00000	0.00127	0.00024
2001년	0.00198	0.00056	0.00587	0.00015	0.00114	0.00003
2002년	0.00354	0.00133	0.01192	0.00022	0.00646	0.00005
2003년	0.00041	0.00007	0.00118	0.00007	0.00086	0.00001
2004년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③ 0303류

연도	러시아	미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
2000년	0.09153	0.01088	0.01341	0.00579	0.00087	0.01569
2001년	0.18401	0.02103	0.02367	0.00888	0.00208	0.01911
2002년	0.18976	0.02241	0.02128	0.00853	0.00261	0.00979
2003년	0.23132	0.03824	0.03294	0.01046	0.00546	0.00659
2004년	0.22976	0.06126	0.02428	0.01175	0.01012	0.00661

④ 0304류

연도	러시아	미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
2000년	0.00267	0.00683	0.00152	0.00471	0.00007	0.00058
2001년	0.00310	0.00433	0.00073	0.00133	0.00020	0.00010
2002년	0.00029	0.00052	0.00068	0.00203	0.00004	0.00005
2003년	0.00365	0.01119	0.00419	0.00574	0.00260	0.00083
2004년	0.00452	0.01526	0.00088	0.00465	0.00152	0.00034

⑤ 0305류

연도	러시아	미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
2000년	0.00001	0.00013	0.00276	0.00000	0.00024	0.00009
2001년	0.00002	0.00015	0.00254	0.00000	0.00176	0.00053
2002년	0.00001	0.00051	0.00068	0.00005	0.00391	0.00175
2003년	0.00003	0.00019	0.00047	0.00011	0.00333	0.00127
2004년	0.00108	0.00055	0.00148	0.00005	0.00542	0.00179

⑥ 0306류

연도	러시아	미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
2000년	0.00019	0.00027	0.00084	0.00000	0.00235	0.00071
2001년	0.00157	0.00264	0.00346	0.00000	0.01310	0.00622
2002년	0.00047	0.00082	0.00082	0.00000	0.00503	0.00106
2003년	0.00334	0.00328	0.00357	0.00001	0.02642	0.00704
2004년	0.00170	0.00145	0.00171	0.00002	0.01075	0.00218

⑦ 0307류

연도	러시아	미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
2000년	0.06601	0.32130	0.17650	0.01356	0.04144	0.06570
2001년	0.03783	0.28273	0.24961	0.01234	0.04118	0.03932
2002년	0.12488	0.24259	0.17471	0.05361	0.03650	0.04033
2003년	0.07786	0.13628	0.14367	0.07023	0.05934	0.07393
2004년	0.06433	0.13482	0.10083	0.12786	0.06862	0.05935

⑧ 1604류

연도	러시아	미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
2000년	0.00000	0.00000	0.00020	0.00001	0.00000	0.00000
2001년	0.00000	0.00075	0.00709	0.00016	0.00000	0.00000
2002년	0.00000	0.00033	0.00931	0.00001	0.00064	0.00000
2003년	0.00000	0.00045	0.00723	0.00000	0.00001	0.00000
2004년	0.00063	0.00063	0.00466	0.00000	0.00001	0.00013

⑨ 1605류

연도	러시아	미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
2000년	0.00020	0.00095	0.00242	0.00023	0.00002	0.00000
2001년	0.00000	0.00088	0.00452	0.00036	0.00000	0.00323
2002년	0.00045	0.00502	0.00847	0.00015	0.00168	0.00175
2003년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1	0.00000
2004년	0.00071	0.00099	0.00020	0.00000	0.00181	0.00008

⑩ 2301류

연도	러시아	미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
2000년	0.00907	0.01016	0.00010	0.00239	0.00029	0.00000
2001년	0.00354	0.00588	0.00003	0.00148	0.00008	0.00000
2002년	0.00435	0.01067	0.00010	0.00212	0.00030	0.00000
2003년	0.00498	0.01473	0.00005	0.00381	0.00087	0.00000
2004년	0.00787	0.01981	0.00002	0.00626	0.00031	0.00000

참고문헌

◆ 국내자료 ◆

- 관세청, 중국의 통관제도, 1999.
- 권영철, “국가경쟁력 평가 지표로서의 경쟁우위지수 : 개념정립과 예비적 검증”, 한국무역협회 정기학술회, 영남대학교, 1993.
- 김정봉, 「중국 수산업의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중국수출입상품 검사규정에 대한 설명」, 1998.
- 박승록, 「동북아 경제중심 기초여건: 무역거래, 수출경쟁력, 경합보완관계 측면에서」, 한국경제연구원, 2003.
- 오용석, 중국의 신무역관리제도와 구조변화, 대한상의 한중민간경제협의회, 1997.
- 주문배·고종환, “다자간 관세인하방식별 수산물 관세율 인하효과에 관한 연구”, 「해양정책연구」 2001년 여름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 주문배·고종환 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해양수산부, 2003.
- 주문배, “한·일 FTA 추진과 수산업 부문의 정책적 시사점”, KMI 해양수산 현안분석 2002-4호, 2002. 10.
- 주문배 외 4인, 「WTO 뉴라운드 수산부문 대응전략」, 해양수산부, 1999.
- 주문배, “WTO-DDA 수산물 관세분야 논의동향과 주요쟁점”, KIEP 대외경제전문가포럼 세미나 발표자료, 2002. 9.
- 주문배, 「WTO체제하의 수산식품 관세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 주문배, 「한·중·일 FTA 대비 수산업 부문 영향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주문배, “한·중·일 수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시장개방 대응방안”, 한국해양
수산물개발원, 2004.

———, “한중일의 수산업 구조와 시장개방정책”, 세계시장의 자유화와 한중
일 수산물 수출입정책 국제세미나, KMI, 2005.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중국 관세관련 동향자료」, 2001.

한국무역협회, 「중국관세율 및 수출입 요령」, 각년도.

해양수산부, 「2004년도 해양수산물백서」, 2004.

해양수산부, 「수산업동향에관한연차보고서」, 각년도.

해양수산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수산물)」, 각년도.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각년도.

해양수산부·농수산물유통공사, 「중국수산물시장동향」, 1999.

◆ 국외자료 ◆

朱國興 외 主編, 中國對外經濟貿易體制改革全書, 北京: 對外經濟貿易大學出版
社, 1995.

中華人民共和國 對外貿易法.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編, 中華人民共和國海關統計年鑑 2002, 2003.

國家統計局, 中國農業統計資料, 1998~2001.

中華人民共和國農業部, 中國農業統計資料, 2001.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1996~2000.

中國農業部, 「中國農業年鑑」, 1989~2000.

譚向 등, 「中國主要農產品市場分析」, 2001.

中國農業部, 「中國漁業統計彙編 1989~1993」, 1994.

中國農業出版社, 「中國漁業年鑑」, 2003, 2004.

余永定 외 編, 「中國入世研究報告: 進入WTO的中國產業」, 2000.

陳玉明 主編, 「中國加入WTO各行業前景分析」, 2000.

包 特力根白乙, 「計量經濟モデルによる中国の水産物需給構造に関する研究」,

京都大学博士論文, 2004.

———, “中國の水産物需給特性と消費形態”, 「世界市場の自由化と韓中日の水産物輸出入政策 国際セミナー」, KMI, 2005.

數 小坡, "日本の水産物輸出促進政策－韓国と中国を中心に", 「世界市場の自由化と韓中日の水産物輸出入政策 国際セミナー」, KMI, 2005.

http://www.kati.net/m_country/t21-6.htm.

<http://www.apectariff.org>, Table of Duty in Japan(2002).

ITC(<http://www.intracen.org/>)

중국의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수출확대방안

2005年 12月 28日 印刷

2005年 12月 30日 發行

編輯兼
發行人

李 正 煥

發行處

韓 國 海 洋 水 産 開 發 院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7~4
수암빌딩

전 화

2105~2700 FAX : 2105~280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16~80호

組版・印刷 / 해항사 393~0836 정가 15,000원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관매센터
Tel : 394~0337, 734~6818